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행복 강화교육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Incheon Ganghwa Office of Education



04 교육장 논란 |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06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혁신학교 준비 이렇게 ① | 합일초 교사 이창우
- 08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혁신학교 준비 이렇게 ② | 내가초 교사 채희은
- 10 배움중심수업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 | 양사초 교사 박성수
- 11 未生에서 完生으로 나아가는 길에 서서 | 합일초 교사 정혜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 12 강화두레자유학기제 | 강화교육지원청 장학사 송윤숙
- 14 작아도 뭉치면 힘이대! 불은·삼성 두레교육과정 | 불은초 교사 안수자
- 15 섬마을 두 학교 이야기 | 해명초 교사 권혁동
- 16 글로벌 리더 양성을 향한 선원융합인재교육 | 선원초 교사 송준근
- 17 미래 인재를 키우는 STEAM교육 | 강화중 교사 오지영
- 18 일곱빛깔 무지개로 가꾸는 인성 이야기 | 삼성초 교사 태영숙
- 19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계절학교 | 명신초 교사 하윤천
- 20 四色체험으로 행복이 넘치는 자연학교 | 양사초 교사 송경화
- 21 자연에서 꿈꾸고 자연으로 배워요! | 양도초 교사 오경선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행복강화교육

- 22 예술꽃씨앗학교와 함께 싹틔운 문화예술교육 | 하점초 교사 김경태
- 23 문화예술교육의 산실 갑룡 오케스트라 소리샘 | 갑룡초 교사 윤상희
- 24 감성 튜닝 알로아 우쿨렐레 | 난정초 교사 설재호
- 25 꿈을 노래하는 음악 수업 | 강화중 교사 윤소영
- 26 어울링 더울링 너와 나 하나되기 | 하점초 교사 이미숙
- 27 다름을 넘어 소통으로 하나되는 다문화교육 | 대월초 교사 전병화
- 28 강화두레 자유학기로 함께 만드는 진로교육 | 심도중 교사 윤지원
- 30 동광중, 미래를 디자인하다 | 동광중 교사 박지연
- 32 나의 미래! 진로 로드맵 | 삼성초 교사 태영숙
- 33 자랑스러운 강화의 문화재에 빠지다 | 대월초 교사 김미선
- 34 마음으로 하나 되는 줄 세상 | 불은초 교사 이복형
- 35 EBS와 함께하는 신나는 영어세상 | 길상초 교사 이정숙
- 36 섬마을 세 학교의 무한도전 영어도전기 | 삼산승영중 교사 김대민
- 38 지혜가 쑥쑥! 행복이 술술! 책 읽는 학교 | 강화중 교사 김혜연
- 40 꿈타래로 함께하는 창의인성 능력신장 | 명신초 교사 하윤천
- 4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HYO실천 | 화도초 교사 조명진
- 43 불은누리에서 미래를 품는 꿈동이들 | 불은초 교사 김은주
- 44 따뜻한 학교품, 행복한 저녁돌봄 | 지석초 교사 조미정
- 45 꿈이 열리는 난정 초등 돌봄교실 | 난정초 교사 이정원
- 46 과목별 특색 찾아가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 강화중 교사 최명신





- 48 꿈·끼가 있어 살맛나는 예능스쿨 | 삼산초 교사 임병주
- 49 높이 나는 강남인 | 강남중 교사 김종한
- 50 S·T·A·R 해명 과정중심 학생평가 | 해명초 교사 강세구
- 51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 성취평가제 | 강남중 교사 이정선
- 52 꿈을 키우고 사랑을 나눠요 | 조산초 교사 이철우
- 54 Wee클래스 - 우리 모두 조금만 힘을 내자 | 강화여중 교사 문선숙
- 55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서도하모니밴드부 | 서도중교 교사 고진실
- 56 봉어빵 한 개에 사랑 한 움큼 | 덕신고 교사 김세환

58 우리학교 특색 자랑

함께 배우며, 함께 가르치며

- 78 유구한 역사의 꽃 우리 학교는 | 강화초 교사 이재현
- 79 찾아가는 수업 지원단 | 양사초 교사 박성수
- 80 내 수업을 바라보다! 두 달여간의 성장 Drama | 선원초 교사 이은주
- 82 맞춤형 학습을 통한 실력 팡팡 | 하점초 교사 김경태
- 83 따뜻한 마음으로 큰 꿈 키우기 | 조산초 교사 오종원
- 84 전문적 학습 공동체 | 내가초 교사 채희은
- 85 강화 역사를 발로 새기고 있는 향토사연구회 | 강화여중 교사 신명철
- 86 인성교육의 씨앗은 강술바람을 타고 | 강남중 교사 고윤미
- 87 협력학습과 함께한 창의인성수업연구회 | 길상초 교사 이훈석
- 88 교육연극과의 행복한 만남 | 교동초 교사 임옥
- 89 창의인성교육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과학교육 | 양사초 교사 주원석

형형색색 강화교육

- 90 신규교사 소연샘의 학교적응기 | 길상초 교사 김소연
- 92 강화의 자연과 역사를 함께 배우는 마니골 체험학습 | 화도초 교사 류성진
- 93 손바닥 안에 세상을 담다 | 교동초 6학년 나웅균
- 94 초등학교 마지막 1년의 행복 | 서도초 6학년 이찬용
- 95 자유학기로 진로를 탐색하다! | 강서중 2학년 박민서
- 96 아이들과 함께 공감하여 즐거움이 쑥쑥 | 강화여중 교육복지사 구옥순
- 97 재능기부! 마음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 | 강화여중 학부모 김선숙
- 98 석모도 문화교류축제 '설렘'에 참여하며... | 삼상승영중 1학년 이서연
- 99 우리 선생님은 '사랑의 배터리' | 삼상승영중 1학년 서지우
- 100 '소원' 동아리 활동 수기 난 행운아! | 삼랑고 2학년 한별
- 102 봉사! 나를 키우는 시간 | 삼랑중 3학년 홍보미
- 103 무지개를 닮은 3학년 1반, 통합학급 친구들에게~ | 조산초 교사 고제현
- 104 자연으로 배우고 자연처럼 자라는 양도 아이들 | 양도초 교사 오경선
- 105 책소개 '강화도의 기억을 걷다' | 산마을고 교사 최보길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행복강화교육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

2014년 교육계에서 눈에 띄게 강조된 단어는 소통, 공감, 협력, 행복입니다. 이는 한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에 지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개인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역량을 길러주고, 삶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장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소통, 공감, 협력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협력하는 능력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에 강화교육지원청은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행복강화교육』을 지표로 설정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첫째, 바른 품성과 역량을 기르는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인성교육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구성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하며, 미래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리, 타인의 생각과 감정 존중, 배려와 나눔 실천 등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자연과 하나되는 인성교육 프로젝트, 창의·인성 중심학교 운영 등을 확대하고 갑비고차 두레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교육 전반에서 인성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모든 학생이 존중되는 맞춤형 수업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특성을 반영한 수업은 학습의욕과 동기를 높여 모든 학생이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창의성과 잠재능력이 계발되고, 학생 내면의 문제가 치유되며 회복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도 감소하게 됩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배움 중심의 학생 맞춤형 수업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타인과 공감하고 감성을 내면화하는 공감·감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협상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핵심역량이며 다가올 미래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동체 활동으로 서로 소통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길러지며, 서로를 보듬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회적 지지가 생겨납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도 내면화 됩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문소양교육, 체·덕·지 함양을 위한 전인교육, 인권 감수성을 키워주는 학생자치활동, 문화예술로 여는 행복학교 운영 등을 통해 공감·감성 교육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더불어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여 행복강화교육을 실현하는 토대가 됩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이라고 합니다.

2015년,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행복강화교육』을 통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 모두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행복한 강화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혁신학교 준비 이렇게 이렇게 ①

합일초등학교 교사 이창우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우리학교는 7학급의 14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강화도에서는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학교이다. 우리학교는 2014년에 혁신학교준비교로서 알찬 준비를 하였다. 먼저 합일초등학교가 혁신학교를 신청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학교 전반에 걸쳐 누적되어온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력수준의 격차가 크며 자신감이 약한 학생들

가정 간 소득격차가 심하며 결손가정 및 다문화 가정이 많고, 취학 아동 수 자연적 감소 및 타학교 전출로 인한 소학교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많은 종류의 목적성 사업 유치와 이로 인한 급작스런 교육과정의 변경

낮은 승진점수로 인한 만근(4년)을 채우지 못하고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내에서 옮겨가는 잦은 교사 이동

우리학교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정책연구나 시범학교와 같은 연구 활동을 통해서만 중증환자에게 단순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과 같은 효과만을 줄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다. 합일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 전략이 필요하였다.

교육활동 외 교사 잡무 감소를 위한 혁신적 방안

통합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등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재구성 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적절한 운영비 확보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교사들의 잦은 변동이 없는 학교 환경의 개선

따라서 우리는 소위 '판을 흔든다'라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했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했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을 한 번에 타파하기 위해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한 달간 논의 끝에 혁신학교 준비교를 지정 희망하였고, 이에 교장, 교감선생님께서도 지지와 격려를 해주셨으며, 전 교원 100% 찬성과 학부모 위원들 100% 찬성의 지지를 얻어 혁신학교 준비교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혁신학교 준비교로서 교장, 교감선생님들께서는 15시간의 집합연수와 30시간의 자율연수를 선도적으로 연수받으셨으며, 교사들은 강화교육지원청 주관 혁신학교 연수에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가하셨고, 학부모님들도 9분이 참가하시는 열의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를 잘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해 준 것은 경기 스쿨디자인 21 소속 우수 강사진을 초빙하여 하게 된 아래 표와 같이 계획하여 시행된 16시간의 자체 연수 때문이었다.

합일초등학교 혁신학교 준비교 자체 직무연수

순서	월일	시간	과목명	교수 요목	유형	강사		
						소속	직위	성명
1	1일차 11/10(월)	16:30~ 19:30	혁신학교 문화	학교문화와 민주적 운영체제	강의/워크숍	광주 분원초	교사	황해경
2	2일차 11/17(월)	16:00~ 19:00	철학	혁신학교코드와 학생의 참여	강의	양사초	교사	박성수
3	3일차 11/18(화)	16:30~ 19:00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재구성	워크숍	고양 서정초	교사	신동석
4	4일차 11/21(금)	15:00~ 18:00	혁신학교 방문	혁신학교 업무분장과 구조	강의/체험	양평 조현초	교사	박성만
5	5일차 11/24(월)	16:00~ 19:00	혁신학교 사례	혁신학교 사례 및 학교적용방안	강의/토론	부천 부명초	교사	양동준

이 연수에서 본교 선생님 들 뿐만 아니라, 강화지역 8개 학교 11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등 혁신학교에 대한 궁금증과 좋은 수업에 대한 열의가 많은 선생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으며, 또한 혁신학교에 대한 많은 부담감과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은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강한 동력을 이 연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이후 혁신학교 신청에 대한 최종 투표 역시 100% 찬성으로 귀결되었으며,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과 1문 1답을 위해 실시한 저녁시간 학부모 모임에는 학부모총회 때 보다 더 많은 40명이 넘는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셔서 혁신학교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우리학교는 인천형 혁신학교 1기로 지정받게 되었다. 현재 학교 교무행정사(가칭)들과 업무협의를 통해 실질적 업무감소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방안과 새로운 학교문화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혁신학교 지정 이후의 합일초등학교는 항일독립투사들이 거쳐 간 110년 전통의 지역 명문초등학교로 다시금 발돋움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으로 공동체적 삶을 중심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성장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은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혁신학교 준비 이렇게 이렇게 ②

내가초등학교 교사 채희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학교혁신 기대요구 교장공모제 추진(2014. 3. 1.)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교육비전 「꿈과 사랑이 가득한 행복 학교」로 교육과정 중심의 재구성 편성·운영이 필요함
- 학부모·지역사회의 교육열과 새로운 비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혁신이 필요함

道來美波率羅施의 멜로디 경영철학으로 교육관의 근간이다.

道	교장의 도덕성, 청렴성, 바른 학교 경영, 기초·기본이 반듯한 사람을 키우는 교육
來	미래관, 디지털 시대 대비, 상상력, 꿈을 향하는 목표지향의 교육
美	인생 최고의 가치관, 열정, 아름다운 조직 운영, 꿈 넘어 꿈 교육
波	조화와 소통의 경영, 긍정과 희망의 파장을 퍼뜨리는 교육
率	술선수법의 리더십, 몸으로 실천하는 교육, 리더십 함양 교육
羅	다원적 가치를 포용하는 리더십, 호연지기·포용성을 지닌 사람 교육
施	배풀고 배려하는 인품, 적선(積善), 선행의 실천 방법, 창의 인성 교육

혁신학교 관련 원격연수 실시

- ☞ 혁신학교 교원 중 모두가 혁신학교 관련 원격연수를 1회 이상 수강
- ☞ 원격연수 종류별 횟수는 교원 전체 평균 2회 이상
- ☞ 원격연수 수강 시간은 교원 전체 평균 55시간 이상으로 전 교원 모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높은 의지
- ☞ 학교장 및 교감, 혁신학교 추진 관련 부장의 연수 이수율은 평균 5회 이상 90시간의 연수 수강

11월 혁신학교 직무연수 실시

- ☞ 혁신학교 준비교를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에서 전 교원이 이수
- ☞ 혁신학교 직무연수의 내용 구성은 의식(1), 컨설팅(2), 워크숍(4), 강의(6), 혁신학교방문(3)으로 총 16시간 실시
- ☞ 혁신학교의 이해, 배움중심교육의 이해 및 적용, 혁신학교 방문을 통한 적용 방안 모색, 워크숍을 통한 교사의 공동체 구성 등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하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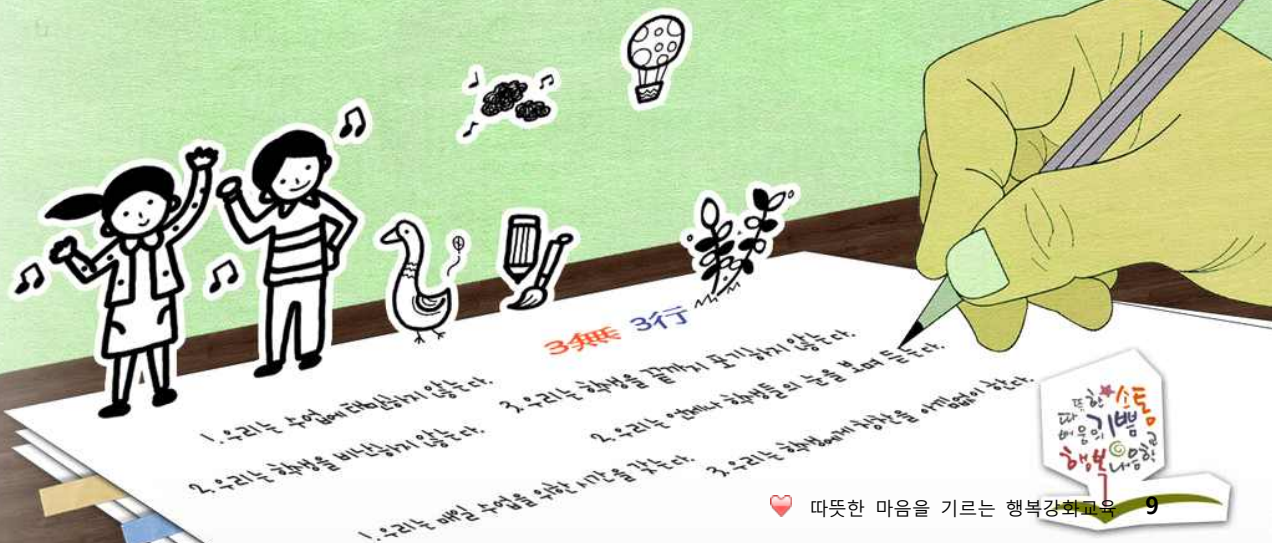
12월~2월 혁신학교 준비과정

- ☞ 에듀넷 학교혁신 원격연수(30시간) 전교사의 60%가 신청하여 수강
- ☞ 2014 교육활동 반성 및 2015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1박 2일 워크숍을 통하여 2015학년도 학교의 방향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반영
- ☞ 2015학년도 업무경감을 위한 전교사 업무분장 협의 및 학년배정 완결, 전교사 협의에 의한 2015학년도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테마 선정 및 학사 일정 협의

교사들의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노력

혁신학교 준비를 위한 노력

혁신학교 준비를 위한 노력



혁신학교의 작은 첫걸음 배움중심수업의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

양사초등학교 교사 박성수

배움중심수업이 다른 교육청에서 시작되었을 때 나는 과연 저 실험적인 도전이 성공할까 반신반의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수업의 또 다른 형태의 재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직접 수업을 보고 먼저 배움중심수업을 운영했던 교사들과 이야기 나누며 부러웠다. 우리가 꿈꿨던 이상적인 수업의 형태였기 때문이다. 시행착오가 물론 있겠지만 새로운 시도임에는 틀림 없고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의미 있는 실패일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교육청도 이제 배움중심수업을 연수하고 있으니 참 반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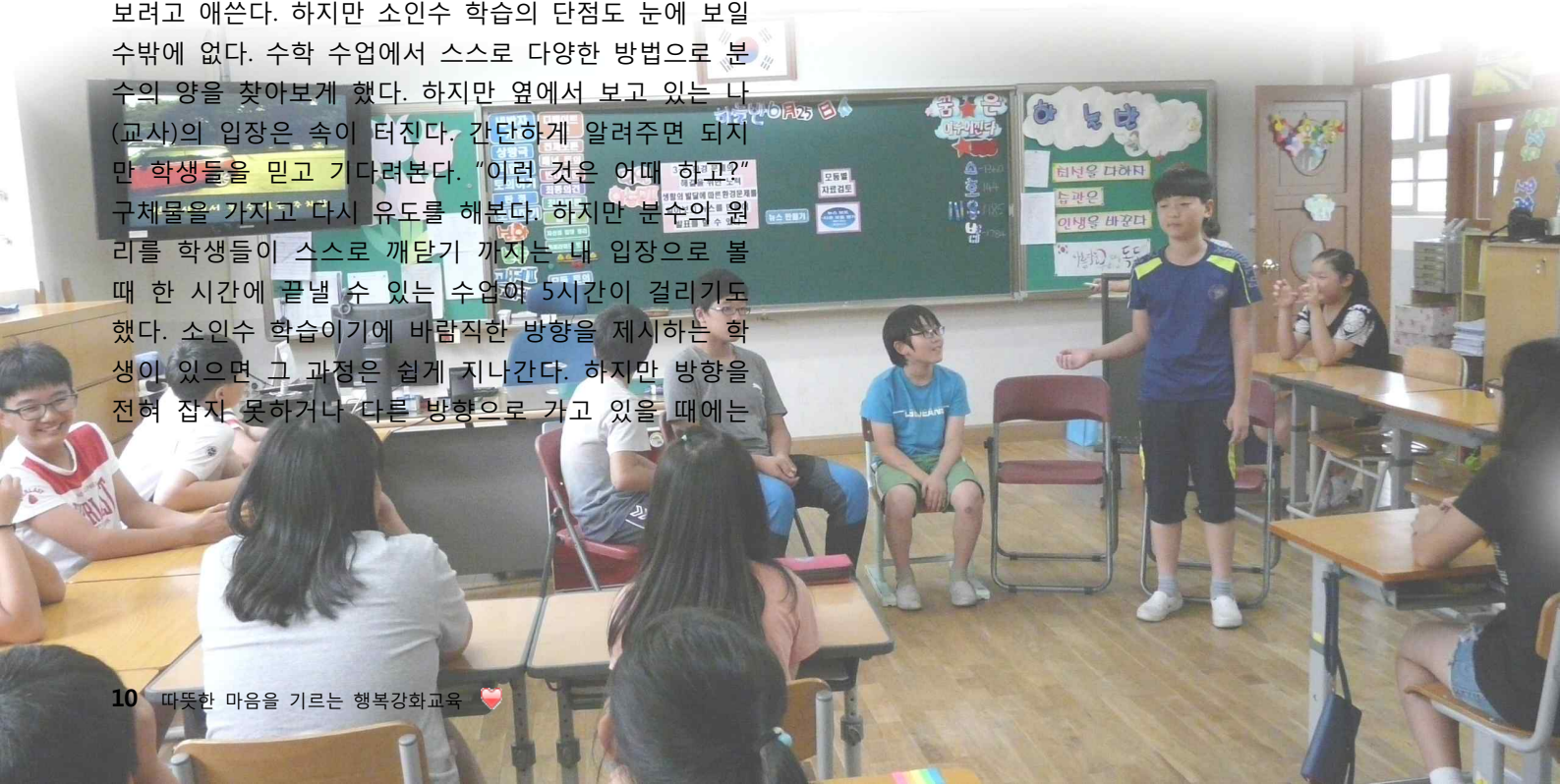
소식이다. 나는 배움중심 수업으로 교사, 학생 모두가 성장하는 수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신장시켜 모든 학생의 배움을 향상시키고, 배움중심수업의 확산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문화를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배움중심수업이 뿌리를 내린다면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배우는 행복수업이 실현되고 그토록 부르짖던 '창의인성' 교육이 공고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수업 사례를 적어 보려고 한다. 배움중심수업을 하기에 너무도 알맞은 조건을 가진 소인수 학급에 나는 내가 주도하지 않는 수업을 해 보려고 애쓴다. 하지만 소인수 학습의 단점도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 수학 수업에서 스스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수의 양을 찾아보게 했다. 하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나(교사)의 입장은 속이 터진다. 간단하게 알려주면 되지만 학생들을 믿고 기다려본다. "이런 것은 언제 하고?" 구체물을 가지고 다시 유도를 해본다. 하지만 분수의 원리를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기까지는 내 입장으로 볼 때 한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수업이 5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소인수 학습이기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과정은 쉽게 지나간다. 하지만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는

내 고민은 커지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개입을 할 것인가? 조력하고 말 것인가?' 언제나 수업을 덜 준비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수업이 종료된다는 느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음을 어떻게 다시 이어가야 학생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례를 가지고 자신의 수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지식의 양이 정해진 우리의 교과서를 따라가려고 하면 기다리고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배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힘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 준비하는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지식만을 넣어주는 수업은 교사 위주로 하면 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나게 하려면 더 많은 교사의 고민과 같이 하는 교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갈 수 밖에 없다.

배움중심수업을 통해 학교 현장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배움이 즐거운 학생, 가르침이 즐거운 교사, 배움과 소통 나눔과 참여의 공동체 학교문화를 기대한다. 나도 더 고민하게 된다. 배움중심수업의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



혁신학교의 작은 첫걸음 未生에서 完生으로 나아가는 길에 서서

합일초등학교 교사 정혜선

#1. 혁신학교?

‘선생님들, 혁신학교 한 번 해보자면 하겠어요?’
1학기 중반으로 접어들 즈음, 사석에서 교사 몇이 모였을 때였다. 년지시 교무부장님께서 말씀을 꺼내셨다.

혁신학교?

‘혁신’이라는 어감이 주는 사전적 의미 외에는 사실 별다른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터라 선생님들 나누시는 말씀을 잠자코 듣게 되었다. 언뜻 들은 바로는 교사가 행정적 업무 대신 교사 본연의 업무 즉, 수업에 열중한다는 것, 다양한 체험 활동 위주의 수업을 전개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힘들 것이라는 것. 처음 내게 다가온 혁신학교의 의미는 그 정도였다. 그리고 당시의 나는 새해에 타 교육청으로의 전출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와 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뭔지 모를 호기심이 샘솟고 있었다.

#2. 혁신학교

대학원에서 처음 알게 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에 관심이 생겨 KBS 파노라마 제작팀에서 주최하는 ‘미래교실 프로젝트 - 거꾸로 교실’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다. 거꾸로 수업을 운영하거나 관심이 있는 전국의 초·중·등 교사들이 모여 서로의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연히 우리 분임에 경기도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선생님들이 여럿 속하게 되었다. 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내가 꿈꾸던 수업이 여전히 내겐 꿈만으로 남아있는 동안 저렇게 많은 선생님들은 자신의 수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구나. 저들은 정말 수업 전문가가 되어 있구나. 나는 뭘 했을까 하는 생각에 그날 밤잠을 조금 설쳤다.

막내여서 업무가 많아서..., 연구학교 연구부장 하느라 업무가 많아서..., 강화도 작은 학교에 와서 업무가 많아서... 늘 내 곁엔 충분한 핑계거리가 있었다. 아니, 나는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내 자신에게도, 나의 많은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낮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혁신학교 선생님들을 떠올리며 혁신학교에 대한 궁금증과 동경이 커졌다.

#3 혁신학교!

2학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혁신학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료를 찾아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초빙 강사의 연수를 듣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공부하며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언제 이랬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했던가. 이제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자리 잡았다. 이제 우리는 교사 본연의 ‘일’을 하려고 한다.

인천에서의 첫 혁신학교라는 설렘, 부담감.

앞으로 다른 학교들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운영이 될 것인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실패담이 될 것인가?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에 설렘과 함께 걱정이 크지만

우리 모두는 이제 그 길을 나서려고 한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아닌 것은 아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난 길과 같다.
지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길이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 <미생> 마지막회 나레이션 중에서 -



갑비랑의 행(복한) 진(로)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강화두레자유학기제

강화교육지원청 장학사 송윤숙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은 2014년 2월 21일 교육부로부터 자유학기제 운영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정을 받아 관내 10개 학교가 100% 참여한 가운데 2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진행하였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를 처음 시행하는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강화교육지원청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원하였다. 먼저 자유학기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인적 시스템으로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추진단,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해주는 외부자문단, 학교를 지원하는 장학지원단,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추진협의팀, 학교의 필요에 적극 대응해줄 수 있는 학부모후원단, 지역사회후원단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종합지원시스템인 자유학기제 홈페이지를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연동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웹기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들의 업무 경감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시스템화한 자유학기제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여 학교들의 단계별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강화는 농어촌지역으로 작은 학교들이 많아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활동을 선택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교들을 인근 지역 중심으로 권역별로 묶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강사 확보가 어려운 교육활동인 경우, 인근 지역사회 기관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교육기부를 받아 학생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 키워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21세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인재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온리원 나의 자서전」과 행복은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달려있으므로 관점 훈련을 통한 행복 만들기를 위한 「나는 행복 Maker」이다.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끼를 기반으로 자신의 꿈을 탐색하고,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중학교 2학년 전체가 참여한 「강화 진로페스티벌」을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위해 학생들의 진로 설문을 기반으로 진로콘서트, 진로특강, 교육특강, 진로부스를 통한 진로멘토링, 연계 대학들이 참여한 진학멘토링 등 진로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와 인근 지역의 다양한 직업체험처를 발굴, 연계하여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직무 중심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들의 꿈을 탐색하는 것을 도왔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이다. 그러기에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연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대부분의 교사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역량을 갖추었다. 교사뿐 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외부강사까지 연수를 단계별로 진행하여 모든 교육공동체가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들의 의식 변화와 지역사회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리플릿, 현수막, 꿈끼송(자유학기제 홍보송) 등을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 관내의 모든 중학교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고 열정을 다해 현장에서 실행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행복강화교육에도 기여하였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고 키워가는 강화의 자유학기제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강화의 모든 교육 가족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갈 것이다.





작아도 뭉치면 힘이다! 불은·삼성 두레교육과정

불은초등학교 교사 안수자

불은초교와 삼성초교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이다. 교원의 수가 적고 어린이들의 수가 매우 적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같은 어려움을 가진 소규모학교로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공동으로 미술작품전시회와 수영교실운영을 실시했다. 4월 17일 마니산 등반을 위한 답사 활동을 시작으로 미술작품 전시회, 수영교실 등 두레교육과정을 기획하였으며 교사 연수를 시행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서로 소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영역	활동주제 및 내용	활동 기간(일시)	활동 장소	활동 상황		비고
				참석교명	총인원	
교과	미술작품전시회	2014.7.14.-7.31	광성보	불은, 삼성	120	불은초 주관
교과 교육과정	수영교실운영	2014.7.21	로얄호텔	불은, 삼성	120	불은초 주관
교사연수	갑비고차 두레교육과정 연수	2014.4.17	불은초	불은, 삼성	20	불은초 주관



운영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

갑비고차 두레교육과정은 소규모 학교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학급 운영과 소인수 학급의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빠듯한 학교일정으로 교사들의 모임과 연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매 달 1회씩 두레교육과정의 날로 정하여 정기 모임을 갖고 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을 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운영이 될 것이다.



두 개의 학교는 작지만 하나로 뭉치면 큰 학교 섬마을 두 학교 이야기



해명초등학교 교사 권혁동

목 적

- ☞ 삼산초등학교와 작은학교 인성두레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에 적절성을 기하고, 학습에 대한 효율을 증진시킨다.
- ☞ 도시학교 인성두레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도시학교와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한다.
- ☞ 지역사회 인성두레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다.

중점과제

- ☞ 삼산초와 공동으로 체육대회, 수학여행, 강화나들길 걷기대회 운영
- ☞ 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와 공동으로 자연사랑체험활동 및 도시체험 활동 전개
-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진로탐색 체험활동 전개

방 침

- ☞ 두레교육과정 편성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 해명초와 삼산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수학여행, 체육과 수업 및 체육대회를 공동 운영하여 행사의 만족도를 높이며,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
- ☞ 두레교육과정 운영 후 평가회를 실시한다.
- ☞ 도시학교 인성두레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 지역사회 인성두레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결과활용

- ☞ 타교 학생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사회성 함양
- ☞ 자연사랑체험을 통한 녹색성장교육
-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진로체험의 기회 확대

중점과제	추진내용	대상	시기	담당
두레교육과정 연수회 실시	• 연 4회 실시	• 교직원	• 학기초, 학기말	• 삼산초 주관 • 교무
수학여행	• 수학여행 공동 추진 • 현장답사 공동 실시 • 수학여행 프로그램 공동 운영	• 4,5,6학년	• 3월26일~28일	• 해명초 주관 • 6학년
봄 체육대회	•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 실시	• 전교생	• 5월 2일	• 삼산초 주관 • 체육
수업협력 체제 구축	• 상호 정보교류 • 현장학습 공동 추진	• 교원, 학생	• 연중	• 교무
인성두레교육과정	• 도시학교 인성두레 교육과정 • 지역사회 인성두레 교육과정	• 전교생	• 9월 3일 • 10월 23일	• 교무





글로벌 리더 양성을 향한 선원융합인재교육(STEAM)

선원초등학교 교사 송준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준비!

선원초등학교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인식을 함께하고 교과별 교수·학습에서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 내용 추출을 통해 효과적이고 활동지향적인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함으로써, 학생의 유연하고 균형적인 창의적 사고력 신장 및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창의력 UP! 사고력 UP!

단기 프로젝트(2-4차시 이내)와 장기 프로젝트(6차시 이상)로 구분하여 교과내 수업형 및 교과연계 수업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주제선정 후 STEAM 수업모델 적용이 가능한 교과와 단원, 차시를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에 필요한 자료 및 수업설계를 통하여 선정한 주제에 맞는 수업을 구안하여 단기, 장기 수업 형태에 맞게 수업을 구성하였다. 3-6학년은 농산어촌 창의과학교실과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기자재를 활용하여 내실있는 수업활동을 전개하였다.

내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횟수	차시	횟수	차시	횟수	차시	횟수	차시	횟수	차시	횟수	차시
장기프로젝트	5	54	4	52	4	38	4	33	4	30	3	21
단기프로젝트	3	12	5	24	4	17	4	12	4	18	5	19
계	8	66	9	76	8	55	8	45	8	48	8	40

꿈을 향해 한발 더 나가서!

학생들이 선정된 수업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교과 및 자료를 적용하여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수업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어 창의성 신장 및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교과 적용과 창의과학교실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기자재 활용, 협업수업 등을 통하여 융합 및 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별자리찾기 5학년]



[직업사전만들기 2학년]



[화석만들기 3학년]



[협업수업 5학년]



미래 인재를 키우는 STEAM 교육 한 학기의 자유로, 한 평생의 좌표로

강화중학교 교사 오지영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모형을 적용한 과학.수학.음악 융합 프로젝트수업-파동을 활용한 예술과 기술

- ③ 학생들은 초등학교나 책, 인터넷 정보들에서 파동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접해 보아 대중은 알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파동의 현상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수업은 과학완구를 이용하여 파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탐구해 보고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내는 방법을 찾아보는 학습을 하게 된다.
- ③ 본 수업에 적용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모형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고 자료를 분석하면서 소집단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
- ③ 본 수업은 파동에 대한 과학적 원리와 음계가 생겨난 수학적인 소수에 대한 계산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음계의 원리와 악기의 적용인 음악적인 요소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다.



통계주제를 해결되어야 할 저출산 문제로 정해 수학의 실용성을 인식하는 수학.사회 융합수업

- ③ 본 수업은 각 지역의 문제점으로 판단되는 주제를 통계수업과 연계시켜 융합수업으로 진행해봄으로써, 실태를 파악하고 미비하지만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학생들이 그 지역 뿐 아니라 미래사회의 주역임을 느낄 수 있도록 주체성과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목적으로 수업을 구상한다.
- ③ 사회과 학습 목표인 통계 처리된 자료를 통해 사회현상을 인식, 해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수학과 학습 목표인 모뎀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해결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법(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원그래프)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③ 본 수업은 실생활문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수학+사회의 융합수업을 시도하여 문제해결력 신장, 다양한 소통 및 사회적 능력까지 함양할 뿐 아니라 융합수업을 통한 복합적 지식구성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수업 방식은 '다양한 분야의 활동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 학기의 자유로 한 평생의 좌표를 정확히 잡게 되기'를 바라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방식이다. 특별히 이 수업은 수학이 실생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삶의 문제해결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일 뿐 아니라 농어촌의 큰 문제인 '저출산'의 실태파악 및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거꾸로 수업을 바탕으로 한 수학+사회 융합수업으로 구성되어 블록타임으로 진행한다.





인성중심 학급교육과정 재구성 일곱빛깔 무지개로 가꾸는 인성 이야기

삼성초등학교 교사 태영숙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수업 내용, 방법 및 평가 방식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인성 덕목을 중심으로 학급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인성 덕목은 정직, 책임, 존중, 배려, 공감, 협동, 소통 등으로 이 7덕목을 매월의 주제로 삼아 인성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핵심성취기준에 의한 주제중심 교과통합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구안과 적용에 앞서 인적·물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인적 자원을 구축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의형제 조직 및 동아리 조직, 인성동화 읽어주기 학부모 도우미 선정, 인성특강을 통한 학부모·교사 연수, 지역사회 인성교육 협력기관 MOU 체결 및 협력 체계 구성을 하였다. 물적 자원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활동 홍보 및 인성교육 소식 탑재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SNS인 '클래스팅' 조성, 각 교실 인성교육 결과물 게시 및 월별 활동 결과 복도 게시, 인성동화 구입 및 도서관 '인성코너' 설치, 릴레이 독서 인성동화 읽기, 실외 정자를 활용한 소통관 설치 등을 하였다.

덕목실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매월 인성덕목을 주제로 삼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매월 첫째 주에는 인성 덕목 중심 '테마가 있는 애국조화'를 실시하여 인성훈화와 이달의 동요 배우기, 책 읽어주는 어머니에게 인성 동화 듣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에는 수요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인성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이때는 인성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핵심성취기준에 의해 사회, 도덕, 국어 등의 교과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셋째 주에는 매월 덕목에 부합하는 인성 캠프를 운영하였다. 4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관람, 5월 다도 및 예절교실, 6월 진로캠프, 7월 수영교실, 9월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10월 강화나들길 걷기 등을 통해 교과로 배운 인성덕목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다. 넷째 주에는 매달의 인성교육활동을 반성하고 평가해보는 도시락(圖詩樂)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활동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인성동화 읽고 토론하기, 이 달의 인성 동요 부르기 대회, 덕목실천우수아 선정, 의형제별 생일파티를 진행하며 의형제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그 달의 활동을 반성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사고력 신장은 물론 바른 인성을 함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가족과 연계한 인성 캠프를 진행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 증대에 공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자연과 아이들이 하나되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계절학교



명신초등학교 교사 하운천

운영목적

- ☞ 생태 체험 및 생활문화 체험학습을 통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 ☞ 학교와 교사 단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운영

운영방침

- ☞ 직접적인 체험 중심 및 창의성을 일깨우는 창의적 교육활동을 구안 적용
-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주제별 통합하여 운영시간 확보
- ☞ 여름계절학교는 생태활동 주기집중형, 무학년제형 체험 중심교육과정으로 운영
- ☞ 가을계절학교는 연극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혼합형으로 운영
- ☞ (여름계절학교) 2014.6.30(월)~7.4(금), (가을계절학교) 2014.11.3(월)~11.7(금)

운영효과

- ☞ 자연의 고마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짐
- ☞ 나무열매 따먹기, 숲 속 오솔길 걷기 등 자연친화적 활동을 통한 몸과 마음의 힐링
- ☞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선후배간 우애를 다지고 공동체 의식 함양

날짜 시간	6/30(월)	7/1(화)	7/2(수)	7/3(목)	7/4(금)	11/7(금)
	도시학교 MOU체결 체험학습					가을계절학교 발표회
09:00-10:20	교과수업	교과수업	☀ 수영활동 (09:00-15:00) ▶ 강화 로얄 워터파크	☀ 꿈타래 야영 체험학습 (1박2일) ▶ 서사체험학습장		교과수업
10:20-10:40	중간놀이	중간놀이				중간놀이
10:40-12:10	'숲'체험활동	프로젝트 독서활동				망월별판 체험활동 (메뚜기잡기) 고구마, 밤 굽기
12:50-13:30	농산물수확	목공예 및 곤충 체험활동				연극발표회
13:40-14:30	체험활동					





네 개의 계절, 네 개의 색, 네 개의 삶 四色체험으로 행복이 넘치는 자연학교

양사초등학교 교사 송경화

꽃처럼 소중한 아이들

학교는 가고 싶어야 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어떻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자연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자연체험, 문화체험, 농사체험, 음식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꽃처럼 환하게 학교생활을 하기를 기대했다.

모내기, 고구마순심기, 감자캐기, 버베기, 배추수확, 고구마캐기, 숲체험 등

자연 이해

문화 나눔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박물관(종이나라, 소리체험), 미술관 체험 등

건강 증진

전통 이해

나들길걷기, 운동회, 레크레이션, 수영, 스키체험 등

전통물총놀이, 고추장담그기, 김장체험, 메주만들기, 장담그기 등



숲체험, 어린농부(모내기, 고구마순 심기), 나들길 걷기, 사랑의 음악회, 고추장만들기



물로만 올림픽, 어린농부(감자캐기), 통일안보체험, 워터파크, 팔빙수&감자샌드위치, 신기한 소리체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농부(버베기, 고구마수확), 김장담그기, 사랑의 음악회, 과학체험, 종이나라체험, 신나는 운동회, 미술관 체험

내년 장담글 메주 만들기, 야호! 2박 3일 스키캠프로~~



외부 위탁학생들과 더불어 함께하며 자연에서 꿈꾸고 자연으로 배워요!

양도초등학교 교사 오경선



I 추진배경

100년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양도초교가 위치한 주변 자연환경은 매우 아름답다. 학교 정면 2Km 내에 서해 바다와 강화갯벌이 펼쳐져 있어 바다 생태 탐사의 적격지이며, 학교 주변에 진강산과 작은 계곡, 멀리 않은 곳에 진달래 군락을 이루는 고려산, 혈구산 등의 자연 환경은 자연 생태 학습과 탐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 세기가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양도면에 자리 잡은 본교는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적 변화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어 왔다.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고 학교를 되살리기 위해서 주변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양도초등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숲 속 계절학교' 위탁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II 운영내용

계절학교란 계절별(풀빛-물빛-하늘빛-눈빛)로 5일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양도초의 학생들은 물론, 외부위탁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자연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각 프로그램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매년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자연 속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2011년부터 실시해 온 숲속계절학교 위탁체험학습에는 외부 초등학교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인천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멀리 부산에서까지도 개별위탁체험학습 신청을 해오고 있다.

- 2014학년도 운영 내역

일 정	주 요 내 용	세부 추진사업 내용
2014.5.19 ~ 5.23	풀빛계절학교	숲체험교실, 농사체험, 김치담그기, 고구마캐기, 감따기, 은행털기,
2014.7.14 ~ 7.18	물빛계절학교	별자리관찰, 계곡체험, 수생식물관찰, 민물고기 및 망둥어잡기,
2014.10.20. ~ 10.24	하늘빛계절학교	갯벌체험, 전통떡만들기, 짚풀공예, 천연염색, 방송댄스, 국악,
2014.12.1 ~ 12.5	눈빛계절학교 (양도초교 학생만 참여)	진로교육, 놀이체육, 레크리에이션, 도자기공예, 계절학교 노래, 겨울스포츠 활동 등

III 운영성과

계절학교 프로그램이 양도의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며, 2011년 23명이었던 학생 수는 2014년 현재 71명으로 3배가량 크게 늘었다. 양도초의 학생들은 고장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고, 외부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감이 회복되었다.

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현재)
학생수	29명	29명	23명	41명	63명	71명

<연도별 양도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표>

예술꽃씨앗학교와 함께 싹틔운 문화예술교육

하점초등학교 교사 김경태

운영내용1 수업하며 꽃핀 예술꽃 씨앗학교

■ 하나. 학년별 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 사업인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과 연계하여 디자인 영역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연계 교육
- ☞ 전학년 미술, 통합교육, 실과, 창체 등의 활동과 연계한 후 20시간 이상 순증하여 생활공예, 원예공예 실시
- ☞ 생활공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학교 복도에 그림을 그려서 하점 아트홀을 완성했으며, 원예 공예 시간에는 학교 교재원, 꽃정원, 나비농장을 꾸미고 가꾸며 활동함

■ 두. 문화 예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 디자인관련 방과후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도자기 교실, 완초 교실, 화문석 교실, 미술여행, 토요미술교실을 운영함
- ☞ 도자기 공예시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흙을 만지며 다양한 생활도구를 만들었으며, 완초 공예와, 화문석 공예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통공예를 계승 발전시켰고, 미술 활동을 통해 미술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운영내용2 놀면서 꽃핀 예술꽃 씨앗학교

■ 하나. 여름, 가을 계절학교 운영

- ☞ 여름, 가을 계절학교를 통해서 평소에 체험할 수 없었던 비즈공예, 창의미술, 쿠키테라피, 북아트, 양초공예, 리본공예 등을 체험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두. 문화예술 summer school 운영

- ☞ 문화 시설이 없는 농촌에서 여름 방학기간을 문화 예술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여름 문화 예술 썸머스쿨을 2주간 실시하여 학생들이 생활공예, 북아트 등의 활동을 체험함

운영내용3 '나도 예술가' 전시회 개최

- ☞ 일반적인 전시회가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이 예술가가 되어 개인 작품 부스를 만들어서 1년간 활동한 작품을 전시하고 찾아온 학부모와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며,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나도 예술가' 전시회를 실시



운영성과 및 제언

- ☞ 완초공예와 화문석 공예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예술 거점 학교로 거듭남
- ☞ 생활공예를 배우는 데서 머물지 않고 오래되고 낡은 학교 복도를 학생들이 직접 벽을 칠하고, 그림을 그리고, 벽화를 만들어 붙이며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자신의 재능을 키웠음
- ☞ 원예공예활동을 하며 학교 꽃밭을 직접 꾸미고, 교재원의 식물을 함께 심고 가꾸고 수확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 예술 활동을 하였음
- ☞ 학부모(10회), 지역사회(4회), 교직원(6회)이상의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 예술 보급을 위해 노력함

문화예술교육의 산실 **갑룡 학생오케스트라** 소리샘

갑룡초등학교 교사 윤상희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 단원(정단원 및 부단원) 확보 : 2012학년도 31명, 2013학년도 42명, 2014학년도 79명 (전교생의 11%)
- 단원들의 수준 향상을 위한 여름 및 겨울 캠프 실시
- 문화예술성 증진을 위한 문화체험 실시(스트링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



교내외 행사 축하 연주

- 교내 행사 : 운동회 축하 연주(10/29), 방과후학교 학예발표회 축하 연주(12/5), 졸업식 축하 연주 예정(2015. 2. 13)
- 충동문화 체육대회 축하 연주(10/3), 충동문화 송년 행사 축하 연주(12/20)
- 한·중수교 22주년 기념 제1회 한·중청소년 친선합창대회 축하 연주(8/7), 2015 다렌시 신년음악회 참가 예정(2015년 1월 13~16일)



3대 고리잇기 사랑의 음악회 주관 및 연주 참가

- 2014학년도 3대 고리잇기 사랑의 음악회(10/31)를 주관하여 운영
- 강화 관내 초등학교 중 유일한 학생오케스트라 운영교로 사랑의 음악회 참가
- 강화중, 강화여중 학생오케스트라와 함께 연합오케스트라 연주 참가



제3회 정기연주회

- 2012학년도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 19일 제3회 정기연주회 운영
- 정원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덕수 국회의원, 안영수 인천광역시시의원, 관내 초등학교장 16명 등 많은 내빈과 학부모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짐
-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향한 악기 편성 및 연주
 - 제2회 정기연주회 :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 제3회 정기연주회 :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트롬본, 스네어드럼, 베이스드럼, 오픈심벌, 콘서트심벌즈, 트라이앵글, 피아노



감성 튜닝 알로아 우쿨렐레

난정초등학교 교사 설재호

운영목적

- 난정꿈 Do-Dream 학교교육과정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 『알로아 우쿨렐레』의 조화로운 소리와 화음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학교' 및 '꿈을 키워주는 학교'조성에 기여
-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및 우쿨렐레를 비롯한 다양한 악기 연주를 통하여 서로 협동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창출해 냄으로써 협동심과 미적 감각 자극
- 정서적인 안정과 원만한 교우관계, 보다 창조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운영방침

- 학교교육과정,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 본교 학생들의 바른 인성 및 올바른 인격 형성에 중점
- 문화예술체험활동으로 협동심, 표현력, 대인관계에 형성에 주안점
- 동아리 특색에 맞게 어린이 예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
-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성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운영성과

-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학생과 학생과의 유대감 형성
- 협동심, 표현력, 대인관계에 도움을 주어 바른 학교 문화의 기반 구축
- 음악적 능력을 길러 보다 수준 높은 예술적 감각을 키워 미래 인재 양성을 키우는데 밑거름
- 개인적 자기 계발 및 진로활동에 도움을 주어 능력 신장에 이바지

월	지도곡명	지도 내용	영역
4	엄마돼지/아기돼지 우쿨렐레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 부르기, 부분2부합창하기 우쿨렐레 악기 명칭 및 연주법 익히기 	가창(중창) 우쿨렐레
5	비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곡 듣고 따라 부르기 악센트를 살려 강하게 연주하는 법 익히기 	가창(중창) 우쿨렐레
6	모두가 천사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듬을 살려 화음 만들기 강박과 약박의 리듬을 이해하기 	가창(중창) 우쿨렐레
7	나비야 똑똑똑 여름 냇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lto와 Soprano 음색 구분하여 부르기 정확한 4박자의 개념 이해하기 	가창(중창) 우쿨렐레
8	고향의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 노래 '조개껍질 묶어' 화음 살려 부르기 서정성을 살려 반주에 맞춰 연주하기 	가창(중창) 우쿨렐레
9	창밖을 보라 작은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몸동작과 함께 노래부르기 반복되는 느낌을 살려 연주하기 	가창(중창) 우쿨렐레
10	피노키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 중 Syncopation 이해하기 밝고 고운 느낌을 살려 연주하기 	가창(중창) 우쿨렐레
11	하얀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듣고 부르기로 가락 익혀 부르기 대중가요의 곡을 조화롭게 연주하기 	가창(중창) 우쿨렐레
12	에델바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나 캐럴의 특성을 이해하여 노래 부르기 화음과 반주의 느낌을 살려 연주하기 	가창(중창) 우쿨렐레
2	내가 만일 학예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정골축제 공연 건전가요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노래 부르기 예술동아리 특색을 살려 배운 곡 발표하기 	가창(중창) 연주

꿈을 노래하는 음악수업

강화중학교 교사 윤소영

꿈을 노래하고 꿈을 찾는 진로교육과 함께하는 음악과 교육과정

- ♪ 음악시간 첫 도입을 한 학기 동안 같은 노래로 시작, 교과서의 음악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거위의 꿈'과 '말하는 대로'라는 대중음악으로 친숙하게 꿈을 노래하고 시작하는 수업을 도입
- ♪ 이와 더불어 2학년은 배운 노래를 통하여 도서관과 연계하여 감동받은 시를 읽고 시를 가사로 어울리게 바꾸는 융합수업을 실시
- ♪ 1학년은 자신의 꿈에 대하여 가사를 바꾸어 보는 활동으로 자신만의 '꿈 노래'를 만드는 작사활동 실시

Project 수업, 함께하는 합창과 스스로 감동받는 피아노 연주



함께하는 피아노 연주

- ♪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음악과 수업 두 가지 Project수업을 진행
- ♪ 2학년 전체가 한명도 빠짐없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무대에 서기 위해 다양한 무대연출과 노래를 같이 부르고 연습하는 활동 진행, 모든 학생이 하나의 무대를 위해 협력하여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적 완성도를 위해 함께함의 의미를 찾는 음악적 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같이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 2학년 전체 학생이 자신의 수준별로 한국식 피아노 연주하는 수업을 진행, 학생 전체에게 피아노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롤피아노를 활용하였으며 멘토-멘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서로 배움과 가르침을 경험하여 스스로 두손, 열손가락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완성된 연주를 뽐내는 수업을 진행. 남학생들의 멋진 피아노 연주에 스스로 감동받는 시간이 되었음

인천 최고의 연주 실력을 갖춘 강화중학교 Wind Orchestra

- ♪ 점심시간, 악기 연주로 시끄러운 음악실은 강화중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주 실력을 보여주고 있음. 학생들 스스로 별관 4층 꼭대기 음악실로 달려와 연습을 하는 점심시간. 다른 학생들에게는 쉬는 시간이지만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스스로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연습하는 시간, 선배들은 모범을 보이고 후배들은 그 모습을 따라하는 점심시간의 악기 연습은 강화중학교 오케스트라의 전통이 되고 있음
- ♪ 연주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말동무와 도움이 되는 노동활동과 함께 연주를 들려드림으로써 학생들의 연주가 이 사회에 누군가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음을 경험

어울링 더울링 너와 나 하나되기

하점초등학교 교사 이미숙

다문화교육 기반구축

- ① **하나.** 다문화 교육 지역사회 협의회 구성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와 관련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한 해의 사업방향을 공유함으로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기관간 다문화교육 사업과 협조사항을 논의함
- ② **둘.** 다문화가정 상담센터 및 상담주간 운영
상담원 네 분을 위촉하여 1학기 및 2학기에 1주를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다문화 담당교사가 한국어반 운영하는 매주 월요일 학생교육과 가정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짐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거점학교, 연구학교 담당교사와 지역교육청 Wee센터의 사회복지사를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유기적인 협조하에 집단상담을 실시함
- ③ **셋.** 학부모 자원봉사단 조직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개강식 위촉 및 무지개 결연식, 문화체험활동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함

다문화가정 학생맞춤형교육

- ① 또래친구 및 1:1 교사, 무지개 결연 및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 상담 및 한국어반 운영
- ②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생활과 문화이해,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교사 학생 한가정과 결연을 하여 학교생활 돕기, 문화체험 같이하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 전개
- ③ 언어활용이 자유롭지 않은 학생으로 발음 교정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적인 언어치료 및 상담이 병행되어야 하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주제별, 계절별, 상황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제공되었고 친구들이 한국어반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많아 교우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함
- ④ 다양한 문화체험 및 진로체험 실시
- ⑤ 다양한 문화체험 및 진로체험으로 급변하는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본인의 진로를 결정할 단서를 찾게 됨

다문화가정 학부모역량강화

엄마랑 함께하는 한국어반을 20차시 이상 실시하여 한국어 해득을 위해 노력했으며 매 주 화요일 오전 방과후 교실에서 어머니들을 위한 쉼트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어머니들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자녀교육 및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함.

운영성과 및 제언

- ①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강화되어 학습과 문화적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학부모님들도 학생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늘었다.
- ② 한국어반에 참석했던 학부모님은 한국어반 수업을 통해 평소 이야기를 자주 나누지 못했던 자녀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했으며 교사에 대한 신뢰감 형성을 통해 이후에도 교사에게 자녀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묻고 어려움도 털어놓아 자연스러운 상담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③ 일반가정 학생들도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조금씩 이해하고 적극적인 교우 관계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서로가 스스럼없이 잘 어울리고, 다문화가정학생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참가 경험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데 적극성을 가지게 되었다.

다름을 넘어 소통으로 하나되는 다문화교육

대월초등학교 교사 전병화

효율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교육 인식 및 이해 교육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추진목적

☞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의 실천
☞ 다문화교육 중심(거점)학교, 중점학교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다문화 교육

추진계획

- 일 시 : 2014년 6월 2일~6월 18일 09:40-11:20 매주 월, 수 (60차시)
 - 장 소 : 대월초등학교
 - 대 상 : 대월초등학교 전교생
 - 내 용 : - 나라별 다문화 인식개선 및 세계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교육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강사가 자국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할 품성과 태도를 익히게 함
- ☞ 다문화교육 중심(거점)학교 운영

추진내용

순	영역	활동주제	시기	장소	대상
1	개강식	무지개반 개강식	4월	강화여중	학생 학부모
2	문화체험	다문화 요리활동	5월	미래교육지원센터	학생 학부모
3	다문화 이해 문화체험	어우름캠프	6월	학생수련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4	직업 이해 교육	바리스타 자격증반	5월 -10월	미래교육지원센터 제빵교육실	학부모
5	문화체험	워터파크 체험	7월	원마운트	학생 학부모 (다문화, 결연)
6	문화체험	사랑나눔 요리교실	9월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학생 학부모 (다문화, 결연)

☞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을 실천함으로써 다문화 이해 교육의 효율적 실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생생한 다문화 이해 교육의 실시
☞ 다문화 가정과 결연 가정 학부모가 함께하는 어우름캠프 및 바리스타 교육 활동,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

추진성과



강화두레 자유학기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진로교육

심도중학교 교사 윤지원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과정

☞ 강화두레 자유학기 연합 동아리활동-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연합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체험으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짐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제과·제빵반	제과·제빵 재료의 정확한 계량과 제과·제빵 재료의 특징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가족의 웰빙 간식으로 빵과 과자 만들기 실습을 함.
맛과 향이 가득한 요리반	단순히 요리를 만들고, 먹어보는 활동이 아닌 다양한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지식과 정보, 기술들을 사용하고, 제한된 공간과 도구를 이용하여 모둠원과 같이 실습을 진행하며, 타 인과의 관계, 갈등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강화함.
교육마술반	흥미와 재미로만 봐오던 마술이라는 내용에 숨겨진 과학적, 수학적 개념과 그를 통해 알 아볼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주는 교육 지도 방법 중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쉽게 이끌어 내어,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마술기법을 배움.
끼꾼들의 상상마당 창의미술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미술 수업을 통해 사소한 것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 있으며, 이런 활동을 통해 환경 보존, 나눔 과 배려의 중요성을 체험함.
바리스타반	커피의 종류, 커피를 내리는 방법 등을 배우고 창업 계획서 작성 및 홍보활동, 자신이 만 든 제품 판매 및 수익에 대한 사회 환원까지를 경험해 보도록 함.
인생을 연주하는 통기타반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기 위해 통기타 운지법을 알고 익혀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문화에 대한 경험을 체득함.
하나되는 악기연주반	다양한 악기를 체험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함.

☞ 나는 행복 메이커 - 인간의 행복은 자율적 선택, 문제해결역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두 가지를 얻는 길이 바로 공부에 있음을 알고 그 과정이 곧 행복임을 깨닫게 함

☞ 나의 '온리원' 자서전 만들기 - 자신이 80세가 되었을 때를 상상하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생활해야 하는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미래자서전으로,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자서전이 되어 진로 개발에 활용됨



바리스타반



자서전 만들기



마술수업



통기타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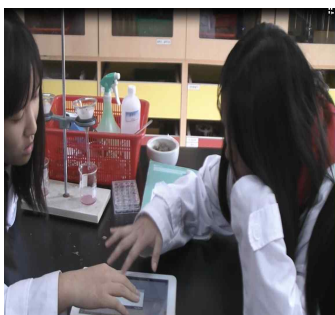
예술·문화체험활동을 함께하며 커가는 우리

- 소규모 학교인 강남, 동광, 심도중학교 학생들이 희망 조사에 의해 「뉴스포츠반」, 「STEAM 미술반」, 「농구야 놀자」, 「문화예술」, 「스포츠문화 체험반」, 「감수성 Up반」을 조직하여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권역 내 학교 연합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
-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소집단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수업을 진행함
- 경험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작품을 보다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는 습관과 훌륭한 감상 능력을 기르도록 함
- 창조적인 자기표현을 통해 정서적 긴장을 이완시켜 주며, 정신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의 균형이나 건강을 촉진시킴.
-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활동함으로써 3년 동안 동일한 학생들과 수업하여 단조로울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학생들과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

학생 참여형의 교실 수업 및 과정 중심의 평가

자율과정 운영 시수 확보를 위한 기본교과 시수 감축으로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 형태를 지양하고 학생 주도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수업참여를 유도하고, 교육과정 편성에서 교육내용 재구성을 통해 핵심 성취기준 기반 수업을 진행함

- 과학교과의 실험과 인터넷 기반 스마트 클래스를 활용한 협업 수업을 통해 실험실에서의 실험 내용을 스마트클래스에 맵핑하고 조별로 만든 자료를 공유하는 협업활동과 가정에서도 예습과 복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수업을 진행함
- 사회교과 개인별(수준별) 자기주도적 주제 발표 수업으로 탐구학습, 스토리텔링학습, 연대표 만들기 등의 교수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수업으로 학생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음
- 영어과 인터넷 기반 스마트클래스 활용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문제해결력 및 정보처리능력, 발표력 등 통합적 해결 능력을 신장시킴



실험과 스마트클래스를 활용한 과학수업



스마트클래스를 활용한 프로젝트 영어수업



역사 연대표 만들기



영어과 발표수업

동광중, 미래를 디자인 | design하다

동광중학교 교사 박지연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며 2011년부터 본격화된 진로교육이 4년이 지나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진로 관련 인프라가 거의 조성되지 않은 강화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았다. 방법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 밖에는 없었다. 다행히 교사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학부모들의 관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군청·교육청 등으로부터의 예산 지원이 있었기에 나름대로 틀을 갖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부터 2014학년도에 진행된 진로 관련 교육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진로 동아리 운영

- ☞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를 진로 중심으로 구성하여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한 것이 2014년의 새로운 시도였다.
- ☞ 동아리활동 뿐 아니라 진로체험이나 직업체험 등 진로활동을 동아리 단위로 운영하니 비슷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만족도도 훨씬 높았다.

수서청소년수련관 진로 체험

- ☞ 파티쉐, 리본 공예가, 생활체육지도자, 애니메이터, 과학자 등 5분야를 체험했다.
- ☞ 실제적인 진로체험 기회를 통하여 진로의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학교로 찾아오는 진로 체험

- ☞ 헤어 디자이너, 마인드 디자이너, 퍼스널 트레이너, 청년사업가, 요리사 등 5분야를 체험했다.
- ☞ 관련 직업 세계의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추후 진로 선택과 실현을 위한 기초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진로 캠프(Dream Start Camp)

- ☞ 진로 특강, 도전! 진로 골든벨, '진로 탐색'워크샵, 멘토링 토크쇼, '진로 실천'워크샵, '마음의 편지'쓰기, 비전 선포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 ☞ 자기 이해, '세계 이해'프로그램을 통해 자신, 타인, 세상과의 진정한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진로 캠프(Dream Start Camp)

- 특정 직업의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는 것 보다는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일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9곳의 기관에서 실시하였다.
-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율과 예의를 익히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며 일하는 보람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인식하고 진로탐색과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진로의 날 운영

- 나의 꿈 발표 대회,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직업인 특강 & 직업 체험, 진로 특강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과 자기 계발 계획을 할 수 있었다.

글로벌 진로체험

-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프로그램'운영으로 다양한 활동 중심, 체험 중심의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이스탄불문화원, 외교사료관, KBS, 국회의사당, 유니세프, 동아일보사, 태릉선수촌 등을 방문했다.
- 다양한 활동 중심, 체험 중심의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이해를 돕고,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여 꿈을 키우며, 진로 선택의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여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할 수 있었다.

축구를 JOB아라

-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 최저학력제 운영에 따른 학생 학습 누적 관리
 - 훈련 후 자기주도학습 시간 부여 및 관리
 - 주제어를 통한 작문활동 주3-4회 운영(훈련일지에 작성)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수 관리
 - 훈련참여도 및 훈련시간 누적 기록
 - 훈련 전 ppt를 활용한 훈련에 대한 목적과 방향 설명
 - 체지방측정기를 통한 주 2-3회 신체 변화 관리
- 축구기량 향상 및 축구인 양성
 - 대한축구협회 골든에이지(청소년국가대표 선발전) 인천시대표 선발 2명
 - 국제 축구전문가가 꿈인 학생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 및 학습능력 향상
 - 훈련일지 작성 시 '서로에게 칭찬하기'를 통한 인성교육 실천



2014학년도 교육 계획을 위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여 다양한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실현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올해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해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하나 되어 우리 동광중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하는 '꿈 디자이너'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나의 미래! 진로 로드맵

삼성초등학교 교사 태영숙

☞ 목적

- ☞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한 기초적인 진로 인식 형성
- ☞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 ☞ 가족과 연계한 진로교육으로 진로 설계 START UP!

☞ 운영방침

- ☞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 ☞ 가족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교육 운영
- ☞ 다양한 진로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 세부추진계획

- ☞ 기간 : 2014 3월~ 2015 2월
- ☞ 내용 : 체험학습 및 캠프 운영을 통한 진로탐색
- ☞ 대상 : 전교생

☞ 세부운영계획

시기	프로그램	세부 내용	대상
5	진로의 날	■ 부모님 직업 탐방	전교생
6	커리어코치	■ 진로상담사와의 만남	6학년
6	가족과 함께하는 진로캠프	■ 진로멘토와의 만남 ■ 부모 진로상담코너 운영 ■ 다양한 직업체험 부스 운영	전교생 및 가족
6~7	진로체험학습	■ 잡월드 체험학습 1~4학년 : 어린이 체험관, 직업세계관 5~6학년 : 청소년 체험관, 진로설계관	전교생
8	방학진로캠프 오색도화지	■ 용인대학교 교육기부 동아리 오색도화지 프로그램 운영 ■ 검도, 뮤지컬, 연극, 미술, 국악 5개 영역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교생 용인대학교 대학생
10	강화 진로페스티벌	■ 강화 진로페스티벌 참여 (바리스타, 시계제작 등)	전교생

☞ 성과

- ☞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진로 인식 형성
- ☞ 다양한 진로체험 및 캠프 활동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
- ☞ 자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부모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개인적 자기 계발 및 진로활동에 도움을 주어 능력 신장에 이바지



가족과 함께하는 진로캠프
(2014년 6월 21일 (토) 09:00~11:30) 삼성초등학교



방학진로캠프 오색도화지 교육활동
용인대학교 교육기부 동아리 오색도화지



자랑스러운 강화의 문화재에 빠지다

대월초등학교 교사 김미선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재를 해설하고 교내에서 자체 제작한 인증서를 취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재를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온전히 이해하며 아끼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대월 문화재 해설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기 초 강화도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선정하여 4~6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학급별, 전교단 위 학생들 앞에서 본인이 선정하고 조사한 문화재에 대해 해설하는 활동으로 직접 자료를 모아 제작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문화재의 사진, 그림 자료, 관련된 일화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쉽고 의미 있는 해설사 활동이 될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문화재해설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대월 문화재해설사 명예의 전당'에 인증서를 게시하여 강화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알렸음에 뿌듯함을 더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역사의 고장, 강화도의 문화재를 자세히 조사하여 다른 사람 앞에서 해설하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정보 전달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은 문화재에 대한 공부를 하며 "우리 고장에 있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문화재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아끼고 보호하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2015학년도에는 본 사업을 지속하고 발전시켜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넓혀 주고 전통문화에 한걸음씩 더 다가설 수 있는 문화재 관심 갖기 활동으로 좀 더 다양하게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음으로 하나 되는 줄 세상

불은초등학교 교사 이복형

목적

가.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비만을 예방함
나. 줄넘기에 흥미를 갖고, 바람직한 여가 생활을 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름

추진방법

참여 대상	▪ 2~6학년 학생 53명	활동 장소	▪ 다목적 강당(체육관)
운영 기간	▪ 2014년 4월 ~ 12월	지도 교사	▪ 체육 담당교사 ▪ 스포츠 강사
활동 시간	▪ 수요일 아침 시간		

활동내용

월	활동 내용	월	활동 내용
3월	▪ 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수립 ▪ 부서 조직 및 활동 안내	8월	▪ 단체줄넘기(8자 마라톤) ▪ 단체줄넘기(긴 줄 함께 뛰기)
4월	▪ 모듬발 앞으로 넘기 ▪ 2인 맞서서 뛰기	9월	▪ 개인줄넘기, 단체줄넘기 ▪ 스포츠클럽 줄넘기대회 참가
5월	▪ 뽕걸음 앞으로 넘기 ▪ 되돌리기	10월	▪ 음악줄넘기 기본 동작 ▪ 음악줄넘기 안무 창작
6월	▪ 2인 번갈아 뛰기, 십자 뛰기 ▪ 팔 엇걸었다 풀며 앞으로 뛰기	11월	▪ 음악줄넘기 연습 ▪ 학예회 음악줄넘기 공연
7월	▪ 팔 엇걸었다 풀며 뒤로 뛰기 ▪ 스피드 2중 뛰기	12월	▪ 단체줄넘기(8자 마라톤) ▪ 단체줄넘기(긴 줄 함께 뛰기)

활동결과

제11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배 및 2014 학교스포츠클럽 줄넘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맞서서 뛰기 : 중학년부 1위, 고학년부 2위 ▪ 2인 번갈아 뛰기 : 중학년부 1위, 고학년부 1위 ▪ 스피드 2중 뛰기 : 1위 ▪ 긴 줄 8자 마라톤 : 1위 ▪ 긴 줄 뛰어들어 함께 뛰기 : 3위
---	--

효과

가. 줄넘기 운동을 생활화하여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에 기여함
나. 2인 줄넘기, 단체 줄넘기 등을 통해 협동심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함양됨



EBSe와 함께 하는 신나는 영어세상

길상초등학교 교사 이정숙

운영목적

지역간·계층간 영어 교육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수업중, 수업후, 방과후에 제공하여 학생들의 기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극대화

하나. EBSe 콘텐츠 활용 프로그램 운영

- 📎 정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EBS-e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 전개
- 📎 정규 교육과정에 EBS-e 부가 콘텐츠 활용
- 📎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에 EBS-e 프로그램 및 교재 활용

두울. 강화 영어체험센터를 활용한 EBSe 프로그램 활용 일반화

- 📎 강화 영어체험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EBS-e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 수업 전개
- 📎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전담교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 극대화

세엣. EBSe 활용 다양한 활동 전개

- 📎 EBS-e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학중 영어캠프 실시
- 📎 EBS-e 자기 주도 영어, 교과서 내 영어 단어를 활용한 영어 스펠링대회 실시
- 📎 학년별 기본 어휘를 추출하여 영어 골든벨 대회 실시



운영결과

- 📎 영어 노출 기회의 극대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생활 영어와 교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심어줄 수 있었다.
- 📎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능동적인 학습 태도가 신장되었다.
- 📎 영어 교육의 지식화, 체계화를 형성하여 영어 교육의 질적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 📎 학부모 홍보 활동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섬마을 세 학교의 무한도전 영어도전기

삼산 승영중학교 교사 김대민

목적

- ☞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 영어 노출 기회를 확대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교육 격차를 줄여 영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 ☞ 영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교 영어교육만으로도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 영어교육 실현

운영현황

- ☞ 사 업 명 : 삼산승영중학교 거점 섬지역 외국어교실 운영
- ☞ 운영시기 : 2014. 3. ~ 2014. 현재
- ☞ 운영대상 : 초등 & 중학교 재학생 - 초등 2개교(삼산초, 해명초), 중 1개교(삼산승영중)
- ☞ 운영강좌 : 영어 및 영어회화
- ☞ 운영장소 : 삼산승영중학교 거점(벨트형) 학교 선정
- ☞ 위탁운영 : (사)참교육평생교육원(강화군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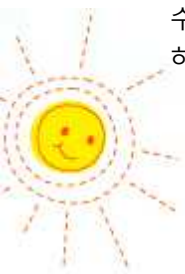
운영내용

**초등 1~2학년,
3~4학년,
5~6학년
영어회화 수업**

- ☞ 초등 6개 학년을 3개 군으로 나누어 1단계(1~2학년)는 알파벳과 Phonics, 짧은 영어 대화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2단계(3~4학년)는 생활 필수 단어와 쉬운 생활영어, 3단계(5~6학년)는 쉬운 읽기 수업과 기본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 ☞ 학습자의 흥미와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skit과 쉬운 영어 노래를 선정하여 영어의 리듬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영어실용능력을 기르기 위해 PELT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여 2급과 3급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앞으로 학생들이 치르게 될 다양한 영어 시험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 ☞ 필리핀 영어화상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였고, 화상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강화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준비하여 지도하였다.

**PELT시험 준비반
필리핀
영어화상수업
지원**



중등 1,2,3학년별 영어 수업 및 영어심화수업 실시

- ☞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영어의 4 skills의 균형적인 학습을 목적으로 하였고, 미국교과서로 영어 배우기, 겨울왕국(Frozen) 영어듣기, 재미있는 읽기 자료를 통한 Reading 수업, 문법 등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 ☞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어심화반을 운영하였고,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의 어려움을 찾고, 이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지도하였다.



활동성과

학습자 영어실력 향상 및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 증대

- ☞ 영어회화 실력이 출중한 섬지역 외국어교실 영어 강사활용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대 되었고,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영어 실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 ☞ 듣기, 읽기 중심의 수업에서 말하기, 쓰기 중심의 수업 진행을 통해 영어에 소극적이었던 학습자들이 영어표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의사소통 능력을 유도할 수 있었다.

영어학습 성취도 신장

- ☞ 섬지역외국어 교실 운영결과 2014년 국가공인영어시험(TOEIC Bridge)시험에서 평균점수가 5점 가량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5월 21일 실시					2014년 11월 28일 실시				
구분	응시인원	최고점수	최저점수	평균점수	구분	응시인원	최고점수	최저점수	평균점수
총계	57	127	44	76.0	총계	57	157	44	81.6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도 향상

- ☞ 학습자의 특성과 실력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섬지역 외국어 강사를 활용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여 학습자 및 학부모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공교육을 강화시켰고 교육격차를 해소 시켰으며,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혜가 쑥쑥! 행복이 솔솔! 책 읽는 학교

강화중학교 교사 김혜연

책을 가까이, 책을 즐겁게 읽는 환경

- 언제나 손을 뻗으면 책이 잡히는 환경,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본관 1층에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독서를 통한 진로탐색활동을 학교특색사업으로 정하면서, 보다 다양한 진로&직업 에세이 및 안내서를 구비하려고 노력하였다.(진로탐색 서가 마련), 또한 하루 15분 꿈찾기 독서운동을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모든 활동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꿈과 연계해보는 시도를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 또한 무엇보다도 각 학급에서의 독서지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윤독이 아닌 다양성을 추구한 학급문고를 구비하여 학생들이 책을 읽은 경험 또는 자신의 삶 속의 경험을 바탕으로 1분 독서스피치를 꾸준히 하도록 각 담임선생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올해 독서교육우수학교로 선정될 수 있었다. 특히 2학년 3,5,6반에서는 매일 3~5명의 학생들이 1분 독서스피치를 하면서 아침 독서표현의 시간이 정착되어 타 학급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해당 담임교사 : 정현주, 심영옥, 서미경선생님)

독서흥미를 유발하는 즐거운 도서관 행사

- 독서행사는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서 독자로 하여금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위해 다양한 문화강좌와 독서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사제동행 독서캠페인>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반딧불 독서>가 단연 돋보였다. 또한 교내 독서의 날 행사에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퓨전 백일장>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 감상을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였다.
- 또한 외부 지원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선일보사, 한국독서문화진흥원, 사계절출판사, 인천북구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약 5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고, 강화지역에서도 심도중학교, 강화고등학교, 강화여고 등과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독서교육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한 독서교육 실천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독서토론 중심학교 운영

- 2013년에 강화지역 중학교에서는 유일한 '독서토론 중심학교'로 선정되면서 각 지역 교사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전국 토론타운을 준비하며 학교 간 독서협의를 수시로 가졌으며, 토론타운에 대한 실제적인 연수가 필요한 담당교사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독서토론타운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독서토론 동아리, 독서토론방과후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책 한권 또는 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 탐색 및 자기주장발표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즐거운 도서관 협력수업

- 올해 처음으로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협력수업'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교로 선정되면서 교과별로 신청을 받아 수행평가 중심의 도서관 협력수업을 실시하였다. 주로 수학과에서는 수학자에 대한 자료를 참고한 후 수학신문 만들기를 하였고, 음악과에서는 희망하는 시를 한편 선정한 후 지정곡의 후렴부를 시어로 개작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진로와 직업과에서는 진로탐색도서 및 각종 위인전을 참고하여 직업정보사전 만들기를 하였다. 또한 2학기 자유학기제가 시작됨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와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건축반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독서관련 동아리 운영

- 다양한 이용자 집단과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과는 북토피아 독서동아리, 글틴 서평단,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진로독서동아리 등을 운영하였고, 교사와는 강화지역 교사독서연구모임(강화고와 강화중 연합), 교내 교사독서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서를 통한 자녀교육 및 자기이해를 위해 교내 학부모와도 정기적인 독서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운영사례 공유 및 독서관련 언론보도

- 평소 독서교육 실천사례들을 개인블로그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카페에도 공유하며 전국의 여러 교사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학교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것 같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반딧불 독서>다. '더 빨강'이란 청소년 성장소설로 우리 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어우러지는 행사이기도 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장이 마련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언론에도 보도되며 그 효과가 널리 알려진 사례로는 2013년 1회(반딧불 독서), 2014년 7회(아침독서, 독서스피치, 독서봉사, 동아리활동 등)가 있다.

독서교육을 통한 학교의 변화

- 이제 우리학교에는 아침에 독서시간을 확보하려는 교사들이 많아졌고, 1분 독서스피치를 꾸준히 실천하여 자연스럽게 독서감상을 발표하는 모습이 일상화된 교실 풍경이 만들어졌다. 또한 한 권의 책이라도 깊이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책이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들이 하나 둘 씩 도서관에 발을 들이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할 '생활 속의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꿈타래로 함께하는 창의인성 능력신장

명신초등학교 교사 하윤천

'꿈타래' 활동의 필요성

우리의 학교의 '꿈타래'활동은 꿈을 엮어 키워가자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친구와 어울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함께 놀기'로 시작되었으나 올해 중심학교를 운영하면서 '나눔', '배려', '자치'의 인성 덕목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꿈타래' 활동의 운영

'꿈타래' 활동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학년 모둠활동으로 운영하였다.

지덕체의 온전한 발전과 창의인성 능력의 함양을 위해 나눔활동, 배려활동, 체육활동을 큰 주제로 삼아 활동을 계획하였다. 처음에는 교사 주도로 정기 모임을 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활동 계획단계부터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고, 활동할 때 일명 '못하는 학생들'을 싫어했던 학생들이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배우고 나누는 활동을 경험하면서 점차 나눔, 배려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였다.

나눔활동

교실 수업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학생 스스로 체득하고 학생 스스로가 또래 교사 및 상담사가 되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하여 창의 인성 능력을 고취 시키도록 함



<전통장 만들기>



<망월벌판 탐사>



<농사체험>

배려활동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협력의 중요성을 알고 '나', '너', '우리'의 마음을 키우고, 학생 간 다양한 사고를 공유함으로써 창의 인성을 실천하고자 함



<꿈타래 야영활동>



<자연물 체험활동>



<자연과 친구되기>

‘꿈타래’ 활동을 통한 아이들의 변화

‘재랑 놀기 싫어요!’, ‘오빠들이 놀러요!’

이 소리는 아마도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푸념이다. 우리학교 역시 처음엔 이런 말들이 많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는 중재자로서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꿈타래’ 활동의 횟수가 거듭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첫째, 고학년들의 리더십이 향상되었다. 마냥 어린아이만 같았던 5, 6학년의 고학년 학생들이 꿈타래 모듬의 목표를 위해 어린 동생들을 다독이고, 가르쳐주고, 돌보는 모습을 통해 많은 아이들의 많은 성장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행복한 학교, 오고 싶은 학교 구현. 간혹 있었던 학년 간 친구들의 반목, 다툼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체득하여 따돌림, 심한 장난 등 남을 괴롭히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셋째, 자기주도적이며 배려심 강한 아이들이 되었다.

맨 처음에는 이기적인 모습, 개인적인 모습에 협동도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던 아이들이 교사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못하는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꿈타래’ 활동의 발전 방향

올해 ‘꿈타래’ 활동은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교사에게 도움이 되었다. 찡그린 얼굴이 밝은 얼굴로, 괴롭히던 오빠가 친절한 오빠로... 이러한 변화를 이제 아이들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다. 중심학교를 마치면서 올해 얻은 긍정적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바를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장기적 계획 수립 및 추진

- 학생 구성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1회성 행사보다는 연계행사 계획 수립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함.

📌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 활동 방향 결정에 있어서 학생 자치 활동에 의한 의사결정 활성화
- 자율 규범 약속, 활동 내용에 대한 상점 벌점 제도 활용

📌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연계

-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
- 학부모 등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활성화

체육활동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몸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으로 자연과 더불어 체력능력 향상과 함께, 단체경기를 통한 협동의 마음, 규칙을 지키는 마음 등을 키워 창의인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꿈타래 체육활동>



<나들길 걷기>



<고려산 종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HYO실천

Harmony of Young and Old

화도초등학교 교사 조명진

본교는 2013년 효체험 중심학교로 지정되어 현재 2년째 효체험 중심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효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HYO」실천 운영 - Harmony of Young and Old이라는 주제로 학생과 부모세대와의 조화를 통한 효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 교육을 통하여 효의식을 내면화하며, 효 체험 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효 실천이 생활화되도록 하였다. 2014년 2월에는 강화군자원봉사센터와 자매결연 및 협약식을 맺어 학생들에게 현대적인 트렌드에 알맞은 효행교육과 실질적인 지원,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효행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장선생님(박성태)의 전폭적인 지지와 교감 선생님(김성환-성산효대학원 효학박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활발한 효교육을 진행하였다.

먼저 효교육 운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가정에서 효를 실천한 사진을 탑재하고 효누리 행복누리와 연계한 효실천 자료를 활용 및 탑재하였으며 효실천 의식 확산을 위한 효 게시판 설치, 계단 효 문구 등 교내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또 효심이 자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효체험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학년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효체험 중심학교로서 효교육 확산을 위해 매달 효행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효행일기 쓰기, 효 신문 만들기, 효 위인학습 및 효 독서퀴즈대회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효행 실천 태도와 습관형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효교육을 실시하였고 서로가 배려하는 효실천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 학생들의 효행 동기를 자극해서 효심 . 효행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효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깨닫고 감사하며 섬기는 '효'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부모님을 생각하며 쿠키도 만들고 미니피자를 만들어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쓰기 시간도 가졌다.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을 실천하자는 의미로 매년 두 차례 노인정을 방문해 효행 한마당 행사를 펼쳐 도라지타령과, 사랑으로를 현악부 학생들이 연주하고 또 우쿨렐레 실력을 키워온 학부모와 학생들이 합주해 어른신께 멋진 곡을 선물하기도 했다. 공연 후에는 준비해간 다과와 선물을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며 이야기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고 학교에서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가정에서는 효를 실천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며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학생들로 자라나기를 기대해 본다.



불은누리에서 미래를 품는 꿈동이들

불은초등학교 교사 김은주

기 본 방 향

- 수요자 요구 및 학교여건과 실정에 맞게 운영의 다양성·융통성 제고
- 안전시설, 안전관리, 유해환경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운영

운 영 일 정

- 지역의 실정 및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
- 학교의 여건 및 실정에 따라 정규수업 후 부터 19시까지 실질적인 돌봄 및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
- 참여 학부모의 의견에 의거 운영 유·무 자체 결정

프로그램구성

- 학교 실정과 수요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선택형 프로그램 구성
- 연간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주간 교육 계획안을 작성 지도
-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양질의 집단활동 프로그램 제공
- 교내 다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운영

운 영 성 과

- 요일별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와 함께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증진하게 되었다.
- 교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증가 및 사교육비 절감이란 효과를 가져왔으며,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 방과후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이란 두 가지 기능을 충족시키게 되었다.
- 오후시간 부모의 부재로 인해 혼자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던 아동이 보육 교실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적·신체적 안정을 갖게 되었고,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

1학년 미술활동



3, 4학년 과학실험



1, 2학년 사고력키우기



1,2학년 심리미술



개별과제 및 독서지도



1학년 과학실험



따뜻한 학교품, 행복한 저녁돌봄

지석초등학교 교사 조미정

운영목적

-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
- ☞ 가정과 같은 보살핌으로 돌봄 교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편안함 제공
- ☞ 저녁 돌봄 시간을 활용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운영방침

- ☞ 가정 형편상 저녁까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참여한다.
- ☞ 안전하고 편리한 교실 구성과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여 돌봄전용실에서 운영한다.
- ☞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 ☞ 긴 저녁돌봄 시간을 활용하여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한다.

운영성과

- ☞ 농촌 지역의 특성상 농번기에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부모가 많아서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저녁돌봄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
- ☞ 부족한 방과후교육 시간을 저녁돌봄에서 보충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할 수 있음

영 어 교육



미 술 교육



염 색 체험



천 체 관 측



안 전 한 급 식



위 생 적 주 방



꿈이 열리는 난정 초등 돌봄교실

난정초등학교 교사 이정원



난정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프로그램 선정과정은 수요자들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방과후 돌봄교실 소 운영회를 거쳐 강사를 모집하며 강사가 확보된 후엔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2014년도에는 3월 첫주부터 12월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돌봄 프로그램으로 11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저녁돌봄프로그램으로 요일별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4개의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전교생이 25명인 도서벽지 지역 학생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놓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운영 내용

운영방법

정규 교과시간을 마치면 초등돌봄교실로 와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지도로 과제 및 책읽기를 하며 오후 초등돌봄 프로그램에 저(1~2학년), 중(3~4학년), 고(5학년이상)의 수준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프로그램구성 및 교육내용

- 가. 1학년부터 6학년 개별 인터뷰를 통한 수준별 맞춤식 분반 구성
- 나. 매주 문화적 혜택 수급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교육적 한계를 타파
- 다. 2014년 12월 현재 사교육 비율 0%
- 라. 음악, 미술, 체육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선행학습의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함



운영 성과

- 가. 전교생이 저마다의 재능과 특기를 신장하여 12월 재능발표회에서 발표함으로써 꿈과 끼를 발견하고 진로교육에 큰 효과를 보았다.
- 나.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의 혜택으로 보여지는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공교육의 위상이 정립되고 학교의 위상이 높아졌다.
- 다.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 강사를 통해 도서지역의 교육적 한계를 타파하고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과목별 특색 찾아가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강화중학교 교사 최명신

교과교실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교실수업개선 강화 (강화교육 지원청 내 유일한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교)
- 자유학기제 희망 운영교로 꿈과 끼를 키우는 체험 중심 교육과정 구현 및 인성교육 강화로 학교폭력 예방 및 즐거운 학교 만들기 구현

교과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사회	도덕	기술가정	컴퓨터	음악	미술	공용
교과교실 수	4	4	4	4	2	1	1	1	3	1	5
특별실	홈베이스 및 미디어 스페이스 (8칸 구축)										

- 영어·수학·국어 교과 수준별수업 강화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공교육 중심 교육과정 구현
-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꿈과 끼를 발견하는 진로, 동아리, 자율, 봉사활동 강화
- 블록타임 수업 운영: 프로젝트 수업 과제 실행을 위한 블록타임 운영
 - 학생 중심의 탐구활동 활성화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추구
 - 대 프로젝트 주제를 위한 교과별, 단원별로 융합하여 같은 주간 내 운영
- 시수증가과목
 - 수학(+34), 영어(+34) : 농어촌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수학·영어교과의 지속적인 공교육을 통한 학력신장을 위하여 시수를 증가함.
 - 창체+스포츠(+137) : 2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최근 꿈과 끼를 키우는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수를 증가함
- 수요자 맞춤형 수준별 수업운영
 - 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수준 : 으뜸반(심화), 버금1반(기본), 버금2반(기초)
 - 전과목 교과교실제 운영
 - 시설 : 잉글리쉬존, 수학존, 사이언스존, 국어존, 사회도덕존 운영
 - 선택교과 : 중국어와 진로와 직업 과목에 집중 시수배정을 통해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국제화 시대와 미래 핵심역량의 필수요소인 중국어와 진로교육을 통해 학습결손 없이 시수를 감소함

과목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사회
수준	2+1 (3수준)	2+1 (3수준)	2+1 (3수준)	1 교실 내 수준별 수업	1



수업방식의 변화를 통한 교과 특색 업그레이드

☞ 융합수업 실시

교과	교사	활동내용	결과 및 시사점
수학+과학+음악	오지영	파동을 이용한 예술과 기술	다양한 학습결과물을 산출하여 학습과정을 전시함
수학+음악	오경희	수학과 음악(음악속에 숨겨진 수학의 원리 학습하여 수학의 실생활과의 관련성 인식)	
수학+사회	최명신	통계를 이용한 저출산 문제 해결	
미술+역사	서미경, 정영숙	삼국의 고분문화와 예술 (블록타임 운영)	
독서+수학	오경희, 최명신	자료검색 및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모둠별 독서신문 만들기	
독서+음악	윤소영	시를 활용하여 <말하는 대로>선율에 어울리는 후렴구 작사하기	
상담+도덕	심영옥	도덕적 삶과 자존감 향상	

☞ 프로젝트수업 실시

교과	교사	수업방법	활동내용	결과 및 시사점
영어	고연숙 봉은선	프로젝트 수업	미래 자선전쓰기, English 골든벨, 환경포스터그리기, 가고싶은 나라 소개하는 책자 만들기, 연극대본 쓰고 연극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학습결과물을 산출 후 학습과정을 전시함 • 영어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신장(영어 말하기대회 실시 6명 시상)
과학	오지영	융합프로젝트수업	파동을 활용한 예술과 기술	

☞ 거꾸로수업 실시(동영상으로 선개념학습 + 본수업 다양한 활동수업)

교과	교사	활동내용	결과 및 시사점
국어	최인범 강혜원	개작활동, 제목 바꿔보기, 가장 중요한 주제 선택하기	다양한 학습결과물을 산출하여 학습과정을 전시함
수학	최명신	개념 토의활동 및 심화 문제 풀이를 통한 개념 고착화	
과학	황해숙 오지영	사물의 법칙, 과학송 만들기, 광합성 조별 발표수업, , 상태변화 실험, 줄함기의 구조 실험, 세포 관찰 실험, 공변세포 관찰 실험, 조암광물 실험, 힘의 합력 실험	

☞ 융합 수업 주간 운영

- 전학년, 전과목 블록타임 실시를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 융합인재교육(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을 위해 교과 협의회, 교과 간 협의회 실시 후 운영

	시기	내용	비고
교과협의회	수시	· 단원별 핵심 요소 추출 · 수업 아이디어 교환	교과교실제로 수시 협의회 가능
교과 간 협의회	2회/월	· 융합단원 추출 · 수업계획 작성	과학(S), 기술(T), 공학(E), 예술(A), 수학(M) 요소 중심
융합 주간 운영	수시	· 주제별 단원 재구성	1~2주 이내 진행
팀티칭 수업	수시	· 주제중심으로 2인 이상 교사로 수업 운영	융합수업 내 구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 ☞ 효율적인 교과교실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별 교과교실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 ☞ 주기적인 교과별 협의와 연수를 통해 수업방법의 혁신을 위한 솔루션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 ☞ 교과교실제 운영 중에도 학생의 소속감과 사회성 형성을 위해 담임교사의 학급운영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공간의 구성 및 조치가 필요하다.
- ☞ 학생들의 이동으로 인한 분실물의 발생과 교육기자재 관리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교과교실별 수납장의 구비는 필수적이다.



꿈 · 끼가 있어 살맛나는 예능스쿨

삼산초등학교 교사 임병주

여건 및 필요성

지역 특성상 예능관련 사설기관시설이 전무하여 학교 외에서는 본인의 예능 소질을 계발할 기회가 없어 방과 후학교에서 다양한 예술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감수성과 예능적 자질 향상으로 꿈과 끼를 키움

추진 방침

- 전교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예능 활동으로 감성과 체력을 키움
- 꾸준히 닦은 끼와 소질 발표회로 표현력과 자존감 향상
- 학부모, 학생, 교사 모니터링으로 교육공동체 의식 함양

다양한 예능 강좌 개설

- 음악분야 :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피아노, 클래식기타
- 미술분야 : 미술부, 종이접기부
- 체육분야 : 벨리댄스, 놀이체육, 배드민턴

운영 방법

- 학년별, 수준별 맞춤형 지도
- 1인 1악기 이상 전교생 참여
- 토요일 및 돌봄교실 활동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 월 2회 예능조회, 전교예능 발표회 1회



우수 사례

- 전교생 1인 1악기 연주 및 합주를 아침 조회 시간에 발표하여 자신만의 끼 발표 기회를 제공함
- 방과후 수업 시 고학년과 저학년 학생들 간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지며 선후배간, 동료간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함

높이 나는 강남인

강남중학교 교사 김종한



예부터 따뜻한 온천수가 나오는 곳으로서 '온수리'로 이름 붙여진 강화 남쪽, 전등사가 위치한 유서 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본교 강남중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였습니다.

첫째는, 도심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화적 소외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요 방과후학교와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의 연계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문화 활동을 장려하였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선후배 학생들이 결성한 밴드 동아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를 토요 방과후 강좌와 연계하였고, 강화 청소년 문화축제, 방과후 페스티벌 등에 참여하는 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는 1인 1악기 연주를 목표로 한 오케스트라 강좌를 운영하였고, 평소 접할 수 없는 호른, 바순, 오보에 등의 악기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동안의 꾸준한 강좌 운영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강남중학교 전교생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는 학교 축제와 강화관내 음악 발표회에서 유명 곡을 실연하는 귀한 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로 고려한 사항은, 학업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협동의 가치와 이해심을 기를 수 있는 방과후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며 학생들이 협응력을 기르고, 단체 활동을 통해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스포츠의 날을 지정하여 1인 1스포츠를 정해 연습하는 방과후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축구, 농구, 플로어볼(뉴스포츠)을 비롯한 단체 운동과 탁구, 배드민턴, 당구 등 팀 동료와의 협동이 중시되는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심신을 단련하는 한편, 교내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가치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학업과 관련한 사항이었습니다. 도심 지역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학생·학부모 모두가 인근 지역사회로부터의 교육 혜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교과교실제와 성취평가제와 연관한 과목별·수준별 교과 방과후 강좌와 기초 학력 도달을 위한 소규모 그룹 방과후 강좌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본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교육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S·T·A·R - 해명 과정중심 학생평가

해명초등학교 교사 강세구

2014 STAR-해명 과정중심 학생평가의 목적

- ① 학년(학급)별로 다양한 평가방법과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과정중심의 평가를 실시
- ② 핵심성취기준에 의한 교육목표의 도달 측정과 학생 개인의 맞춤형 지도체계 확립
- ③ 서술형 지필평가를 통한 교실수업 개선으로 교육정상화 실현 및 학교 교육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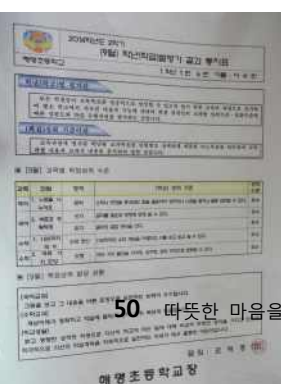
평가의 기본 방침

- ① 일제형 지필평가를 지양하고 수시로 학생활동 중심(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 ② 교과별 핵심성취기준을 평가문항 출제 및 채점기준, 목표도달의 준거로 활용한다.
- ③ 평가기준안을 구안·적용하여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한다.
- ④ 평가도구는 학년 수준에 맞는 서술형·논술형 문항의 100% 출제를 지향한다.
- ⑤ 1, 2학년은 국어, 수학, 3-6학년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에 필수 적용한다.
- ⑥ 평가 결과는 핵심성취기준을 준거로 하여 3단계(우수, 보통, 미흡) 척도를 사용한다.
- ⑦ 학부모의 학생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학년(학급)별 평가 결과를 가정에 통지한다.
- ⑧ 평가결과는 학습결손, 부진요인 파악과 보정 지도를 위한 맞춤형 자료로 활용한다.
- ⑨ '행복 학습장' 기록 실천으로 학생 스스로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제고한다.

유 형	목 표	시 기	대 상	비 고
학년 (학급)별 평가	수시	수업 중 수시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성취 기준의 도달 여부를 중심으로 문항출제, 평가 실시 · 교과별 서술형 평가 100%로 확대 · 학년(학급)별 계획 수립 실시(담임교사, 전담교사 재량 부여)

평가결과의 통지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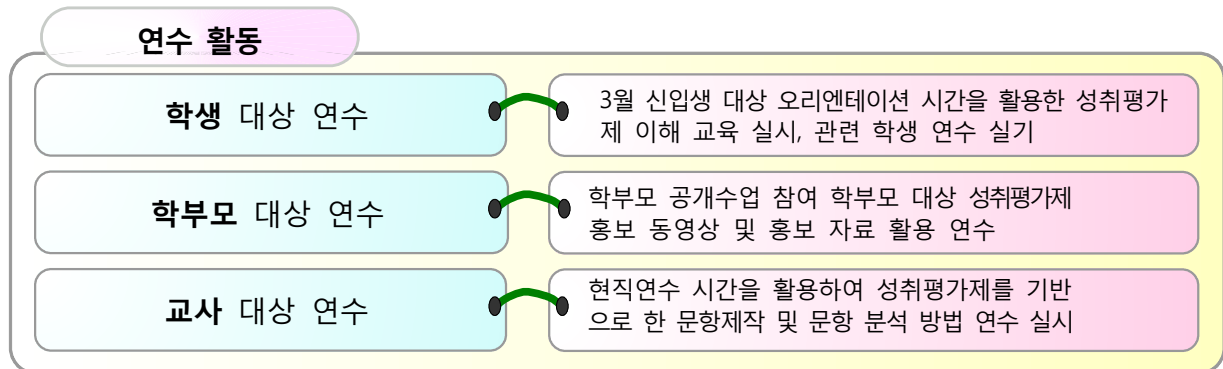
- ① 학년(학급)별 평가 결과의 통지
 - 통지 서식을 기본 활용하되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학년(학급)별 지필평가 결과를 매월 말에 가정에 통지한다.
 - 학년(학급)별 평가의 통지 횟수(2학기-4회)
- ② 학년(학급)별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지는 개인별로 포트폴리오자료로 학급에 비치·활용한다. (클리어파일)
 - 학생 개개인의 학력 성장 확인자료 및 학력 보정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 평가결과,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영역은 재지도하여 학력을 보완한다.
 - 학생의 성장 중심, 과정 중심, 자기주도 중심의 맞춤형 학습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
 - 평가 자료와 자기주도적 '행복 학습장'으로 학력향상의 동기를 강화한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 성취평가제

강남중학교 교사 이정선

성취평가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내 연수 실시



- ☞ 교과별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연간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 수립, 단원 재구성
- ☞ 매 학기 1회고사 실시 후 나이스에서 제공하는 도수분포표를 활용한 1회고사 예상
- ☞ 성취도 분포비율 점검 - 학생들의 성취기준 달성도 확인 및 교수-학습 방법 점검, 2회 고사 출제 시 문항 난이도 조절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 성취수준 D, E 학생을 중심으로 학력 증진 프로그램인 Step-up반을 운영하여 성취기준 미도달 학생에 대한 추수지도 실시

다양한 교실 수업 개선 활동을 통한 학습동기부여 및 자아탐색 활동

- ☞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교수-학습 방법의 다변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동기 촉진
- ☞ 학년별 필독도서를 바탕으로 2주 단위로 학급 내 윤독을 실시하여 글에 대한 배경 지식 및 독해력, 사고력을 신장시켜 지력과 학습력의 향상을 도모함
- ☞ 학급 학생들을 멘티-멘토로 조직하여 또래 간의 배움을 유도하고, 지도교사와 함께 다양한 학습법에 대해 공부하고, 개별 학력관리카드를 통한 목표 설정 및 비전을 세워보는 '라운하제를 꿈꾸는 아이들'운동을 통해 교사-학생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함
- ☞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자아를 탐색하는 기회로 활용











꿈을 키우고 사랑을 나눠요

조산초등학교 교사 이철우







사례 1

2014 즐겁고 신나는 독서 캠프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습영역 ● 사업내용 : '2014 즐겁고 신나는 독서캠프'를 통한 독서교육 활성화 ● 대 상 : 전교생 58명,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 지원내용 : 독서캠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필요 물품 지원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독후 작품 활동도서관에서 보물찾기, 빗그림자 놀이 ❖ 독서 퀴즈 골든벨 대회 ❖ 학부모 연수 ❖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 ❖ 학생 책놀이 연수
우수 사례	책을 좋아하고, 책을 사랑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모여 독서와 관련된 다양하고 재미 있는 활동을 통해 책과 더욱 가까워지며, 학교 독서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독서 문화 정착에 기여함.
교 육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매우 흥미롭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음 ● 독서와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평 가 및 제 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캠프를 통해 학생의 독서 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됨 ● 바람 숲 도서관과의 연계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책 놀이 연수 실시 ●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높아서 행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음 ● 학생들이 도서관과 책에 더욱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음 ● 2012년도부터 매년 1회 실시하여 사업 연계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함
활동모습	<div>  <p>학부모 도우미</p> </div> <div>  <p>개회식</p> </div> <div>  <p>도서관에서 보물찾기!</p> </div> <div>  <p>책놀이 특강</p> </div> <div>  <p>작가와의 만남</p> </div> <div>  <p>독서 퀴즈 대회</p> </div>

사례 2

2014 즐겁고 신나는 독서 캠프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복지영역 ● 사업내용 : 조산 다모임 지원 ● 대상학생 : 전교생 62명 ● 지원내용 : 생일축하 행사와 예능 발표회에 필요한 물품 지원
우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특기와 예능 발표력 향상을 위해 조산 다모임 사업을 실시함 ● 학생들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함 ● 1인 1악기 활동에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인성 교육에 큰 기여를 함
교육 만족도	<p>학생들은 평소 친구들과 할 수 없었던 생일축하 행사를 학교에서 해주고, 또 자신들의 다양한 장기와 예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함</p>
평가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구성원들과 생일축하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학생들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임 ● 조산 다모임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함 ● 예능 발표회를 준비할 때 소외되는 학생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함
활동사진	<div>    </div> <div>    </div>



Wee 클래스 - 우리 모두 조금만 힘을 내자

강화여자중학교 교사 문선숙

경은이(가명)의 특징은 항상 가느다란 빛으로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앞머리를 정리합니다. 경은이의 앞머리는 그 아이의 얼굴을 가려주는 보호막처럼 보였습니다. 학교에 늦게 오고 수업시간에 집중하기 힘들며 거친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 친구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경은이네 가정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부모님 모두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무거운 마음이 처음에는 이러한 현실의 걱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 아이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른들은 감당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아이들은 그러한 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경은이는 지적받는 것을 무척 싫어했고 어른들에 대한 불신, 학교 안보다는 학교밖에 더욱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우선 경은이의 심리적 안전기지를 위해 상담실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주고 쉬는 시간, 등하교시간에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학교 안에 자신의 공간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경은이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선생님들과의 관계맺기로 경은이가 가지고 있던 어른들에 대한 불신을 조금씩 회복했고 불평과 불만의 언어가 부탁과 소망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경은이는 개인상담뿐 아니라 상담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마음나누기 행사에 참여하면서 친한 친구를 만들고 1학년 후배를 챙기면서 경은이를 따라다니던 어두운 소문들을 스스로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이 평범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수용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실 친구들과 상담실 내 조리공간을 이용하여 각자 준비할 수 있는 재료 (채소, 달걀 등)를 가지고 비빔밥, 떡볶이 등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고, 먹고, 정리하면서 소속감 및 친밀감을 형성하고 학교에서 1박 2일 토래 캠프활동을 통해 힘들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으며 상담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서로를 위한 해결책을 세워 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다는 판단은 그러한 시기를 겪고 극복한 어른의 시각이고 심리정서적 기반이 약한 친구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상담자는 아이들의 작은 걱정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은이의 앞머리는 예쁜 두 눈이 다 보이기도 남을 만큼 짧아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어려움은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고 친구들과 함께 극복하며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강화여중 상담실의 문은 자동입니다. 마치 힘들고 아픈 마음이 스치기만 해도 저절로 문이 열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서도 하모니밴드부

서도중고등학교 교사 고진실

☐ 운영 목적

- ☞ 도서 벽지 지역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음악, 문화, 예술에 대한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과 배움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화합의 장을 이루고자 한다.
-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음악밴드 프로그램에 동참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인성과 특기계발을 도모하고자 한다.
- ☞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1인 1악기를 배우고 음악밴드를 창단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운영 여건

- ☞ 강화 외포리에서 배로 1시간 30분 거리인 도서벽지학교로서 사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고, 문화적 환경이 거의 없는 소외된 지역임
- ☞ 학생들은 학습 의욕이 높고,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으며 실제 대학입시나 학업성취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 학생들은 물론 주민 대부분이 학교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술활동에 의해 문화체험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기대 효과

- ☞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음악체험과 습득으로 건전한 문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음악적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한 삶의 질 증대와 건전한 예술 문화 풍토 정착
- ☞ 학교와 지역간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고 학교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문화 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자부심 조성



붕어빵 한 개에 사랑 한 움큼

덕신고등학교 교사 김세환

붕어빵에 담긴 사랑은?

- 야간자율학습 시간 학교생활에 지친 학생들에게 사랑의 붕어빵을 통해 힘을 줌
- 지역사회의 나눔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붕어빵 나눔
- 나눔의 쿠폰을 통해 칭찬 문화 형성과 사제간의 관계성 향상
-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즐거운 학교생활 누리기

덕신고 사랑의 붕어빵 나눔(매주 월요일 16:50~18:30)



지역사회에서의 붕어빵 나눔(비정기적 운영)



사랑의 봉어빵 자선냄비(2014.12.20~24, 매일 저녁 3시간)

- ☞ 덕신고 50여명의 학생들이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활동에 참여하고, 덕신고 사랑의 봉어빵을 무료로 시민들에게 나눠줌



나눔의 뺏지 제도 운영(매주 월요일 저녁)

- ☞ 모든 교사들이 쿠폰을 가지고 있다가 학생들에게 칭찬과 함께 쿠폰을 나눠주고, 쿠폰을 받은 학생들은 팝콘과 교환을 함
 - 주의사항
 - 1) 누구에게나 선물이 가능
 - 2) 유효기간이 절대 없음
 - 3) 친구와 함께 오면 두배



나눔의 뺏지 제도 운영(매주 월요일 저녁)

- ☞ 봉어빵 나눔을 통해 학교 안에서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 ☞ 교사가 봉어빵을 굽기도 하고, 후배나 선배가 굽기 때문에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된다.
- ☞ 팝콘 쿠폰 나눔을 통해 칭찬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 ☞ 친구와 함께 오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 ☞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교폭력예방을 할 수 있다.
- ☞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학업 중단률을 낮출 수 있다.
- ☞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다.

01



슬기롭게 생각하며 꿈을 키워 가는

강화초등학교 교육과정

■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의 생활화

- 독서 인증제
- 원어민과 함께 떠나는 동화나라 여행
- 엄마와 함께 떠나는 동화나라 여행

■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창의인성교육 강화

- 기본 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인성교육 실시
- 학교 홈페이지의 '칭찬합니다.'코너 운영
- 효행의 날 지정 운영(매월 8일)

■ 학력 신장으로 실력 UP! 자신감 UP!

- 교장, 교감, 담임 공동책임제
- 기초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 학습부진 Zero-학급 실현

02



큰 사람(大我)을 키우는

합일초등학교 교육과정

■ 큰 꿈을 찾아가는 진로교육

- 3~6학년 무학년제 진로교육 동아리 운영
- 1박 2일 진로교육 캠프 - 12개 부스의 운영을 통한 진로체험활동
- 큰 꿈을 키우는 합일왕제 · 진로 포트폴리오

■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 효체험 중심학교 운영
- 창의인성 중심학교 운영
- 식생활개선 시범학교 운영(인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지원)

■ 교육기부를 통한 인성 · 창의력 향상 교육

- 정몽구재단 '다빈치교실' 운영
- 한국과학창의재단 '함성소리' 대학생 교육기부단 활동
- 학부모 교육기부 - 탈무드 교실

03

꿈과 끼를 살리는

갑룡초등학교 교육과정



■ 꿈과 끼를 펼치며 반짝이는 창의력 기르기

- 스스로 탐구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 꿈과 끼를 마음껏!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갑룡 과학동아리 운영
- 무한능력 실현의 장! 갑룡 단위영재학급, 발명영재학급 운영

■ 마음 꽃밭 가꾸기를 통한 늘 푸른 품성 기르기

- 자연가꾸기 체험활동을 통한 고운 심성 기르기
- 책과 소통하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다양한 글마루 독서 활동
- 애플데이, 집단상담 및 봉사 활동을 통한 친구사랑, 이웃사랑 키우기

■ 다양한 체험 및 예체능 교육활동으로 꿈과 끼를 키우기

- 음악적 재능을 키우고 함께 하며 성장하는 오케스트라『소리샘』 운영
- 다양한 체험 활동 및 진로 생생 체험으로 꿈썩 키우기
-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스포츠클럽 및 육상, 태권도부 운영 등 체육교육 활성화

04

지·예·체가 조화로운 대단한 교육으로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월등한 아이들을 길러요

대월초등학교 교육과정



■ 지혜와 슬기가 넘쳐나요(智)

- 기초학력 인증제 - 받아쓰기, 국어·수학 단원 평가
- 실용영어 인증제 - 4학년: 자기소개, 5학년: 학교소개, 6학년: 강화지역소개
- 한자교육 - 자기주도적 학습 플래너 활용

■ 내 고장을 사랑하고 아껴요(藝)

- 대월 문화재 해설사 - 1~2학년: 강화 문화재 체험활동, 3~4학년: 강화 문화재 그림, 글 표현, 5~6학년: 강화 문화재 해설
- 1인 6악기 연주하기 - 1학년: 멜로디언, 2학년: 오카리나, 3학년: 리코더(소프라노), 4학년: 리코더(알토), 5학년: 단소, 6학년: 하모니카

■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길러요(體)

- 나들길 달리기 - 국화리 저수지(학년별 2회), 연미정길(학년별 2회)
- 아침 달리기 - 1~2학년: 2바퀴, 3~4학년: 3바퀴, 5~6학년: 4바퀴
- 태권도 - 1~2학년: 화, 금(아침시간), 3~4학년: 화(7,8시간), 5~6학년: 월(7,8교시)

05

행복선원

선원초등학교 교육과정



■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뇌교육 실시,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오는 Walking day 월 2회 운영, 학년별 건강증진 체험학습 운영, 전교생 대상 줄넘기 급수제 실시, 감정체크판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소통함, 자연과 하나되는 선원 텃밭 운영

■ 품성교육을 통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 '선원 어린이 행복 길잡이'와 '칭찬통장제' 활용으로 기본 예절 함양, 3多 (칭찬, 사랑, 대화) 3無(폭력, 체벌, 따돌림) 운동 전개, 교육기부자 활용의 다양한 진로 인성 체험활동 운영

■ 스마트교육을 통한 Together 창의과학교실 운영

- 쉽게 접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창의과학 교육환경 구축,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STEAM교육과정 기반의 협업중심 창의과학교실 프로그램(T.S 프로그램) 운영, 자기주도 실험교실 운영으로 문제 해결력 신장, T.S 페스티벌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 학습 실시

06

다양한 예술체험 으로 꿈을 키우는

불은초등학교 교육과정



■ 아름다움을 찾아서

- 갑비고차 두레교육과정 운영으로 광성보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 강화역사박물관에서 전통미술 체험 활동으로 족자 만들기 활동
- 지역의 각종 문화축제에 참여하여 학생 미술대회에서 다수 입상

■ 소리를 찾아서

- 광성보에서 삼성초등학교와 함께 작은 음악회 관람
- 하모니카 연주 교실을 운영하고 학년별 연주회 실시
- 불은축제한마당에서 해금연주, 바이올린 연주, 기악합주 발표

■ 건강한 몸을 찾아서

- 숲 해설사와 떠나는 마니산 등반 활동
- 강화 나들길 걷기로 심도역사 문화길 탐방
- 문화예술강사와 함께 무용을 배워 발표회 실시
- 배드민턴, 줄넘기 동아리 운영으로 스포츠클럽대회에서 다수 입상

07

나의 미래! 진로 로드맵

삼성초등학교 교육과정



■ 목적

-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한 기초적인 진로 인식 형성
-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 가족과 연계한 진로교육으로 진로 설계 START UP!

■ 운영방침

-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 가족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교육 운영
- 다양한 진로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 성과

-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진로 인식 형성
- 다양한 진로체험 및 캠프 활동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
- 자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부모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개인적 자기 계발 및 진로활동에 도움을 주어 능력신장에 이바지

08

1人4色 희망실천나누기

길상초등학교 교육과정



■ 꿈을 키워나가는 참된 공부

-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 적용
- 입학부터 졸업까지 책임지는 '책임지도제'운영
- 기초, 기본부터 시작하는 마음 공부 다지기 운영

■ 나의 꿈을 찾는 진로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인 연중 진로교육 운영
- 지역사회 교육기부를 통한 학생 진로 탐색
- 농산어촌에서 접하기 힘든 전문적인 다양한 직업인 초청 교육

■ 나눔과 배려, 인성교육

- 인성 7덕목을 적용한 내실있는 교과교육과정 운영
- 나눔과 배려, 소통을 생활화하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다양한 학생 단체활동을 통한 타인 배려 프로그램 운영

■ 멋을 찾는 문화예술교육

- 월별로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인성 체험활동 운영
- 동아리활동 발표를 통한 자기 표현력 신장
- 나눔과 배려의 길상 오케스트라 운영

09



문화 체험 중심

화도초등학교 인성교육과정

■ 마니골 및 우리 고장 강화도 탐구체험활동(1~2학년)

- 마니골 체험 : 강화 나들길 걷기, 장화리 갯벌탐사, 마니산계곡 탐사
- 강화도 탐구 : 고인돌 탐사, 강화역사박물관 견학
- 내 고장 및 향토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애향심 고취

■ 인천광역시 일대 창의체험활동(3~4학년)

- 인천대공원 동물·식물 관찰, 전통놀이 체험, 초콜릿 만들기 등
- 인천 일대 수학여행 : 경인아라뱃길, 월미도, 송도, 영종도, 소래습지 등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 함양

■ 전국일주 창의체험활동

- 양떼목장 . 레일바이크 . 케이블카 체험, 헛제사밥 등 토속음식 체험 등
- 전국일주 수학여행 실시 : 통영, 거제, 부산, 경주, 안동, 정선 등
- 우리 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 태도 형성 및 애국심 고취

10



자연, 꿈, 행복

양도초등학교 교육과정

■ 어린이 본성에 맞는 교육

- 어린이 신체 리듬에 맞춘 중간 놀이 시간 운영
 - 학교 수업시간 안에 놀이시간을 넣어 놀이와 교과활동을 통합가능.
- 발도르프 환경 구성
 - 1,2학년 교실에 '움직임 책상'과 방석 배치.

■ 자연에서 배우는 체험학습

- 자연과 함께 하는 어린이 농부교실
 - 교육과정 중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의 시간을 배당
- 양도가족 강화도보100리
 - 성취감, 자신감을 길러주고 애향심과 공동체의식을 높임.
- 애들아 숲에서 놀자! - 양도 사계절학교
 - 매년 4회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캠프형 주기집중 체험 학습일로 운영

■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공동체

- 배려하고 끌어주는 의형제 모듬
- 양도 학생 다모임
 - 양도초 어린이들의 민주적 소통의 창구로 학교의 이모저모를 고민하고 결정

11

사랑과 꿈이 영그는 행복한 학교

조산초등학교 교육과정



■ 조산다모임을 통한 자존감 및 발표력 신장(월 1회)

- 생일 축하잔치 - 축하 공연 - 레크레이션 - 나의 주장 말하기, 독서록 발표, 나의 꿈 발표 - 학생자치회의(연 4회), 학생자치법정(연 4회)

■ 다양한 독서체험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 책 읽어주는 엄마(주 1회, 아침 08:40~09:00)
- 사제 동행 책 아침 책 읽기(아침 08:40~09:00)
- 독서 캠프 운영 : 빛 그림 극장, 도서관에서 보물 찾기, 아동문학 작가와의 만남, 도서퀴즈 골든벨 등 운영

■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 영화만들기 체험학습(3-6학년, 18시간)
 - CJ CGV의 교육기부로 학생들 스스로 영화를 만들고 상영함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진로체험학습(연 2회)
 - 면장, 경찰,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미용사, 차 정비사, 제빵사, 교사 등
- 진로체험 드림캠프(2박 3일)
 - 63씨월드 견학, 삼성디지털시티 견학 - 공연관람(오즈의 마법사)
 - 외식문화체험(드마리스, 제시카키친) - 스키캠프 및 오션월드 체험

12

「코-에코스쿨」 운영을 통한 꿈과 끼를 키우는

내가초등학교 교육과정



■ 친구를 배려하고 나눔의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하기

- 내가생일잔치를 통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 형성하기
- 내가자유발언대를 통한 소통의 문화 형성하기
-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협동하는 마음 기르기

■ 즐겁게 생활하고 체력을 향상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문화 조성하기

- 브레인 기지개 파워 워킹 운영을 통한 건강마이스터제 운영하기
- 틈새시간을 활용한 줄넘기 활동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몸 가꾸기
-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통한 1인 1특기 신장하기

■ 자연친화 동아리활동을 통한 내고장 알고 가꾸기

- 내가그린서포터즈 환경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갖기
- 강화 역사탐방을 통한 내고장 사랑하는 마음갖기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축제에 참여하여 우리 마을에 대한 자긍심갖기

13



사제동행 112

독서 프로젝트

하점초등학교 교육과정

■ 사제 동행하여 1일 10분 1주일 2권 책읽기 실시

- 전교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사제동행 책읽기 연간 운영
- 학생, 교직원 모두 독서 통장 활용하여 책읽기 강화
- 연말 다독학생 시상하여 독서 활동 지속적 관심 유도

■ 다양한 행사를 통한 독서 교육 강화

- 세계 책의 날 기념 독서 이벤트 실시
- 연중 2회 독서 골든벨 및 독서 퀴즈대회 실시
- 우리반 책 선정하여 함께 토론하기 활동

■ 방과후 교육활성화를 통한 독서활동 지원

- 방과후 독서 논술 교실 운영
- 방과후 창의 독서 교실 연중 120시간 운영
- 썸머, 윈터스쿨 중 집중 독서 교실 80시간 운영

14



작지만 오고

싶은 행복한

명신초등학교

명품힐링 교육과정

■ 다양한 4색 명품힐링 체험활동을 통한 더불어 사는 인성 교육의 충실

- 농촌체험- 텃밭일구기, 재배물 심고 가꾸기, 수확·시식하기, 장담그기
- 문화·역사체험- 강화역사체험, 계절학교, 음악극관람, 연극발표회
- 심신단련체험- 고려산 등반, 1박2일 야영 체험, 망월벌판, 나들길 걷기
- 효체험- 효행의 날, 가족동반 등산체험, 노인정 결연 및 방문 등

■ 개인별 맞춤식 학습전략을 통한 기본학력정착 및 창의성 개발

- 개인별 맞춤 진로교육-끼에 의미가 있는 진로교육
- 기초·기본학력 다지기교육-교과학습 특별보충 프로그램 운영

■ 건전한 독서습관 정착 English-Jump활동을 통한 전인적 인간교육 실현

- 학년수준별로 독서 3영역(필독서, 도서대출)을 통합한 독서활동
- 영어 문장 인증제로 생활영어 익히기

15



따뜻한 품성을 기르는

양사초등학교 교육과정

■ 배려와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양사자연학교'

- 계절별 특색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농사체험, 전통체험, 문화체험, 건강 체육 등 자연, 전통,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육성 프로그램 진행
- 조별 활동으로 서로 배려하고 인내하며 협동하는 인성 기르기

■ '얼썬~, 좋다~'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 기르기

- 은울탈춤 전수학교로 매주 2시간씩 전문강사로부터 전수교육 수강
- 매년 다수의 공연을 할 정도로 상당한 기량을 갖추게 됨
-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는 우리 전통 지킴이로서의 자부심 고취

■ 미래의 리더를 꿈꾸다, '양사포럼'

- 월 1회 다함께 모여 학교 문화에 대한 문제로 토론 진행
-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공동체 의식 고취
-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바르게 내세우는 토론 문화 정착

16



푸른 솔의 기상을 펼치는 송해 배움터

송해초등학교 교육과정

■ 우리 학년 자랑 발표회(매월)

- 학급의 특색을 선정하여 일년동안 지속적으로 기능 습득
- 전교생 앞에서 우리 학년 최고야~~
-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로 자랄 수 있어!

■ 다양한 인증제 습득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력 쑥쑥

- 1인 3악기 기능의 습득으로 모짜르트도 부럽지 않아!
- 영어 및 중국어의 습득으로 외국어 인증제 수여.
- 독서 및 받아쓰기(저학년) 인증제를 통한 기초부터 튼튼.

■ 부현동 친구들과 함께 MOU

- 함께 수업하고 함께 야구 경기 관람.
- 부현동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고, 야영 활동.
- 떡매치기도 함께 쿵덕~~~

17



多끼, 多꿈 찾기를 통한 행복한 진로가꾸기

교동초등학교 교육과정

■ 꿈과 끼를 키워 밝은 미래를 그리는 행복드림맵

- 학년단위의 테마가 있는 동아리활동을 통한 꿈과 끼 가꾸기
-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활동을 통한 진로가꾸기
- 다양한 앱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 실시

■ 동이와 나리의 큰 꿈을 그리는 예술체험맵

-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활동 실시
- 도농 학교간 다양한 예술문화 교류활동 실시하기
- 큰 꿈 한마음 학예발표회, 테마발표대회 등으로 예술발표 기회 확대

■ 교육기부로 변화를 키워가는 큰꿈채움맵

-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MOU 확대 실시
- 지역사회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실시
- 농산어촌 순회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체험활동 다양화하기

18



꿈과 사랑이 넘치는 난정꿈 Do-Dream 교육과정

난정초등학교 교육과정

■ 학교경영목적

-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사랑이 넘치는 학교' 및 '꿈을 키워주는 학교' 조성
- 교동향교와 함께 하는 체험을 통하여 효체험 중심학교 운영을 통해 효를 함양하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일깨워 효 실천의지를 함양

■ 방침

- 문화예술 교육활동 및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통한 창의성 및 바른 인성 함양
- 정서적인 안정과 원만한 교우관계, 보다 창조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 효체험 중심학교 운영으로 부모님의 소중함을 일깨워 효 실천의지를 함양
- 본교 학생들이 바른 인성 및 올바른 인격을 형성에 중점
-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성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성과

-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학생과 학생과의 유대감 형성
- 협동심, 표현력, 대인관계에 도움을 주어 바른 학교문화의 기반 구축
- 음악적 능력을 길러 보다 수준 높은 예술적 감각을 키워 미래 인재 양성을 키우는데 밑거름

19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창의인성을 키우는

지석초등학교 교육과정

■ 배경 및 필요성

- 도서적 지역으로 교육적·문화적 시설 및 혜택 부족
- 학부모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가족동반체험활동을 거의 하지 못함
- 소규모학교로 교육적 환경·시설이 낙후되어 다양한 교육경험의 기회가 적음

■ 활동 내용

- 도시문화체험활동-인천마전초 도시학교체험, 용인, 일산, 서울 체험학습
- 계절별 생태교육-화개산등반, 나들길 걷기, 천체관측, 텃밭 가꾸기 등
- 문화예술체험활동-장흥아트파크, 해든뮤지엄, 영화관람, 휠체어댄스관람 등

■ 운영성과

- 교우관계가 돈독해져 학교폭력이 없는 가족 같은 학교분위기 형성
- 폭넓은 견문과 산지식 습득으로 학업성취도도 좋아지고 자긍심도 강해짐
- 단체생활을 통하여 질서 의식,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기르게 됨

20



오감만족 진로인성교육

삼산초등학교 교육과정

■ 필요성

- 지역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의 꿈을 만들고 키울 수 있는 체험 중심 진로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 내용

- 수목원 진로체험학습 : 전교생(유치원 포함)이 봄과 관련된 교과내용으로 숲해설사의 설명과 숲의 부산물을 이용한 표현 활동
- 아침 독서 활동 : 학년별 학기별 필독서 안내를 통한 독서활동 및 다양한 독서 포상제 실시(다독상, 독서광고, 독서토론, 독서록 쓰기 대회)
- 재능 발표 조회 : 악기연주, 무용, 연극, 독후감 발표, 탐사 보고 등
- 채소는 내 친구 : 제철 채소를 심고, 수확하여 친구들과 같이 먹으며 녹색교육의 장으로 활용
- 생태체험학습 : 수목원 테마원을 탐방하며 가을 풍경 관찰, 오감 체험 학습 및 가을 열매를 저장하는 동물들과 숲생태계 보호와 가을 열매를 이용한 인형, 브리지 만들기
- 학부모 교육기부 : 탈무드 교실

21

STAR 동아리 활동 으로 미래의 꿈 키우기

해명초등학교 교육과정



■ 동아리활동 부서 조직

- 학생의 요구·흥미·진로 등 사전 상담 후 부서 조직
- 저·중·고 무학년제로 조직
- 격 주 1회 2시간 블록타임제 운영

■ STAR동아리활동 운영의 실제

- 창의과학동아리 : 창의적 과학 실험·실습 중심의 동아리 운영
- 해명드림스쿨 : 진로체험 동아리, 꿈 색깔찾기, 꿈 키우기 프로젝트
- 오카리나힐링캠프 : 재능을 기르기 위한 예술 동아리, 악기 연주를 통해 꿈 키우기 활동 전개
- 책을 향해 후후(who who) : 위인 독서 동아리, 위인전을 읽고 스토리텔링
- HM(해명)아트공작 : 미술 인성 동아리
- 똑똑 또르르 녹색탁구부 : 체육 인성 동아리, 탁구를 통한 심신의 단련

■ 운영성과

- 학생 개개인의 특기 및 소질계발 활동을 통해 융합인재 육성
- 진로와 연계된 체험동아리 운영
- 개인별로 1가지 이상(복수)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

22

작지만 행복한

서도초등학교 교육과정



■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넷북 지급

- 교과활동과 연계된 정보, 학습자료 활용
- 개인적인 정보화 기능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
- 넷북을 통한 원어민과의 화상수업 및 영어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무료로 운영 중인 방과 후 활동

-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 활동
- 교사와의 일대일 학습으로 기능 향상
- 오카리나, 사물놀이 등 모든 활동 방과 후 활동을 무료로 수강

■ 전교생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 교과와 관련된 현장학습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 갯벌체험, 농작물가꾸기 등 학교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체험활동

■ 주문도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축제

- 전교생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서도어울림 축제

23

강화의 중심에서 세계의 으뜸으로!

강화중학교 교육과정



■ 한 학기의 자유로 한평생의 좌표를!-자유학기제 운영

- 교육과정 자율학교 운영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적체험활동 내실화 및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운영
- Find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로중심학교 운영
- 1318 헤드림 프로젝트(진로동아리)운영 활성화

■ 교과교실에서 키우는 Dynamic curriculum

- 전교사 수업연구 및 맞춤형 연수 실시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 도서관 활용을 통한 창의적 수업 개발 및 적용(도서관협력수업, 토론 등)
-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한 수준별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 STEAM 및 주제중심 수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 활성화
- 핵심성취기준 기반의 과정중심 평가방법 도입으로 성취감 신장(서술형 확대)

■ Nice personality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

-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바른 인성 갖기 교육 강화
- 금연정보센터 중심학교 운영을 통한 학생 중심 프로그램 실천
- 해피 프로젝트 운영으로 배려와 나눔의 학교 분위기 형성

24

앞서가는 창의·인성교육으로 하나되는 학생중심학교

강화여자중학교 교육과정



■ 농·산·어촌형 디지털교과서 및 스마트교육 활용 환경 기반 구축을 통한 창의적문제해결력 신장 학습 모델 구안·적용

- 미래적응 핵심역량강화 농·산·어촌형 디지털교과서 및 스마트교육 활용
- 창의적문제해결력 신장 학습 모델 구안·적용
- 문제해결학습, 지식구성학습, 교류학습 등 학습모델 도출 및 일반화

■ '배려와 나눔'의 인성 및 교육복지 실현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 교육취약계층 학습에 대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 통합지원
- 나, 너,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자유학기제' 및 '창의인성모델학교'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역량 강화

- 자유학기제 및 창의인성모델학교를 통한 창의적 교육과정운영
- 진로특성화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스스로 진로 탐색 능력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인근학교 컨설팅을 통한 특화 프로그램 확산 및 전파

25

높이 나는 강남인

강남중학교 교육과정



■ 교과교실제, 성취평가제와 연계한 수준별 교과 방과후 강좌 운영

- 학업 수준과 수요를 고려해 세분화한 교과 강좌
- 각 교과별 교과교실을 활용한 학생 중심의 강좌
- 성취수준 도달 및 학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강좌

■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오케스트라 방과후 강좌 운영

- 전교생이 참여하는 합창, 오케스트라 강좌
- 1인 1악기 연주를 위한 파트별 강사 초빙
- 자유학기제를 바탕으로 한 인근학교와의 협력

■ 상호 협력과 배려, 이해심을 기르는 스포츠 활동

- 학업 부담 해소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 강좌 운영
- 학생 수요를 바탕으로 1인 1스포츠 숙달을 목표로 한 강좌 운영
- 강화학생체육관, 본교 잔디구장 등 지역 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강좌 운영

26

넘치는 열정, 샘소는 꿈을 키우는 심도중학교

심도중학교 교육과정



■ 꿈과 끼를 키우는 심도 동아리활동

- 한 겨울에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도록 움직이는 탁구 라켓으로 몸도 마음도 한 뼘은 더 자라는 탁구 동아리
- 대금반, 풍물반, 시조창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화음을 맞추며 소통하는 인성교육
- 감성미술반 활동으로 동양화, 서양화, 공예 설치 등 다양한 미술 분야를 경험하고, 미술관 관람활동으로 미술적 소양을 기르는 예술활동

■ 사랑으로 만드는 사제동행의 장(場)

- 즐거운 학교문화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형성함
- 학교 주변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과 견학을 통해 사제지간 선후배 간에 원활한 소통의 길을 마련함
-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으로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키우는 전인교육의 기회가 됨

■ 마리글방 독서회

- 아침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해 학교도서관 도서대출 봉사활동을 하며 1주 1권 책읽기 운동으로 독서의 생활화 분위기 조성
- 마리 독서전, 세계 책의 날 행사, 다독상, 엽서전 등의 도서관 행사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 강화중학교와의 연합독서활동을 통해 문학기행,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문화교양 강좌 참가, 연극관람 등으로 도서부원 활동의 활성화

27

꿈과 끼를 살리는 “오·태·영”

삼산승영중학교 교육과정



■ 나눔과 연계한 『승영 전교생 오케스트라』

-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1인 1악기 연주' 및 '오케스트라 활동' 전개
- 조화로운 인성 및 사회성 함양, 자존감 향상을 통한 학력 향상
-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설렘' 공연 개최 (2013-2014, 포스코 지원)

■ 심신의 건강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승영 전교생 태권도』

- 주 1회 전교생 태권도 교육 실시 및 연 2회 태권도 승급 심사
-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태권도 정신 함양으로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졸업 시 1단을 목표로 꾸준히 연마함

■ Seize English! Seize the World!

-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따른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 전개
- 영어 Camp, English Only Friday, Speech 대회, 영어 연극 등
- 섬지역 영어교실 거점학교 운영

28

꿈과 끼를 살리는

동광중학교 교육과정



■ 1인 1악기 단련하기

- 학생들의 재능 및 흥미와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파트(금관, 목관) 구성
- 매주 목요일 자기주도적 연습을 통하여 실력 향상 및 연주회 다수 공연
- 악기 연주 능력 향상을 통한 풍부한 정서함양과 소질 계발에 도움을 줌

■ 『내 꿈을 찾아서』를 통한 바른 인성 기르기

- 매주 월요일 명상의 시간을 통한 바른 인성의 내면화 및 활성화
- 효율성 있는 시간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창의적 교육효과 높임
- '내 꿈을 찾아서'를 점검하고 우수작을 선정하여 '예지인상'을 2회 수여

■ 즐거운 아침 책읽기

- 매주 화, 수요일 2회에 걸쳐 친숙한 책읽기 환경 조성
- 교사와 함께 책읽기를 통하여 학생과의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친밀해짐
- 학기별 다독자를 선정하여 책읽기 능력 향상과 호기심 유발에 도움

29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어가는**
삼량중학교 교육과정



- **융·복합 교육으로 '창의인'을 키웁니다.**
 - 디카시 전시회, 독서경진대회, 과학의 날 행사 운영
 - 독서교육 활성화
- **학생 맞춤 프로그램으로 '세계인'을 육성합니다.**
 - 플랜 코리아 후원 활동
 - 리더십 특강 및 외부 강사 초청 프로그램
 -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소통과 화합을 통한 '자주인, 문화인'을 양성합니다.**
 - 자신을 키우는 자기주도 학습
 - 학생 중심 교육 활동 운영
 - 문화 체험 활동 활성화
 - 하계방학 중 진로 캠프 운영
- **바른 인성 교육으로 '효행인, 극기인, 애국인'을 키웁니다.**
 - 감동을 주는 효행 실천
(‘효도합시다’로 인사, 월 1회 손편지 쓰기, 효행 체험의 날)
 - 강화 나들길 걷기
 - 전인적 성장을 위한 균형 있는 교육과정 운영

30

**꿈과 끼를 키우며
도약하는 행복한**
고동중학교 교육과정



- **학생자치법정을 통한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만들기**
 - 재판전 단계 : 벌점 부과 및 점수 누적 집계, 법정 회부 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 및 재판 공시
 - 재판 단계 : 법정 준비, 법정 구성원의 역할 및 권한, 법정 재판 절차
 - 재판 후 단계 : 법정 판결 이행시 관리 감독(학생부), 역할 소감문 작성 및 발표
- **기초 학력 향상**
 - 기초, 기본학력 지도 공동 책임제 운영
 - 중3, 고1~3학년 해병대 영어. 수학 특강반 운영
 - 학년별 아침 자율학습 운영 - 영어듣기 및 독서 지도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진로교육**
 - 커리어넷 아로플러스 활용 직업적성, 직업흥미검사 실시 후 개인별 상담
 - 진로진학관련 대회 실시
 - 졸업생 멘토 초청 비전과 목표의식 고취를 위한 특강 또는 간담회 실시

31

**꿈·사랑·지혜가
샘솟는
행복한
명품 서도교육**
서도중학교 교육과정



■ 1인 1악기 예술 활동

- 관악기, 현악기, 드럼 등 특성에 맞는 악기 선정 후 진행

■ 개인 넷북(Net Book) 지급

- 교과활동과 연계한 진로진학 정보 습득 및 학습자료 활용
- 정보화 기능 향상 및 사이버 학습 기회 제공

■ 완전학습시스템 적용과 전액 무료 지원 운영 방과후학교

- 좋은 습관 형성 → 자기주도적으로 만든 학습플래너 → 능력·적성에 맞는 학습
- 선생님과 1:1 학습으로 학습능력 향상 극대화
- 골프, 테니스 등 다양한 꿈과 끼를 길러주는 특기 적성 방과후학교 운영

■ 전교생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 제주도와 서울 등지로 떠나 활성화된 진로직업체험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 갯벌체험,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 매 월 열어주는 생일 잔치

■ 주문도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축제

- 전교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서도어울림 축제
- 축제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되는 축제다운 축제

32

**Triple Self Up
프로그램 적용으로
미래를 여는
행복학교!**
강서중학교 교육과정



■ Self-confidence(자신감) Up

- KASS(knowledge, Art, Sports, SPeech) 프로젝트 운영
-1인 1 외국어 익히기, 1인 1악기 연주, 1인 1기 스포츠 활동
- ICT 활용 농산어촌 선도학교 운영으로 가상 공간에서의 성공 경험 기회 제공
-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진로, 직업 탐색 및 자기주도적 역량 함양
- 교과별 주제 토의 및 프레젠테이션, 무대 발표 기회 제공

■ Self-esteem(자존감) Up

- 학교 홈페이지 선플(=착한 댓글) 달기 실천
- 자기긍정 파워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과학체험전, 탁구대회, 천체관측 등 체험 활동 참여로 긍정적 자아상 확립

■ Self-leadership(자기 지도력) Up

- 독서 및 독후활동 지도로 자기관리, 자기통제 자기만족 실현
-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자신 삶의 주인 의식 인식 기회 제공
- 전문 강사 초청 강연을 통한 미래 리더의 자질 함양

33



무한 돌봄, 학력 쑥쑥!! 기숙형 자율학교

강화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

■ 전국 최대 규모 기숙사에서의 행복한 학교생활

- 전국 기숙형 고교 중 최대 규모 기숙사(연면적 2,500평, 전교생의 70%인 428명 수용)

공 간	시설명	실 수	비 고
생활공간	학생 생활실	107	4인 1실(1층 침대)
학습공간	면학실(학년별)	3	개인독서대 책상
	멀티미디어실	3	컴퓨터 및 책상
자유공간	세미나실	1	다목적 강당(148석)
	휴게실	4	소파, 신문 구독대, 전화, 개가식 서가
	동아리실	7	책상 및 의자
	지원공간	6	게스트룸 4, 보건실 1, 체력단련실

■ 기숙형 고교 DOTE(C(Dormitory Total EDU-Care) Program

학력 향상 (Studious)	정서 함양 (Emotional)	건강 증진 (Initiative)	자주성 함양 (Phys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를 위한 면학실 운영 - EBS 활용 On-Line 학습 - 감비랑학사 사제지간 멘토링제 운영 - 감비랑학사 선배 멘토링제 운영 • 대학 연계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 • 감비랑학사 학습 동아리 운영 및 동아리실 활용 • 독서 힐링 캠프 운영 • 감비랑 교실 운영 • 진로 체험 및 대학 탐방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강화 향교 연계 예절 교육 - 전통 문화 이해하기 - 아침 및 야간 방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 「1인 2기」음악·미술 프로그램 운영 • 감비랑학사 모범학사생 표창 및 모범 호실 표창 • 사랑의 편지 쓰기 (부모님 친구 선생님) • 지역축제 연계 우리 지역 바로 알기 프로젝트 • 감비랑학사 오픈하우스 데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사제동행 동반프로그램 • 강화 나들길 걷기 프로그램 실시 • 토요일 아침명상 산책 Eco-therapy 운영 • 건강증진 및 안전교육 실시 • 체력 단련실 활용 활성화 • 「1인 2기」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비랑학사생 자치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감비랑학사 리더십 캠프 실시 • 감비랑학사생 자치활동 중심의 생활지도 • 감비랑학사 생활평점제 운영 • 청소년단체활동을 통한 봉사활동 활성화 • 감비랑학사 봉사단 조직 운영 • 학부모 자치위원회 활동 활성화

■ 아침 독서를 중심으로 한 독서교육 활성화

- 아침 독서 시간 운영
 - 분야별 권장도서 100권 선정
 - 전교사를 대상으로 한 독서교육 연수 실시
 - 연2회 도서관DAY운영으로 학급별 독서 교육 실시
 - 전 학생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가입, 독후활동 및 다양한 활동 전개
 - 월 1회 반별 독후활동 입력 시간 확보
- 독서토론논술반 운영(독서토론논술 중심학교 운영)
 - 아침 독서 시간 도서와 독서토론논술 중심학교 프로그램을 연계
 - 희망자를 대상으로 참가학생을 선정, 주1회 10차시(2시간)에 걸쳐 강좌 진행
 - 동아리활동과 결합하여 다양한 독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독서토론, 독서논술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

■ 1인(人) 2기(技) 교육으로 활기 넘치는 학교

- 체육은 주1회 1시간, 음악 혹은 미술 과목은 격주 1회 2시간 선택하여 수강
- 2개 학년(1,2학년) 통합 수업을 실시
- 『1인 2기』선택 강좌와 동아리를 연계하여 활동
- 1년 단위 수강이 원칙이며, 학년 단위 인증시험 실시
- 활동시수(전체시수-결석, 지각, 조퇴 및 담당강사가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체 수업 시수의 70%)를 넘지 못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1인 2기 활동 상황을 기재하지 않음.
- 연 1회 1인 2기 수업 종료일에 1인 2기 발표회를 진행

■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젝트

- 전학년 수준별 수업 : 영어, 수학 과목은 다른 학교와 달리 3학년을 포함하여 전 학년 수준별 수업 실시
- 맞춤형 방과후수업
 - 상위권 : 교내 우수교사 및 유명 학원 강사들의 심화 수업 실시
 - 중위권 : 해병대 제7167부대와 MOU를 체결하여 고학력 군인 선생님과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하위권 : '학업성취도 기초 미달 제로화 계획'에 따라 중학교 과정보부터 복습

■ 꿈과 끼를 신장시켜 주는 동아리 활동 및 교내 경시대회

-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
 - 학술통아리 : 시사토론부, 과학탐구이슈부 등 35개의 학술통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매년 학술 논문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비학술통아리 : 라움비(건축), 항공 동아리 등 26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진로탐색은 물론 꿈과 끼를 적극적으로 키워주고 있음
 - 다양한 교내 경시대회 : 교과별로 교내 경시대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밀도 높은 심화학습을 실현하여 학문 탐구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

34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어가는 삼량고등학교 교육과정

■ 융·복합 교육으로 '창의인'을 키웁니다.

- R&E(Research & Education) Program 운영
- 또래학습, 소모임 활성화(4G, R&E 연계 과학 또래)
- 다양한 동아리 활동(활의당, 칼리오페, MOTO)
- 디카시 전시회, 독서경진대회, 과학의 날 행사 운영
- 독서·토론, 논술교육 활성화

■ 학생 맞춤 프로그램 '세계인'을 육성합니다.

-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 플랜 코리아 후원 활동
- 리더십 특강 및 외부 강사 초청 프로그램
- 진로 진학 캠프 운영

■ 소통과 화합을 통한 '자주인, 문화인'을 양성합니다.

- 자기주도 학습 케어 시스템 운영(열공반(방과후Ⅱ))
- 1인 2악기 심성 예술 교육
- 1인 1기 심신 단련 검도 교육

■ 바른 인성 교육으로 '효행인, 극기인, 애국인'을 키웁니다.

- 진로를 찾아 떠나는 소규모 테마체험 학습 실시
- 감동을 주는 효행 실천(월 1회 손편지 쓰기, 효행 체험의 날)
- 봉사 활동(문화재 보호, 갯벌 환경 정화, 사회 복지 시설)
- 강화 나들길 걷기
- 전인적 성장을 위한 균형 있는 교육과정 운영

■ 2014학년도 교육활동 실적

- 2014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1,2 등급 인천 일반고 중 '유일하게' 전국 50위 진입 (2014.8.26 조선일보 보도)
- 2014학년도 국어, 수학, 영어 표준점수 합계평균으로는 자사고, 특목고 포함 전국 90위 (2014.8.26 중앙일보 보도)
- 2014 북극청소년 연구단 북극 체험 21C 다산 주니어' 최종 선발
- 소원 동아리 - 2014 소셜 벤처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2014년 인천 청소년 학술제 WISET 단장상 수상
- 2014년 인천 청소년 학술제 '포스터 발표 대회' 인하대학교 학장상 수상
- 제 9회 미추홀 전통문화대전 다례부문 대상, 떡부문 대상 수상

35

삼박자가 통하는 덕신교육

덕신고등학교 교육과정



■ 기독교적 인성과 학력을 겸비한 미래 인재 육성

- 해피모닝데이(등굣길 맞이행사)와 사제동행활동을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
- 예배와 종교수업, 절기행사를 통한 기독교적 인성교육 운영
- 면학실 운영 및 심화학습, 학습멘토링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향상
- 수준별수업, 수준별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도

■ 다양한 동아리운영과 맞춤형 진로활동

- 창체 동아리 및 자율동아리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생활능력 향상
- 진로체험 및 직업인 초청 멘토링, 직업 탐방등을 통한 맞춤형 진로지도
- 전 교사의 동아리 지도 및 학생 개인에 대한 진로지도

■ 아이유 캠프를 통한 자신과 공동체 이해

-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별 1박 2일 캠프 진행
- 자기이해활동, 공동체 이해활동, 비전 찾기,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 운영

유구한 역사의 꽃 우리 학교는

강화초등학교 교사 이재현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희망의 땅 강화, 강화 읍내를 지나 고려궁지 안내판을 따라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강화초등학교를 만날 수 있다.

강화초등학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강화교육의 산실이라 자타가 공인한다. 안타깝게도 1980년대 초 대화재로 인해 옛모습을 찾을 수는 없지만 1898년 4월 1일 개교 이래 116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혼연일체가 되어 아름다운 강화의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본교는 지난 2011년 10월 19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1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는 전국 2634개 도서관이 참여, 1.2차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학교도서관 분야에서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전국 15개 초·중·고등학교가 선정되었는데 본교는 우수도서관 인증마크를 부여 받았다. 강화초등학교 '꿈터지기 도서관'은 쾌적한 도서관을 구축하여 도서관활용수업, 각종 독서문화행사 추진, 합리적인 도서관운영, 꾸준한 장서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는데 '꿈터지기 도서관'은 강화군청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복층으로 꾸며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영화 감상도 할 수 있고, 조조개방을 통해 어린이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교생이 한 달 동안 1600여권의 책을 모아 바꿔보는 도서바자회 '책잔치 떡잔치', 그림전시, 원어민을 활용한 Story-Telling, 책속 보물찾기 등의 체험 위주 독서교육과, 학부모 도서관위원들이 교실을 찾아가 동화를 들려주는 <엄마와 떠나는 동화나라 여행>, 학부모 대상 동화구연 연수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강화초등학교 교사들은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학년 학부모 공개 수업을 연 2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동료평가 공개 수업 25회, 자기장학 10회, 동료장학 7회, 학년장학 6회, 약식 장학 12회 등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개수업을 통한 수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60시간 연수 19회, 45시간 연수 3회, 30시간 연수 36회, 15시간 연수 38회와 매주 월요일 교직원 회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내 현직연수 25회 등 다양한 연수 활동을 통하여 교사 스스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의 꽃 강화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된 사람, 슬기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며 강화교육의 으뜸은 물론이고, 인천교육의 선두에 서서 세계화에 발맞추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강화초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는 '오늘도'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찾아가는 수업 지원단

양사초등학교 교사 박성수

모든 교사는 수업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긴장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여러 가지를 하게 된다. 복장, 환경, 그리고 말투 등... 하지만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을 수업일 수 밖에 없다. 나 역시 공개되는 수업에서는 언제나 그랬다.

이런 수업을 도와주기 위해 장학지원단을 2년째 하면서 나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남의 수업을 봐 줄 상황이 되는가?, 내 수업이나 잘하지?...

하지만 여기에는 내가 한 것을 그냥 나열하듯이 쓰고자 한다. 올해 장학지원단을 하면서 수업을 컨설팅할 때 수업 컨설팅을 받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다.

우선 나는 내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고치기로 했다. 이전에 비판적으로 수업자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수업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나의 판단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대화였다.

먼저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컨설팅 의뢰가 오면 전체를 훑어보고 컨설팅을 하기 이전에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신 교사에게 우선 전화를 했다. 그냥 작성하신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다. 이런 과정도 더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이것이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내가 궁금하거나 혹은 수업하실 교사가 생각하는 것을 들어 보았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하실 생각인지 실제 수업보다 주변의 상황을 알려주었으면 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다행히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여건이나 수업하고자 하는 의도 등을 말씀해 주셨다. 혹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활동을 했다. 지도안을 우선 전체적으로 보고 짜임새와 방향을 서로 이야기 해보고 그리고 전화로는 부족한 것 같으면 퇴근 후에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했다. 그래서 과정안이 많이 바뀌기도 했다. 말로 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 같았다. 이 부분은 아마도 컨설팅 초보인 장학위원의 역량일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른 장학위원들은 지도안만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못했기에 몸이 피곤하게 활동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수업할 교실에서 만나서 말을 하다보면 수업을 할 교사와 학생들의 상황까지를 다 파악할 수 있어서 도와주기가 더 편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수업자는 피곤했을 수도 있다. 메신저나 전화로 해도 될 상황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접 찾아오겠다고 하니 말이다.

장학위원을 하면서 어쩌면 부담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더 상황을 알고 수업에 대하여 말하면서 내가 좀 더 겸손해진다는 느낌이 든다. 함부로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하여 내 위주로만 말하지 말고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필요에 따라 직접 찾아가 귀찮게 한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내 수업을 바라보다! 두 달여간의 성장 Drama

선원초등학교 교사 이은주

조심스레 첫 발을 내딛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수업인 것 같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1학년을 중임하기에 조금 교만(?)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도서 한 장도 넘겨보지 않고 무슨 자만심에 아이들 앞에 서는지... 늘 하는 고민이지만, 수업에서만큼은 아이들 앞에서 학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고 싶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작아진다. 정신없이 업무처리를 끝내고 퇴근할 때 가끔씩 허탈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24년째 해 온 수업이지만, 나 스스로도 내 수업을 적나라하게 볼 수 없기에 이번엔 과감하게 웃을 던져 버렸다. 평소의 수업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를 바라보길 원했다. 수업후 수업 전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우려했던 대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업 스케치1 - Surprise!

40분 수업 전사를 하는데 약 5시간이 걸렸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마지막 타이핑이 끝나면서는 커다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다. 실로 오랜만에 교사로서의 뿌듯함이랄까?

수업 전사 중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나의 발문 버릇이었다. 말 끝이 매우 짧았음을 알 수 있었다. 매우 놀라웠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다.

교사 : (중략)어떤 기분일까요?

학생 : (중략)

교사 : 일어서서

학생 : (중략)

교사 : 또 다른 친구? 은열이?

학생 : (중략)

교사 : 기분이 맛있다? 좋아요. 이번엔 도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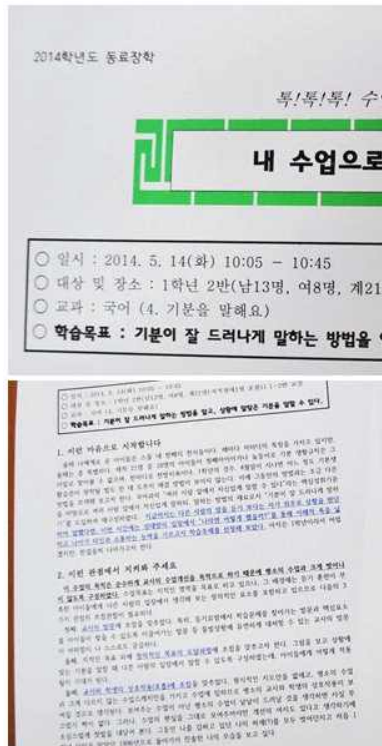
학생 : (중략)

교사 : 잘 했어요. 또? 형준이?

학생 : (중략)

- 수업전사자료 3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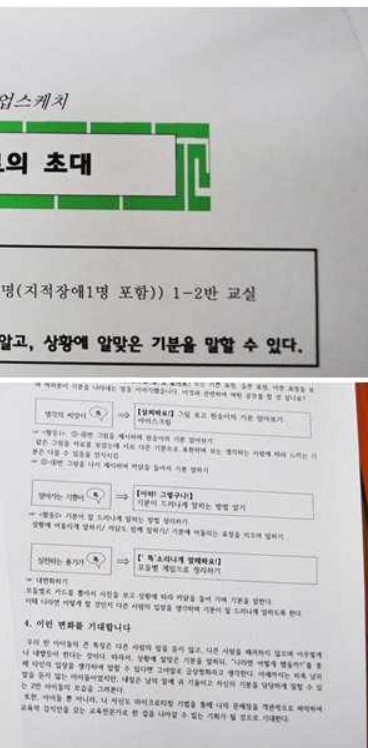
이러한 발문 유형이 평소에 급한 성격 때문은 아닌지..... 1학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자세하게 설명해야 함을 느낀다. 또한, 교사의 발문 위주의 수업이다보니, 자연스럽게 교사 주도의 수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평소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이들 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래도 아이들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징검다리 발문, 즉 학습문제 유도 발문은 그대로 무난해 보였다. 아이들이 중심언어를 잘 찾아주어서 감사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의 중심 키워드중 하나인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수업중에도 느꼈지만 깔끔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다.

또한, 수업 중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볼 수 있었다. 경고!라는 말을 3번 사용했으며, 아이들의 책상을 두드리며 "여보세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특히 수업 후반부(활동 3이후)로 가서는 주의집중 방법을 8번 사용했다. 이것은 아이들이 점차 지루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발표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모두 정리해 주고 있었다. 수업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수업 전사를 하면서 보니, 융통성 있게 조절해야 함을 느꼈다. 거의 90%이상을 반복하다보니 아이들 입장에서 지겨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수업 스케치2 - 돌발상황!

모둠별 수업을 할 때, ○○이랑 △△이가 짝이 싫다고 다툼이 생겼다. 하필이면 공개 수업에 다툼이라니? 당황한 순간! 아~~ 이 상황을 수업목표와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는 나 스스로도 만족이다.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가 순간 떠올랐다. 역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가보다.~~^*^

어설픈 비평을 마치며

입학식부터 오늘까지 교직 생활 중 처음으로 대단한 아이들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으므로 두 어깨가 참으로 무거웠다. 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다.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었고, 1시간이라도 제대로 수업을 해 보고 싶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싹껏 먹었을 때 느끼는 포만감(?)처럼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 제대로 하고 났을 때의 뿌듯함을 느끼고 싶었다. 문제는 아이들과의 호흡이었다. 나를 바라보지 않는 아이들! 친구를 바라보지 않는 아이들!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기울이지 않는 아이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다. 난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교사의 이야기에 열광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만큼 좋은 자료는 없다고 보기에 별 다른 자료는 아니지만 사진 몇 장을 활용했다. 역시 아이들은 수업으로 쏙 빠져들었다. 아이들이 즐거웠기 때문에 덩달아 나도 즐거웠다.

오늘 체계적인 수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개인의 학생을 존중했고, 아이들의 생각을 도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로 인해 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드러내기 부끄럽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이 난 참 좋다.

참으로 오랜만에 해 보는 비평이다. 한 때는 나도 이혁규 교수님께 폭 빠져서 수업비평에 관심을 보였었던 때가 있었는데.....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감사했으며, 수업 전사를 마치고는 나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냈다. 참 행복했다. 그 행복감은 포만감(?)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다시 한번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나를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었고, 이 기회를 통해 나는 내 말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다. 오늘의 수업은 1시간의 공개수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나의 한편의 성장 Drama였으며, 그 성장 Drama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았다.

맞춤형 학습을 통한 실력 팽팡

하점초등학교 교사 김경태

운영내용1 학력관리 시스템 - 개별화 관리

☐ 하나. 학업성취 이력 관리

- ☞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교생의 모든 평가 내용을 관리함으로써 적절한 지도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함
- ☞ 학생들의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이력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였고, 당해연도에는 학년평균과 자신의 성적을 비교함은 물론, 모든 시험의 결과를 그래프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두울. 개별화 학습 보조

- ☞ 학업성취도 수준에 맞는 개별화 교재를 학교에서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진한 학생들은 학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음
- ☞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담당 멘토링을 실시하여 학습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운영내용2 수준별 수업 활동 - 수월성교육

☐ 하나. 영재교육 단위학급 개설

- ☞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영재 교육을 실시하여 수학,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탐구 경험을 제공함
- ☞ 아두이노, 과학 발명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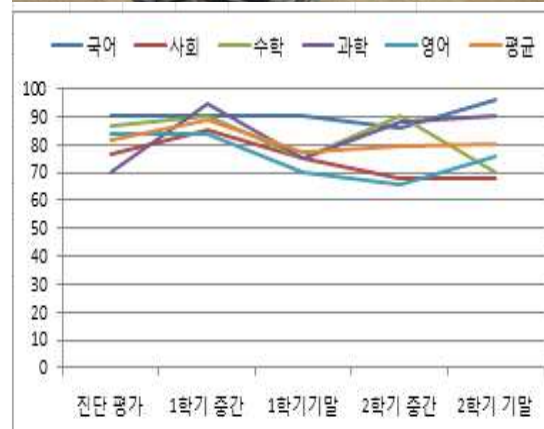
☐ 두울. 영어 수준별 교육 실시

- ☞ 영어 학습을 수준별로 할 수 있도록 영어전담, 영어전담강사, 국내토크강사, 해외토크강사가 1학년을 제외한 전학년을 수준별로 반편성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수업을 실시
- ☞ G2A 영어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영어에 흥미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



운영성과 및 제언

- ☞ 2012년 진단평가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부진과목이 총 19개였던 반면 2013년에는 13개였고, 2014년에는 5개에 불과함
- ☞ 한글 이해독자 및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으며, 교과부진 학생들도 꾸준히 학력이 향상하고 있음
- ☞ 학력향상교실은 교사의 열의와 꾸준한 지도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



따뜻한 마음으로 큰 꿈 키우기

조산초등학교 교사 오종원

작은 꿈 씨앗 찾기

- ☐ 정서행동장애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부진학생 선정
 - ☞ 교과학습 부진학생 및 경계선상 학생 대상
 - ☞ 학습종합진단검사를 통한 문제영역 분석
 - ☞ 학부모 상담을 통한 가정환경적 학습 부진 요인 분석
 - ☞ 학생 상담을 통한 학습자 심리적 학습 부진 요인 분석
- ☐ 학력향상 뿐만 아니라 정서순화, 돌봄기능 강화, 외부 치료 등 학생에게 맞는 다중 지원 시스템을 구축
 - ☞ 두드림학교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 확보
 - ☞ 학습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단위학교 내 두드림학교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토양 다지기

- ☐ 기초 튼튼 두드림교실 운영
 - ☞ 다면적 학습 부진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학급편성 운영
 - ☞ 학력분야 담임교사 책임지도제 실시로 학생 관리 철저
 - ☞ 겨울방학 학습클리닉 캠프 운영
- ☐ 개별학력관리 카드를 통한 학력이력관리
 - ☞ 입학부터 졸업까지 개인별 평가 결과 및 심리검사 결과를 누계 기록하여 학생의 성취수준을 쉽게 파악
 - ☞ 학생 진급시 자료 인계로 지속적인 지도 보장

따뜻한 마음으로 큰 꿈 키우기

- ☐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 정서적 안정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 집중지원학생 2명 대상 35회차 실시
 - ☞ 가족, 친구, 선생님과 식사하기
 - ☞ 생활 및 문화 수준 향상시키기
- ☐ 미술 치료 활동을 통한 정서 안정
 - ☞ 소그룹 단위 미술치료 프로그램 25회차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내가초등학교 교사 채희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으로 가르치는 일이 행복한 교사

● 수업의 질을 높이는 학습지원 체제 구축

세부 과제	실천 내용	실천 방법
수업중심학교문화를 위한 행정업무경감	·수업 중 전화, 팝업, 메신저사용 자제 ·불필요한 회의 자제 및 각종위원회 통폐합 ·초과근무자 복무관리 간소화	·업무의 위임, 전결권 확대 ·행정업무의 합리적 조정으로 업무 프로세스 조정 운영 ·'지문인식기' 도입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	·지리적으로 불리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ICT활용교육 및 스마트교육으로 개별화 교육 실시	·학생용 태블릿PC 구입(총 15대) ·무선AP시스템 구축(기 구축) ·1:1 맞춤형 교육, 학생 간 멘토:멘티 스마트교육 운영
교육과정 개선 TF팀 구성	·학교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교육과정 TF팀의 조직, 운영	·교사 연구시간 확보 노력 ·각종 위원회 통폐합 운영
교수-학습을 위한 교사-학생 지원체제 강화	·교사 수업 연찬을 위한 각종 연구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수업실기대회, 현장연구 활동 지원 - 컨설팅 교사 1:1 매칭 지원 ·과학탐구동아리, 영어G2A동아리, 환경동아리운동을 통한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교사 활동 지원
교사 상호 민주적 협의체제 운영	·전문성신장 필요한 전문가 멘토지원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는 교사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	·전교사 협의체중심 토의, 토론 수업 협의 문화 개선 ·형식적, 일방전달식 직원회의 탈피

● 지역 인프라 활용을 통한 지역-학교-사회 공동체 구성

세부 과제	실천 내용	실천 방법
3개교 공동 두레교육과정	·내가지구(내가,명신,하점) 3개교 두레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활성화 및 업무 경감	·3개교 공동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를 통한 소규모학교 체험활동 다양화 및 활성화 노력 ·두레교육과정 협의회 실시를 통한 교육 활동 활성화 노력
도-농 MOU를 통한 문화교류 확대	·도시(만수북)-농촌(내가)학교 MOU체결을 통한 도농 간 문화 이해 노력	·도시체험학습 - 송도, 차이나타운 ·농촌체험활동 - 용두레마을, 고구마캐기
지역사회 MOU를 통한 교육활동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부 MOU체결로 내가(고려)저수지 수질보호개선 노력	·내가(고려)저수지 수질보호개선 노력 ·환경보호 활동 및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실시



강화 역사를 발로 새기고 있는 향토사연구회

강화여자중학교 교사 신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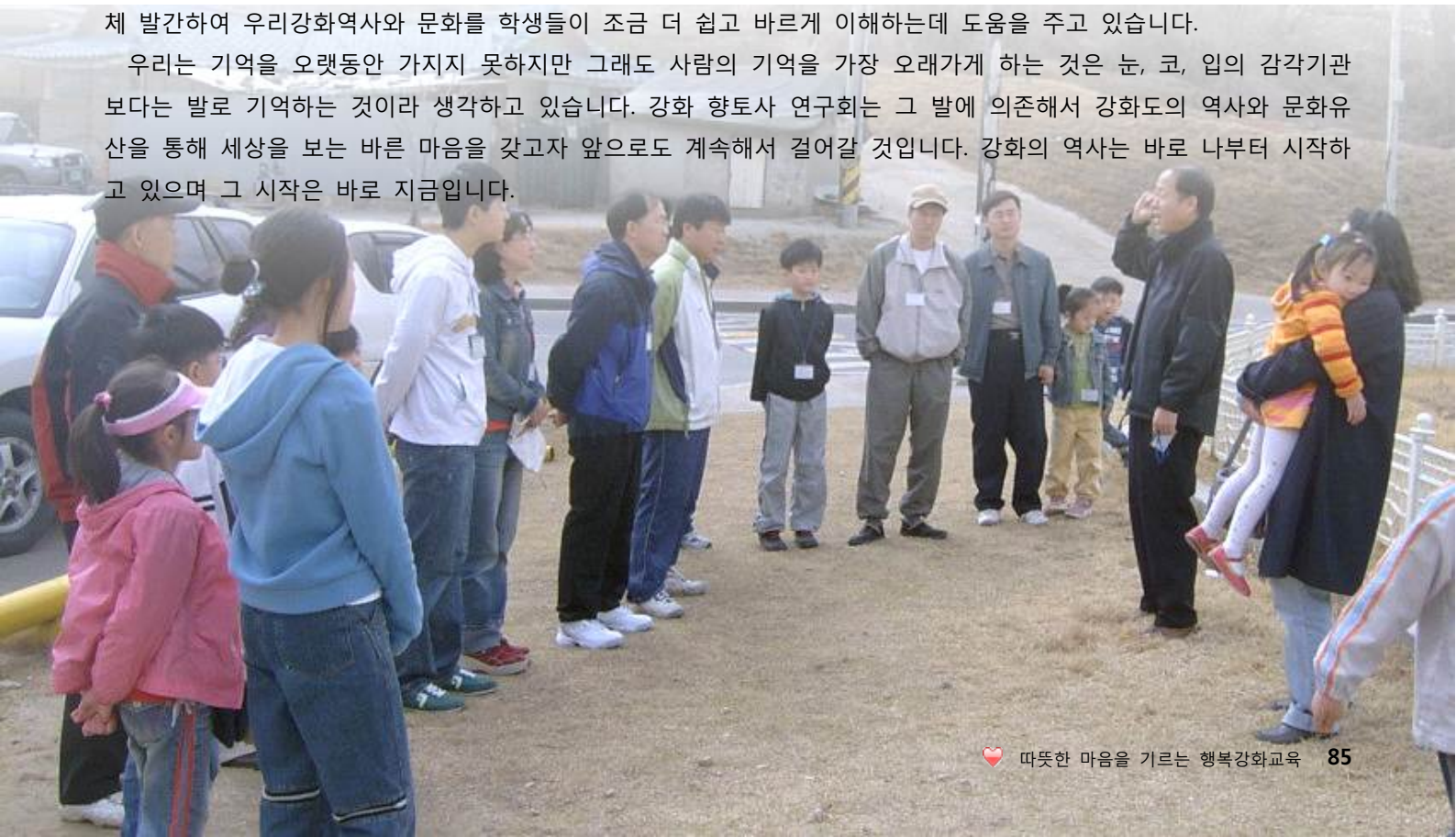
오늘의 삶은 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내일의 삶은 오늘을 기초로 하듯이 인간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듯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우리들 삶의 기운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하여 조상들이 가꾼 과거의 삶의 흔적은 더 없이 중요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곳 강화에는 고대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되어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직접 체험하고 느껴봄으로써 조상들의 슬기와 사상을 배워 문화 중심 시대의 주역으로서 필요한 문화적 상상력을 키워 나감은 물론 강화 향토사랑에 대한 애향심을 갖기 위해 향토사 연구회는 만들어 졌습니다.

지난 2008년 강화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몇몇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한 강화향토사 연구회는 현재 초등과 중등 선생님들 구분 없이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8년째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향토사연구회는 다른 교사 동아리나 모임과는 다르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과 늘 함께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화도의 많은 문화유산에 대해 단순히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닌 선생님이 느끼고 배운 모든 감정과 이야기들을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교사중심의 연구회가 아닌 강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연구회로 지금까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강화향토사연구회에 참여하였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는 어엿한 역사연구가를 꿈꾸는 고등학생으로 자라 있는 것이 바로 강화향토사 연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향토사 연구회는 강화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책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단계에서 벗어나 책이나 인터넷에서는 결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당 역사와 문화의 전문가들에게 직접 듣고 배우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배운 새로운 강화역사와 문화에 대해 미래의 역사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강화역사 답사 자료집」을 자체 발간하여 우리강화역사와 문화를 학생들이 조금 더 쉽고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오랫동안 가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기억을 가장 오래가게 하는 것은 눈, 코, 입의 감각기관보다는 발로 기억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 향토사 연구회는 그 발에 의존해서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바른 마음을 갖고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강화의 역사는 바로 나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인성교육의 씨앗은 강솔바람을 타고

강남중학교 교사 고윤미

2013년 7월에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교사 5명이 모여 시작한 인성교육동아리는 2014년 7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솔바람(동아리명)의 구성원은 같은 학교 근무하는 교사로서, 국어, 수학, 음악, 체육, 도덕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다움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에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성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교사들이 모였기에 참여의지는 매우 높으며,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은 누구 못지 않은 교사들이다. 또한 동아리 소속된 교사 이외의 교장.교감 선생님의 인성교육에 관심은 매우 높으며, 다양한 인성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다.

본교에서 동아리 주관으로 운영한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성, 독서 책자를 발간하여 연중으로 활용하였다. 도덕과에서는 「마음으로 여는 따뜻한 세상」인성자료집, 국어과에서는 「책으로 만나는 따뜻한 세상」독서자료집을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자체 제작하여 전교생에게 배부하였다. 인성자료집은 서약서 쓰기, 효 실천의 3단계, 생활 속의 효도의 방법 찾아보기, 효행일기, 칭찬일기, 대화속이 피어나는 가족사랑, 지역사회와 관련된 효행이야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2014 독서자료집은 국어과에서는 윤독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책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적용하고 있다.

오케스트라.합창.인성.독서 캠프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1인 1악기 배우기를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중점으로 두었다. 1.2학년은 3월부터 악기를 배우는 방과후 활동을 실시하고, 3학년의 경우 합창을 통해 다른 친구들과의 하모니를 이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방학이 되면서 그 부분을 중점을 두어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적용하려고 하였고, 음악뿐만이 아니라 독서, 효, 인성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1학기동안 강솔바람 회원들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캠프를 운영하였다.

사제동행 인성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적 특성상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해 줌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없는 나눔과 소통이 있는 사제동행 한마음 야영대회, 소규모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연중으로 실시하여 강화역사박물관에서의 청자 만들기 체험, 에버랜드 체험, 마니산 개천대축제, 대학로 예술극장 연극 '용의자 X의 헌신' 등 수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문화체험활동을 하고, 교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호응도 좋았으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이외에도 인성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하였으며, 인성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에 지원된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 컨설팅도 2014년 7월 17일 전교사가 참여하였다. 동아리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교사들의 인성교육 수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함께 인성교육에 대한 고민은 나누기 힘들었다. 동아리가 구성되고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교류하는 활동을 수시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협력학습과 함께한 창의인성수업연구회

길상초등학교 교사 이훈석

-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 시작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에 적용
- 1학기 3개 단위, 2학기 3개 단위 교수학습자료와 학습지 개발
- 핵심성취기준과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시간을 거스르는 자!’ 우리 고장 뽕뽕(生生) 시간탐험대 사회 수업
- 뽕뽕한 사회수업을 통한 미래형 창의인재 육성 -

실천과제 1 (준비하기)

‘뽕뽕 시간탐험대’ 활동기반 조성

실천 내용

- 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내용 추출 및 교육과정 재구성
- 나. 핵심성취기준을 적용한 학생참여수업 계획 수립
- 다. 뽕뽕 시간탐험대 스토리텔링 구성

실천과제 2 (실행하기)

뽕뽕한 사회수업을 통한
미래형 창의인재 육성

실천 내용

- 가. 뽕뽕 시간탐험대 조직 및 활동 계획 수립
- 나. 뽕뽕 시간탐험대 ‘시간을 거스르는 자!’ 실행하기
- 다. 뽕뽕한 사회수업을 통한 미래형 창의인재 육성

- ◆ 뽕뽕(生生) 시간탐험대 활동을 통하여 고장의 생활모습 역사 인식하기
- ◆ 뽕뽕(生生) 시간탐험대 활동 결과를 적용한 뽕뽕한 사회 수업 전개
- ◆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로 미래형 창의 인재 육성



교육연극과의 행복한 만남

교동초등학교 교사 임육

운영의 목적

- 가. 창의연극놀이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 적용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함
- 나. 우수연극 관람을 통해 현대연극의 흐름과 교육현장 적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다. 어린이연극대회 관람 및 어린이연극 보급을 통해 어린이 연극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현장교사들의 지도 능력을 고무시키고자 함

활동 내용

첫 번째 만남 : 창의 연극놀이 연수를 통한 수업적용 방향 모색

월 일	활동 내용
04.23. (수)	- 교육연극 연수 (역할극)
05.23. (금)	- 연극놀이 연수 (줄 인형극)
06.25. (수)	- 연극놀이 연수 (해설이 있는 판토마임)
09.26. (금)	- D.I.E 와 T.I.E를 적용한 연극수업
10.18. (토)	- 어린이연극 지도 방법
12.17. (수)	- 인형 제작 연수 (손가락 인형)

두 번째 만남 : 우수 연극 관람을 통한 현대연극의 이해 도모

월 일	활동 내용
05.23. (금)	- 우수 어린이연극 관람 <제랄다와 거인>
06.13. (금)	- 전국 연극제 출품작 관람 <꽃신>
07.18. (금)	- 우수연극 관람 <연극 라이어1탄>
11.21. (금)	- 우수연극 관람 <연극 유도소년>

세 번째 만남 : 어린이연극대회 참가 및 세미나를 통한 어린이연극지도방법 모색

- 가. 일시: 2014. 11.9 (일) 16:00 ~ 19:00
- 나. 장소: 인천문화회관소극장(수봉문화회관)
- 다. 내용: 제 25회 교육감배 어린이연극 경연대회 관람 및 지도 방법 연수
어린이연극 발전 모색 (세미나)
- 라. 대상: 인천지역 교사극회 회원 및 희망교사
- 마. 강사: 인경훈 (마곡초등학교 교사)

활동 효과

- 가. 현장중심의 창의연극놀이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 적용 능력이 향상되었음
- 나. 다방면의 연극 관람을 통해 현대연극의 흐름을 파악하여 교육현장 적용방법을 찾음
- 다. 어린이연극대회를 관람하고 지도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어린이 연극 지도에 대한 방법을 인지하였고 긍정적 이해를 가짐

발전 방향

- 가. 다양한 연극연수기회와 우수관람을 통해 교사들의 문화적 소양을 배양하고 현장수업적용의 방법과 기회를 마련할 자료집 제작
- 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순회공연단을 초청하여 관람의 기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인성 지도의 기회 마련
- 다. 교사극회에서 주최하는 인천어린이연극경연대회에 강화지역 학교가 참여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직접 연극을 경험해보는 계기 마련



창의인성교육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과학교육

양사초등학교 교사 주원석

목적(취지)

과학교육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며,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개발 연구를 실천하고,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과학·수학 체험전, 녹색성장 교실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융합 기술 사회의 변화에 따른 과학교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 함양 및 현장교육의 질정향상을 도모한다.

운영방침

설문조사를 통해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 지도에 필요한 내용과 과학경진대회와 관련한 지도 방법 및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자율연수를 통해, 생활 속 과학원리 찾기, 과학에 대한 흥미 높이기 및 과학의 저변 확대에 힘쓰며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 및 세미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STEAM 교육과 녹색성장교육에 힘쓰며, 특히 녹색성장분과는 연1회 녹색성장교실을 따로 운영계획을 세워 실시한다.(교육청 별도예산 지원)

세부추진실적

중점활동구분	월	활동내용	장소
과학행사 지원체제 강화	4	과학탐구대회(에어로켓) 지도방법	강화초
	10	강화 과학·수학체험전 지원	강화중
	11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지도방법	양사초
탐구·실험중심 과학교육지원	5	과학완구를 활용한 수업개선방법	과학관
	9	과학수업에서의 시뮬레이션 활용 방안	강화초
	7	과학 현장체험(과학영화감상)	롯데시네마
녹색성장 교육지원	6	천체망원경의 구조와 조립	과학관
	7	태양광 활용의 웨플러 조리기 사용법	과학관
과학교사의 마인드형성	3	연구회 조직 및 설문조사	갑룡초
	7,12	과학교육활동 활성방안을 위한 간담회	과학관 및 식당
	12	과학도서 독서토론	과학관

활동효과

과학과 학습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연수를 통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여러 과학경진대회 지도에 자신감과 과학적 사고를 함양하고 및 과학의 저변확대에 도움이 되었다.

발전방향

양질의 강연, 세미나를 통해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지식공유는 물론, 발명 및 녹색성장교육 발전을 모색하여야 하며, 아울러 교사들의 참석율을 높이기 위한 연수활동에 대한 현장 의견 반영과 함께 교육청에서의 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신규교사 소연쌤의 학교적응기

길상초등학교 교사 김소연

설렘과 긴장으로 시작했던 첫 출근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신규교사로서의 첫해가 마무리 됩니다.
세월이 지나 남들과 달랐던 강화에서의 시작한
신규교사로서의 한해를 회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선부른 판단일 수 있으나 그래도 괜찮은 시작이었다고 추억할 것입니다.
이곳은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과 열정 가득한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4월말 : 기다리던 발령 전화

4월 말쯤 기다리던 발령전화가 왔습니다. 장학사님께서
는 강화로 발령이 났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장학사님께서
는 위로하듯이 1년만 있으면 다시 인천으로 나올 수 있
다고 하지만 중간발령이니까 2년 후에는 나올 수 있다
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하셨습니다. 강화 발령!!! 저를 충
격으로 빠뜨린 소식이었습니다. 우선 학교와 집의 거리,
교통편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이 걸렸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은 강화에 집을 알아봐라,
이번 기회에 운전을 배우라며 다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왕복 4시간이상을 출퇴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컸습니다. 더욱이 주변 선생님들께서는 '강화에
가면 업무가 많아서 울면서 밤까지 일해야 한다.'며 겁
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선배 선생님들은 강화에서 교
직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말씀해 해주셨
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걱정과 위로를 들으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꿈꾸던 교사 생활의 시작
이다.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자.'

2014년 5월 : 신규교사 시작

교사 생활의 첫 학교. 강화교육지원청으로 마중 나와 주
신 교무부장님의 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첫인
상은 예쁜 학교구나였습니다. 교생실습과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다녀본 여러 학교 중 가장 예쁜 학교였습니다.
약간 작은 듯한 본관과 그 앞의 넓은 잔디밭, 영어체험
센터와 함께 있는 실내 체육관 그리고 별관. 작은 학교
인데 시설은 모두 갖춰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만 쭉 자라
서 시골학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던 5월에 처음 본 학교의
느낌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5월 중간 발령이었
기 때문에 학교생활이나 학생들을 파악할 여유 없이 출
근 첫날부터 수업시작이었습니다. 전담교사로서 과학수

업을 하였고 방과후 수업, 동아리 수업까지 하면서 생각
보다 많았던 수업시수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
담교사로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업을 하니깐 많은 학
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담임이 아닌 전담교사로서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수업에만 신경을 쓸 수 있었습니
다. 신규교사로서 교재연구와 업무처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전담교사가 담임교사보다 시간적 여유
가 조금은 더 있었습니다.

2014년 2학기 : 좌충우돌 업무집행

과학 전담교사를 하면서 과학교육업무를 맡고 있었습니
다. 1학기에는 특별한 일없이 문서처리를 하며 과학업
무를 하였고, 드디어 2학기에 단독으로 진행하는 두 가
지의 과학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화 과학수학
체험전이었습니다. 처음에 부스에서 체험전을 할 주제를
잡는 것부터 어려움이었습니다. 과학수학체험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경험이 없었고 학교 밖으로 학생들
을 인솔해서 참가한다는 것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교무부장님과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체험전을 준비
하고, 부스 운영 도우미 학생들과 함께 부스를 운영하며
체험전을 즐겁게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내에서하는 길상사이언스 행사였습니다. 각
각의 부스를 운영하는 도우미 교사로서 19명의 학부모
님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규교사로서 학부모
님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
사계획서, 학부모 사전교육, 식사문제, 행사장 준비 등
사전에 점검해야하는 부분이 무척 많았습니다. 행사날짜
변경, 각 학년 교육과정 수정, 행사 정리 미흡 등 크고
작은 사건들과 함께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
지막에 선생님들께서 신규교사가 삼일간의 행사를 단독
으로 진행하고 치러낸 것은 기특한 것이라며 어깨를 다
독여 주셨을 때는 그 동안의 노력이 보상 받는 기분이
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에피소드1. 학생들



강화에 와서 인천 시내의 학교와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인천 시내의 학교에서 만났던 학생들과는 달랐습니다. 5월의 만남 우리 학생들. 처음 느낌은 밝음이었습니다. 시내 일부 학생들, 특히 고학년일 경우에는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심하게는 선생님을 적대시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6학년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에게 기피학년이 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대할 때 호의적이고 긍정적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스스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버릇이 없거나 예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김살이 없고 밝았습니다. 학생들이 과학실을 지나면서 창문을 보고 밝게 인사를 건넬 때 내가 교사인 것이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으며 자라왔기에 이런 모습일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인성적인 부분과 함께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업성취도였습니다. 요즘 학교교육에서 어려움 중의 하나는 교실에서의 학생들을 학업성취 수준의 격차일 것입니다.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커서 수업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간이상의 성취도를 보입니다. 물론 모두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위권 학생들이 매우 적습니다. 강화의 학생들은 시내의 학생들보다 사교육을 적게 받고 문화적 경험을 접할 기회가 적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지역교육청과 학교, 교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피소드 2. 학교의 문화

작은 학교. 학년 당 2학급. 처음 경험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교사수도 적고 학생 수도 적었습니다. 그 속에서 학교 공동체라는 것을 느낍니다. 교장선생님께서서는 전교생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선생님들도 담임 반 학생들은 물론 다른 반, 다른 학년의 학생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때 담임선생님뿐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도와주고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신규교사에게 이러한 학교 분위기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행사를 진행할 때, 담당자뿐이 아니라 모든 교사가 함께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저녁이나 주말의 행사를 위해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교사로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학교에 대해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쁩니다. 서로 편하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주는 학교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학교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피소드3. 불편함

강화에서 교직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교통입니다. 평생 두벽이로 살아오면서 자가용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운 영하의 날씨에 벌벌 떨며 30분 이상 버스를 기다리는 경험이 쌓여가면서 현재 겨울 방학 계획 1순위는 면허따기입니다. 이곳 강화에서의 배차간격은 한 시간은 기본, 두세 시간인 버스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먼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지만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버스를 기다리려 합니다.





강화의 자연과 역사를 함께 배우는 마니골 체험학습

화도초등학교 교사 류성진

2014. 4. 9 (수)

마니산 자락에 위치한 우리 화도초등학교는 마니산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탐구하는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 우리 고장의 자연적, 문화적 유산을 바르게 알고 강화도를 사랑하는 정신을 기르고자 「마니골 체험학습」을 1년에 4번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오늘은 첫 번째 순서인 '강화나들길 걷기 체험 행사날'이다.

학교 버스를 타고 우리들이 도착한 곳은 화도면 여차리 입구! 버스에서 내린 우리들은 강화 나들길 7-1코스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왼쪽으로는 강화의 최고봉 마니산을, 오른쪽으로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광활한 강화갯벌을 바라보며 걸었다. 여차리 입구에서 미루지 돈대까지 약 4km의 거리를 걸으며 몸은 좀 힘들었지만, 우리 고장 강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014. 7. 17(목)

마니골 체험학습 두 번째 시간인 '갯벌탐사' 날이다. 화도면 장화리에 있는 해양환경체험학습장에 도착한 우리들은 갯벌 전문가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갯벌생물 사진을 보며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갯벌 설명에 푹 빠져들었다.

드디어 갯벌로 들어가는 시간!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갯벌로 들어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친구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와! 여기봐! 게가 막 기어다녀!" 멀리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았던 갯벌에 이렇게 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세계 5대 갯벌이라는 우리 강화의 갯벌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2014. 9. 26(금)

'마니산 계곡 탐사'에 나섰다. 우리 학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산이면서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마니산 함허동천 계곡에 들어섰다. 나무목공예로 각자 자기만의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건 우리들은 울창한 숲을 보며 시원하고도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졸졸졸 흐르는 맑은 계곡물에 직접 들어가서 물장난도 치면서 놀았다.

2014. 10. 29(수)

마니골 체험 마지막 순서인 '강화 역사 체험'날이다. 강화역사박물관 안에 전시된 여러 가지 유물들을 관람하며 조상들의 슬기를 배우고, 외세의 침략에도 굳세게 맞서 싸운 용기도 배웠다. 그리고 강화역사박물관 밖에 있는 고인돌을 관람하면서 우리 강화도에 그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도 새삼스럽게 자랑스러웠다.

손바닥 안에 세상을 담다

교동초등학교 6학년 나웅균



어느 날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이 우리 학교에 찾아왔다. 스마트패드를 개인에게 한 개씩 나눠준 것이다. 너무나 신나는 일이었다. 담임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스마트패드를 사용했는데 덕분에 수업이 더 즐거워졌다. 픽사 이 어플로 사진자료를 꾸미거나 마인드맵 어플로 내용을 정리를 했다. 특히, 퀴즈나 시험을 핑퐁 어플로 답하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스마트영상부활동을 시작했다. 기본적인 활동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영상부 활동을 해보니 스마트패드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생각했다.



먼저, 기획시간에 선생님은 콘티를 짤 수 있는 어플을 알려주셨는데 이 작업이 영상 만들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다. 만화처럼 펜으로 그림을 칸에 맞게 그리는 활동도 하고 그림을 연결하는 어플을 통해 플립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했다. 난 특히 플립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는데 애니메이션 한 장면이 이렇게 많은

컷이 들어가는지 처음 알았다. 선생님은 생명존중, 학교폭력예방, 행복, 사랑 등 의미 있는 주제를 자주 주셨는데 독특한 생각을 조별로 토론하고 시놉시스, 콘티, 시나리오를 쓰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을 만들려면 여러 팀이 필요한데 나는 감독보다 촬영 쪽에 관심이 많았다. 모둠끼리 역할을 나누어 주제에 맞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초고속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서 공중부양 영상도 만들거나 원하는 사진을 골라 그 사진 안에 자기PR영상을 합성했다. 물론 자기PR영상을 음성변조어플을 이용해서 재미나게 꾸몄다. 또, 소품을 이용해서 지상으로부터 5cm의 세상을 찍기도 했다.

신기했던 활동은 크로마키활동이었다. 선생님은 뉴스의 일기예보 때 많이 쓰는 기법이라고 하셨다. 하얀색 보드를 배경으로 007 흉내 내기, 사자 만지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춤추기, 용으로부터 도망치기, 걸리버 되어보기, 스타워즈 광선검 휘둘리기



등을 해보았다. 하얀색 배경이 다른 영상으로 입혀지는 게 신기했고 어색하긴 했지만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알 것 같다.



재미있었던 활동은 스톱모션어플을 이용한 수업이었다. 두 개 팀을 나눠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 우리 팀은 클레이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스마트패드를 거치대에 고정한 뒤에 클레이를 조금 움직이고 한 프레임씩 영상을 찍었다. 스마트패드가 흔들리고 제작을 맡은 친구가 클레이 모양을 영성하게 만들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중에 미리링으로 영상을 보니 진짜 클레이가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났다. 선생님이 주제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고 칭찬해주셨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다른 팀은 레고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확실히 딱딱해서 그런지 우리보다 어색했지만 친구와의 관계를 레고로 잘 나타낸 것 같아서 보기 좋았다. 영화에서만 보았던 스톱모션을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스마트패드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그런지 영상 만들기에 자신감이 생겼다. 작은 게임기라고 생각했던 스마트 패드가 이렇게 재미난 공부도 가능하니 좋고 내 생각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게 짜릿하다.

초등학교 마지막 1년의 행복

서도초등학교 6학년 이찬용

2014년, 5학년이 끝나고 6학년이 되었다.

6학년 1년 동안 다닐 초등학교는 서도 초등학교였는데 강화도 외포리 선착장에서 배타고 약 1시간 30분 정도를 가야하는 주문도 섬에 있는 초등학교였다. 5년 동안 인천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섬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려니 기대감과 설렘이 많았다. 어떤 점이 다른지도 궁금하였다.

마침내 전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처음 3,4월엔 인천에 있는 학교와 어떤 점이 다른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인천에 있는 학교와 어떤 점이 다른지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곳 학교에 점점 적응되어 갔다.

이곳은 시내에 있는 학교와 차이점이 있었는데 먼저 이곳은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넷북을 지급하여 주었다. 시내에 있는 학교는 정해진 시간에만 컴퓨터실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공용이었다. 그리고 이곳은 시내에 비해 학원은 없지만 무료로 방과후를 등록시켜 준다. 방과후의 종류에는 오카리나, 진로, 사물놀이, 영어 등이 있고 요일마다 바뀐다. 그래서 여러 과목을 배울 수 있는 점이 좋다. 시내에는 방과후가 따로 있긴 하지만 돈을 내야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시

간이 한정되어 있다. 이곳은 전교생이 12명인 작은 학교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좋은 점도 많고 유익한 점도 많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섬에 있는 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직접 와보니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섬에 있는 학교도 좋은 점이 많았다. 이곳은 문제집, 교재도 무료였고 현장학습비도 무료였다. 반면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문제집, 교재는 각자가 사야 하였고 현장학습비도 내야하였다.

내가 1년 동안 서도초등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행사는 현장학습과 서도 어울림 축제다. 먼저 현장학습이 왜 좋았냐면 많은 체험을 하였고 현장학습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갔던 현장학습에서는 첫날에 잡월드(Jod World)를 갔다. 잡월드는 말 그대로 직업의 세계인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로 그 직업을 경험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현장학습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둘째 번 날에는 임진각과 도자기체험, 헤이리마을 등을 갔었는데 임진각에 가서는 제 3땅굴을 견학했고 전망

대도 갔었다. 도자기 만드는 곳에서는 직접 물레를 돌려 도자기를 만들고 그림도 그렸다. 이 외에도 치즈만들기, 송아지 우유주기, 뽕튀기 체험 등 시내의 많은 아이들과 같이 가서 해볼 수 없는 정말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을 했었다.



우리 서도초등학교의 큰 자랑거리이며 주문도의 큰 잔치인 서도 어울림 축제는 많은 활동 경험과 우리들의 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 초등에서는 사물놀이, 오카리나, 부채춤 공연을 하였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1년 동안 학습한 결과물을 전시해 놓은 작품을 둘러보기도 하고 주민들과 함께 점심식사도 하였다.

내가 3월에 왔을 때 섬에 있는 초등학교라기에 행사도 별로 안 하고 조용한 섬마을 작은 학교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문도와 우리 서도초등학교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고 시내에 있는 학교에 비해 모든 면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시내에 있었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반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매일 떠들썩하였다. 하지만 이곳은 전교생 12명은 물론 중·고등학교 형, 누나들과 형제, 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며 선생님들께서도 부모님들처럼 우리들을 아껴 주시고 다정하게 생활하는 것이 시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겨운 모습들이다. 또 선생님은 다양한 지식을 잘 가르쳐주시고 일대일로 공부하기 때문에 학습효과도 정말 좋다. 그리고 소인수 학급에서만 누릴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신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지낸 초등학교 마지막 1년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자유학기제를 처음 접했을 때 “공부 할 시간도 부족한데 웬 자유학기제?”라고 생각했었다. 다른 중학교 학생들과 만나면 어색해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부담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체험해보니 공부에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많은 것을 느낄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지금은 만족스럽고 나를 포함한 우리 친구들이 행운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유학기제를 체험하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나의 장래 희망과 진학에 대해 곰곰 생각할 기회를 가진 것 또한 커다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너무나 다양한 종합세트 자유학기제 활동을 하고 있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그 중 몇 가지에 대해 나의 생각을 말해 보려고 한다. 월요일 “신명나는 토론 교실”을 통해 ‘안락사’, ‘양성평등’, ‘치매 부모님을 누가 돌보아야 하는가?’, ‘저출산의 문제점’, ‘보신탕’ 등 처음에 접했을 때 골치가 아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글을 이해하고, 나의 의견을 주장할 정도의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 것 같아 내가 자랑스럽기도 하다. 한 번은 “사형”이란 주제로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나는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사형뿐이라고 생각하여 사형제도에 찬성을 하였는데, 다른 친구들의 의견은 나와 반대로 감옥에서 오래 복역 하게 되면 그게 더 무서운 형벌이

자유학기로 진로를 탐색하다!

강서중학교 2학년 박민서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그 의견도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화요일에는 “체육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학교 체육 시간의 연장이라기보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강화 고인돌 테니스 클럽에 가서 테니스를 칠 기회도 가졌고, 플로어볼, 피구, 골프, 인천아시아게임을 관람하기도 하였다. 더욱 좋았던 것은 우리 학교에는 실내 체육관이 없어 바람 때문에 배드민턴을 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양사초등학교 체육관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면서 배드민턴의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 같다. 체육 선생님이 우리들의 배드민턴 실력이 눈에 보일 정도로 발전했다는 말에 자신감도 느껴 보았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친구들은 체육 대학에 진학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수요일에는 “진로탐색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강화의 진로 활동 기관을 모두 가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공세알 공장에 가서 두부도 직접 만들어 보았고, 버섯도 직접 따는 체험도 해보았으며, 농촌 체험으로 토마토 농장 견학도 했고, 소리체험 박물관에서 소리의 새로운 면을 보았으며, 목공 체험 시간에는 처음으로 만지를 뒹집어쓰면서 사포질하고 색도 입혀서 연필꽂이도 만들었다.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도구를 사용해 보는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 너무 좋았다. 제일 인상 깊게 남았던 체험은 강남영상미디어 고등학교에 가서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해 보았던 것이다. 강남영상미디어 고등학교 방송국 안에 있는 녹음실을 보면서 강화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자유학기제가 아니었으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멋진 체험을 통해 지금까지 생각도 하지 않았던 분야에 관심이 갈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

목요일에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리는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쿠렐레반’, ‘요리반’, ‘바리스타반’, ‘방송댄

스반’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각 반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원하는 대로 활동할 수는 없지만, 나는 1기에 ‘방송댄스’를 선택하여 체험하였고, 현재 2기에는 모든 학생이 원하는 ‘바리스타반’에 운이 좋게 선발되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평소 요리와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재미있게 체험할 것 같아 많은 기대가 된다.

금요일에는 “미술 활동”을 하고 있다. 강화의 여러 미술관 견학을 다니면서, 관장님들의 수준 높은 예술 강의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으로, 내 손으로 ‘손수건 꾸미기’, ‘오르골 만들기’, ‘압화 만들기’, ‘삼각시계 만들기’, ‘휴지각 만들기’ 등 실용적이고 유용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소중한 체험을 하면서 내 솜씨가 부쩍 늘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자유학기제 때문에 학습시간이 줄어들어 공부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공부에 소홀해지고 여기저기 체험을 다니면서 피곤하고 힘든 적도 많아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차라리 더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내가 생각하는 장래희망과 일치하지 않는 분야가 많아 아쉬운 점이 있고, 자유학기제는 공부에서 벗어나 장래희망을 찾는 프로그램인데, 체험만으로는 내 장래희망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내 1년 후배들은 우리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잘 해서 자유학기제를 체험하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3학년이 되어서 자유학기제를 더 체험할 수는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쉽고 다시 경험하고 싶은 활동이 될 것 같다.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니지만 자유학기제를 보내며 정말 유익했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앞으로 남은 자유학기제의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 보겠다고 다짐한다. 자유학기제! 고맙다!

아이들과 함께 공감하며 즐거움이 쏙쏙

강화여자중학교 교육복지사 구옥순

계층간 소득 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등으로 초래하는 사회통합의 위기 상황에서 교육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 등 5개 영역의 통합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등을 갖추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있다.

느낌있는 어울림으로 우쿨렐레와 함께 소통하기

강화여자중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4년차 학교이다. 언제나처럼 이태호 교장선생님의 꿈과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힘찬 격려로 사업은 시작된다.

우쿨렐레 악기를 통해 문화적 예술적 기회가 취약한 학생들에게 즐거운 시간이기를 희망하면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쿨렐레 외부강사 수업을 시작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악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기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우쿨렐레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쁨을 만들어 주었다.

“너무 좋아요.”

“재미있어요.”

“태어나서 악기는 처음 만져 보았어요.”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짝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가정 형편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점심시간이나 하교시간을 이용하여 교육복지실에 모여서 연습을 한다. 저 또한 옆에서 재능기부활동으로 음 조절을 위한 튜닝이나 처음 만져 보는 학생들을 위해 우쿨렐레 잡는 자세를 바로 잡아 주며, 코드 잡는 방법, 악보 보는 방법 등 아이들과 악기를 통해 함께 공감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교축제인 은수예술제 장기자랑 부문에서 우쿨렐레 연주는 3등이라는 성과를 얻었고. 청소년시설인 ○○원 방문 봉사활동, ○○요양원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다음 달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재능나눔 기부활동을 할 예정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

지역사회내의 기관과 연계교육 함으로써 가정에 지역사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고, 음악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며 악기 연주에 대한 즐거움과 함께 자존감 향상과 성취감 등은 학생들을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신의 흥미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늘 자존감이 낮던 학생들도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 시험기간에 교과선생님에게 다가가서 질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등의 변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모든 학생들이 생활태도 및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는 없지만 교실에서 있는 줄도 모를 만큼 없는 듯 지냈던 학생들이 교육복지실 출입문 앞까지 가득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큰소리를 내어 웃으며 즐겁게 보드게임 놀이도 하고, 신생아모자뜨기 캠페인 체험활동으로 삼삼오오 모여앉아 심리정서 프로그램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체험도 하면서 오늘도 교육복지실은 행복하고 즐거운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하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우리사회와 아름다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재능기부! 마음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

강화여자중학교 학부모 김선숙

마트에서 고른 물건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무슨 보물처럼 지갑에 넣은 다음, 집에 와 사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한참이 지난 후, '덜컹' 무언가 일이 잘못됨을 느꼈다. 구매한 물건들 중 32롤짜리 두루마리 휴지를 마트에 놓고 온 것이었다. 참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다. 건망증이 이렇게나 심할 줄이야. 이런 내가 요즘 겁도 없이 공부를 시작했다.

그 공부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복지 분야이다. 사회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공부하며 전에는 몰랐던 복지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알았고 또한 다양한 과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복지업무를 체험해 보기도 하였다. 그중 이론이 아닌 실직적으로 복지현장에 맞닥뜨려진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교육복지 차원에서의 재능기부였다.

강화여자중학교 교육복지사 선생님께서부터 우리 교육복지실 아이들에게 재능기부를 할 의향이 없냐는 의뢰에 나는, 그 동안 제 아이가 사업을 통해 받은 사랑들을 저의 재능이 보잘 것 없지만 아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면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5월 가정의 달! 누구보다도 가정이 소중하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리운 우리 아이들에게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 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풍선아트 자격증이 있는 나는 각종 행사의 풍선장식을 하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풍선아트 수업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풍선공예기법으로 카네이션 만들기라는 재능기부를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이 교육복지실로 모이고 아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풍선으로 카네이션 만들기의 기초 작업을 하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카네이션 만들어서 누구를 드릴 거야?" "저는 할머니 드릴거예요." "저는 아빠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 드릴거예요." 다들 얼굴을 보니 진지하고, 모두 소중한 가족을 떠올리는 듯 했다. 불지 않은 새 풍선을 가위로 잘라가며 카네이션 꽃잎을 한 장 한 장 만들고 붙이고 엮다보니 풍선 속 파우더로 인해 손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이 나서 만드는데가 하면 풍선을 불지 않고도 이렇게 멋진 카네이션을 만들 수 도 있구나 감탄하기도 하였다. 더 흐뭇한 것은 자신이 만든 멋진 카네이션을 소중한 가족에게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해하며 자존감이 향상되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풍선카네이션은 시중에서 산 것 이상으로 멋졌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에 아이들은 정말 만족하는 것 같았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 저 하나 더 만들면 안돼요? 라고 하길래 " 그럼 더 만들어도 돼지, 근데 누구 드리려구? " "저희 언니도 주려구요." "와, 언니가 좋아하겠다."~~~ 뭔지 모를 감동으로 가슴이 울렸다.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나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다 마트에 계산한 휴지를 놓고 왔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휴지를 하찮게 생각한 것이다. 나는 누군가에겐 필수적인 수도 있는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살았다. 하지만 많아도 고작 16살인 이 아이들은, 남들과 조금 다른 환경에서도 남에게 배울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다. 재능기부란 이런 것 같다.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나의 바닥난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것!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함께 나의 재능을 기부하세요.
그들에겐 희망이 될 것이고, 나에겐 사랑이 됩니다.”**



석모도 문화교류축제 '설렘'에 참여하며...

삼산승영중학교 1학년 이서연

설렘 공연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여름 방학 때는 오케스트라 캠프가 있었는데, 4시간 동안 악기별로 전문 선생님들께 'Viva la vida', '붉은 노을', '내가 만일', '캐리비안의 해적' 총 4곡을 구체적으로 레슨 받았다. 캠프 중간에 손가락이 아프고, 어지럽고 박자도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5일 동안의 연습을 통해 악기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서 정말 신기하고 행복하기도 했다.

공연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전교생은 점심시간, 석식시간 때마다 모여서 곡들을 연습했다. 솔직히 쉬는 시간에는 쉬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공연에 피해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더욱 열심히 했다. 또 야자시간마다 파트별로 연습을 했는데 그 때 나는 음악 선생님이 많이 고생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공연이 정말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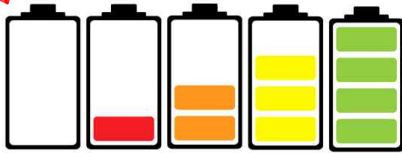
공연 당일 기숙사에서 등교하는 데 아저씨들이 무대를 설치하고 계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가 공연한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오전에 O.Y.E. 진로 캠프를 하고 무대 리허설을 했다. 운동장 한 가운데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오후여서 정말 더웠다. 심지어 나는 플루트여서 한가운데서 리허설 할 때 머리가 활활 타는 기분이었다. 첫 번째 리허설이 끝나고 학교에 들어와서 더위를 식혔지만 곧바로 나가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런데 MC가 눈 익었다. 알고 보니 우리 사촌동생 돌잔치 때 MC로 오셨던 분이셔서 은근히 반가웠다.

시간이 조금 흐르다보니 의자에 관객들이 점차 차고 운동장에 자동차들이 많아졌다. 나는 점점 긴장이 되면서 흥분도 되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우리는 무대 뒤에서 대기를 했다. 어두워지면서 춥기도 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포스코 해피빌더 언니, 오빠들의 춤 공연과 노래 공연들을 봤다.

마지막으로 승영중 오케스트라가 소개되고 우리는 무대에 입장해서 각자 자리에서 준비했다. 딱 의자에 앉았는데 그 동안 연습했던 것이 막 떠올랐다.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게 잘 연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더웠던 날씨가 저녁이 되자 너무 추워서 악기와 손가락이 얼어버려 매우 당황했었다. 하지만 첫 곡을 침착하게 마무리 하니 나머지 곡들도 성공적으로 연주할 수 있었다. 마지막 곡이 끝나니 뭔가 아쉬우면서 후련했다. 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그 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우리 선생님은 '사랑의 배터리'

삼산승영중학교 1학년 서지우



"강화에서 배를 타고 더 들어가는 학교라고?"

"완전 시골이겠다. 그런 작은 섬에도 중학교가 있나?"

"전교생이 오케스트라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영어도 엄청 잘한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던데."

작은 섬에 위치한 승영중학교 입학 앞둔 우리들은 기대와 걱정을 한꺼번에 해야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골에서의 학교생활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설레기도 하고, 부모님을 떠나 기숙사생활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입학하고 한 달 동안 우리는 감기도 자주 걸리고 배도 자주 아픈 병아리였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보다 더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고 이끌어주신 담임선생님이 안계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몸과 마음이 훌쩍 자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승영중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에게 더 친절하십니다.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선생님도 마치 담임선생님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학생 수가 적어도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전교생의 이름을 다 알아서 수시로 불러주시고, 수업 시간에 얼굴만 보시고도 어디가 아픈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아시고 그때그때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는 기사가 되어 직접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고, 부모님께서는 하기 어려운 말도 선생님께는 솔직히 털어놓게 하는 마법사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은 카리스마가 넘치십니다.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도 덩달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고 암기할 것도 암기하기 쉽게 특수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딱딱한 수업만 하기보다는 우리의 관심과 흥미를 끌려고 스토리텔링 수업을 하시고 우리들이 많이 어려워 할 때는 재밌는 자료도 보여주시는 우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학교엄마 학교아빠'가 되어주십니다. 때론 엄하게 야단치시고, 때론 친구처럼 장난도 치고, 놀 때는 시원시원하게 놀아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들의 학교생활은 하루하루 즐겁고 보람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 춤을 잘 추는 친구 등 저마다의 소질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모두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 우리 선생님들은 노래 제목처럼 사랑의 배터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싸우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할 때는 적절한 훈계와 처벌을 내려주시고 잘 조정해주시는 등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이해해 주시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가족같은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이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학교 가는 것이 정말 즐겁고 오랫동안 있어도 편안한 느낌입니다. 우리 승영중학교와 선생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의 배터리,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소원' 동아리 활동 수기 난 행운아!

삼량고등학교 2학년 한별



하우약수터 벽화 보수



외포리 벽화 작업



기부 활동

우리 '소원'이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가하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 했던 '노인 스토리텔링 북'에 이어 이번에는 '어르신 스토리텔링 북, 두 번째 이야기'와 '스토리 벽화 그리기'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은 거창하게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 고장 강화도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엮는 작업과 나들길 주변에 있는 벽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이다. 작년에 한번 해 보았던 '스토리텔링 북' 사업을 진행할 때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작년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삼량고등학교가 있는 내가면 주변 나들길 4코스과 5코스에 관한 내용과 우리들이 그린 그 고장에 전해져오는 전설에 관련된 삽화를 추가 하는 과정을 더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토리 벽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처음해 보는 것들뿐이라 더 꼼꼼한 준비과정이 필요했다. 나들길을 직접 걸으면서 벽화를 그릴 벽을 외포리에 정하고 이장님의 도움으로 그 벽을 섭외할 수 있었다. 또, 교감선생님께서 몽피 화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벽화 도안을 그리러 갈 때마다 함께 가주셨다. 그리고 외포리 벽화를 그리기 전에 몽피 화가 선생님과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건평리의 하우약수터 벽화를 보수하기도 했다. 붓과 페인트가 손에 익숙하지 않다는 생각에 벽화를 그리기 전에 경기도 포천에서 하는 벽화 그리기 체험을 다녀오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 동아리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정말 더운 여름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교실에 있기를 바랄만도 하지만 소원 친구들 모두 적극적으로 더운 햇볕이 내리쬐

는 밖으로 나와 주었다. 외포리와 하우약수터의 벽화 그리기를 준비하면서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페인트를 담은 통을 마련하고 페인트를 구매해야 하는데 18L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여러 어려움과 노력 끝에 완성된 벽화는 우리가 그려서 멋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멋있었다. 정말로!!!

땡벌 아래에서 얼굴에 썬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고 페인트가 묻을까 봐 버리는 옷을 입고 붓을 들고 있는 친구들과 후배들의 모습이 귀여웠다. (이번 사업의 최고의 효자는 몸빼 바지였다.) 붓질을 할 때 불편하다며 장갑까지 벗어 던지고 신발에 페인트가 튈까봐 맨발투혼까지 보여주는 친구들, 그리고 꿀 같은 주말에 시간을 쪼개가며 아이들을 데리고 도움을 주러 오신 김주남 선생님과 말로는 안온다고 하시지만 그 많은 자습을 빼주시고 도와주러 오시는 남승우 선생님, 페인트 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멀리까지 들고 올라가야 할 짐이 넘쳐나도, 얼굴이 초록색이 되도, 작업을 하면서 만난 어르신분들의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와 마음씨 좋으신 아주머니께서 나눠 주신 아이스크림과 간식을 먹으며 같이 웃으면서 끝까지 열심히 그리고 웃는 얼굴로 있어준 소원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다. 우리 ‘소원’처럼 몸이 온통 분홍색이 되도 (소원 마크가 분홍색과 노란색이다.) 웃으며 활동하는 우리들처럼 내 고장을 위해 뜻 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번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과 몽피 화가 선생님, 그리고 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주신 아주머니와 벽화를 그릴 때 손을 보태준 자원 봉사자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원 친구들아 정말로 수고 많았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 열심히 책을 만들고 벽화를 그린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어 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상금을 받았고 학교 축제 때 부스 운영을 통해 번 돈을 합해 적은 돈이지만 사회적 기업 동아리라는 취지에 맞게 내가면에 살고 계신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가 직접 기부금을 전달해 드렸다. 평소에는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넘어갔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말로만 듣던 사회적 문제들이 우리 주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그 분들을 향한 관심이 처음 동아리를 시작할 때의 마음보다 더 커질 수 있었다.

봉사! 나를 키우는 시간

1년 간의 4H 동아리 활동을 돌아보며

삼랑중학교 3학년 홍보미

4-H 동아리에 들어오면서 에너지 교육과 농업기술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상추와 고구마 같은 채소를 직접 밭에 심어보기도 하고 수경재배를 통해서 화분을 만들기도 했다. 농촌지역에 살고 있지만 못해본 것들을 직접 할 수 있어서 무척 재미있었고 의미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제일 의미 있었던 활동은 직접 재배한 고구마와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지역 노인 분들을 돕는 활동이었다.

봄에 동아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과 학교 밭에 있는 밭을 직접 갈면서 고구마를 심었다. 학교 생활 중간 중간에 내려가서 잡초도 뽑고 물도 줬었는데 다들 모두 체육복을 입고 밭에서 일하던 모습이 참 기억에 남는다. 나중엔 다 자란 고구마를 캐서 직접 구워먹고 지역 축제에서 판매하기 위해 포장도 했다.

제일 더울 때인 8월말, 우리 동아리에서는 EM발효액으로 빨래 비누와 강화 사자발 약쑥을 이용해서 천연비누를 만들었다. 비누 베이스를 잘라서 녹인 후 천연 재료들을 넣어 틀에 넣고 굳히면 비누가 완성된다. 하지만 손에 묻고 사방에 흩날린 비누 재료들 때문에 치울 생각이 미리 들어서 짜증도 살짝 났었다. 가득이나 더운 날씨 때문에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만들 때는 힘들었지만 좀 있으면 열리는 강화 지역의 축제에 가서 비누를 판매할 생각에 다들 짜증나는 마음을 추스르고 비누를 열심히 만들었다.

10월에 열린 외포리 새우젓축제에 가서 부스를 고등학교 선배님들과 같이 직접 운영하면서 그동안 만든 비누들을 팔았다. 비누를 만들 때 다양한 모양 틀에 넣고 만들어서인지 알록달록 보기도 무척 예뻐다. 천연비누가 만들어진 과정과 효과를 설명해주니 구입하는 분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하나씩 팔리는 비누들을 보면서 비누를 만들면서 났었던 짜증들, 그리고 판매하느라 쌓인 피로가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새삼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조금씩 깨달았던 것 같다. 그리고 직접 재배했었던 고구마도 같이 판매를 하여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축제에서 판매하면서 생긴 수익금은 모두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쓰기로 하였던 것이다. 내가면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 두 분께 판매금 전액을 난방비와 생필품으로 전달하여 지역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직접 번 돈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쓸 수도 있었지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보람을 느꼈다.

4-H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지만 많이 깨닫게 해준 비누, 고구마 판매와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렸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남을 돕는 활동을 하다 보니 나 자신을 많이 되돌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생활할 때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주었다. 비록 1년 동안 동아리에서 했던 일들이지만 정말 뜻 깊은 시간들이었다.



독거노인 수익금 기부



비누만들기(새우젓축제)



상추 재배후 농산물 수확

무지개를 닮은 3학년 1반, 통합학급 친구들에게~

조산초등학교 교사 고제현

아직 꽃샘추위가 한창이던 3년 전 3월, 너희들이 입학하던 날이 떠오르는구나! 아직 유치원 티를 벗지 못한 앳된 얼굴, 조금은 긴장한 표정들이었지. 그 중 한 아이, 눈에 띄는 현우(가명)가 있었지. 그 첫날부터 너희는 현우를 그냥 '한 반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미 유치원을 함께 다녔던 경험 때문인지 현우의 눈에 띄는 행동이나 소리에 놀라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구나. 그 때부터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조금 놀랐던 것 같다.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을 거듭할수록 너희들은 자라고, 현우도 자랐지. 그렇지만 현우는 아직 또래친구들만큼 준비되진 않았단다. 수업시간에 너희들 공부를 방해할 때도 있고, 쉬는 시간에 너희가 말을 걸어도 대꾸해 주는 법이 없었지. 그래도 너희들은 언제나 "현우는 우리 반"이라고 외쳐주더구나.

책을 입에 잘 넣는 현우에게 "현우는 책을 좋아하나 봐요."라고 말해주는 친구들!

어쩌다 웅얼웅얼 소리를 내면 "현우가 할 말 있나 봐요."라고 말해주는 친구들!

불러도 대꾸 없는 현우에게 "현우야~, "현우아, 가자!", "현우야~ 우유 먹어!"라고 말을 걸어주는 친구들!

수업에 방해될 정도로 소리를 내거나 몸부림을 칠 때도 타박 없이 자기 할 일을 하는 친구들!

언제나 의젓해 보였고 고마웠단다.

어느새 3학년이 되어 함께 지내는 너희들을 보면서 2014년 올해는 더욱 고맙고 기뻐했단다. 3월이었던가, CGV 교육기부로 함께 했던 '영화 만들기' 체험학습에서 "현우아, 사랑해"라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현우도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뛰어 놀 친구임을 짚은 영화를 통해 말해주었지. 그 때 함께 해준 3학년 친구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현우가 직접 출현하게 시나리오를 짰던 것도, 많은 주제들 중에서 그런 주제를 선택해 준 것도 '큰 감동'이었단다. 그래서 선생님도 특수실무원 선생님들도 기꺼이 그 영화에 출현을 결심하기도 했었지. 아마 지금 표현하진 못하지만 현우도 그 작업이 즐거웠을 것이라 믿는다.

손잡고 함께 달렸던 어린이날 체육대회, 조산다모임에서 발표했던 '나의 꿈' 퍼포먼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함께 했던 제빵 수업, 나들길 걷기, 독서동아리 체험학습, 수영장 체험학습, 학교도서관과 돌봄 교실에서 손잡아 주고, 이름 불러주고, 무릎을 내주며 현우를 편하게 쉬게 해준 모습들,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되는구나. 너희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소중한 한 자락의 추억이었으면 좋겠구나.

4학년이 되면 현우는 또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 곁에 있게 될까? 한 뼘쯤 더 자란 키만큼 현우를 생각하는 너희들 마음도 그만큼 자라겠지! 너희들이 함께 그려갈 2015년의 통합학급도 기대하마!



자연으로 배우고 자연처럼 자라는 양도 아이들

양도초등학교 교사 오경선

“○○야 △△이 좀 챙겨줘!” 1학년 △△이가 홀로 뒤쳐져 있기에 조의 만이 역할을 하고 있는 ○○를 불러 세웠다. 작년부터 시작된 ‘양도 가족 강화 도보 100리’는 내고장 강화의 땅을 직접 두 발로 밟아보며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양도초의 체험활동이다. 2박 3일의 일정이 학생들에게 힘들 법도 한데 지치지도 않는지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재미 있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앞서거나 뒤서거나 걸어간다.

도보100리 체험은 양도초의 ‘의형제 모듬’별로 이루어진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선배는 후배를 끌어주고 후배는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걷고 쉬고 또 걷고 쉬고 하는 일정이 1학년 학생들에게는 조금 벅찼나보다. 1학년 학생들 몇몇이 뒤처지자 조의 조장들이 나서 막내들을 챙긴다. 6학년 호진이는 지혁이를 업고 성큼성큼 걸어나간다. ○○는 △△이의 손을 잡고 종종 발걸음을 맞춰준다. 힘든 일정에 한숨 먼저 투정 먼저 나올 법한데, 6학년 학생들의 의젓한 모습에 빙긋 웃음이 나왔다. 사실 이들은 이번 행사에서 뿐 아니라 학교의 굵은일을 종종 도맡곤 했다. 강당의 의자 정리, 물건 나르기, 행사 후의 청소, 동생들 챙기기 등의 일들은 어느새 말하지 않아도 5,6학년 고학년 학생들의 몫이었다. 아무리 초등학교의 최고 학년이라도 그들 역시 이제 12~13살‘초등학생’인 것은 분명한데 당연한 듯 제 몫을 해내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다.

아직 1년차 신규교사인 나에게는 발령 전 ‘학교’란 공간이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무엇보다 종종 들어오던 ‘요즘학생’들에 대한 편견과 공포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양도초 학생들을 만난 후 나는 새로운 종류의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순수한 학생들이 있구나.’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구나.’학생들의 모습들을 알아갈 때 마다 나는 감탄했고, 또 그들로부터 배워갔다.

도보 100리의 두 번째 밤이 깊어가고 국화리 학생 야영장에서의 ‘장기자랑’시간의 막이 올랐다. 2학년 전체 학생들이 나와 개사한 가사로 합창을 한다. 개사의 내용은 반 친구들의 장점을 읊은 내용이다. 3학년 학생들이 나와 동요 반주에 맞춰 음악줄넘기를 보여준다. 4학년 두명의 친구가 나와 동요노래를 부르고, 5학년 학생들은 방과후 시간에 배운 바이올린 연주, 중간놀이 틈틈이 연습한 저글링 솜씨를 뽐낸다. 6학년은 담임선생님의 진두 지휘 아래에 연습한 재미난 춤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양도’스러운 학생들의 솜씨자랑에 진행자도, 지켜보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훈훈해진다.

자연에서 배운 아이들은 참으로 자연의 순리대로 아름답게 꽃피워나가는 듯하다. 땅 갈고 씨 뿌리며 물을 주고 인내할 줄 아는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기에.. 자연의 마음을 한껏 담은 아이들의 그 마음이 오래도록 변치 않기를 바라본다.

옛사람의 손길과 우리 발길의 만남 강화도의 기억을 걷다

산마울고 교사 최보길

귀를 열고 발에 새기는 강화도 역사 기행.

강원도가 고향이고, 청년의 시절을 충청도와 서울에서 보낸 나에게 강화도는 생소한 곳이었다. 혹 전공이 역사라 할지라도 2003년 강화도로 이주하기 전까지 강화도는 한번정도 다녀간 경험만 가지고 있는 흐릿한 기억 속의 고장이었다. 2003년 우연한 기회에 강화 산마울고등학교 역사교사로 자리를 잡은 이후에 강화도는 내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곳이 되었다. 그것은 내가 발 딛는 곳에 대한 애정이 덧붙여졌기 때문이었다. 총각시절을 강화도와 연애에 빠지면서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를 갖는 것도 늦어졌지만 그동안 강화도 역사유적들을 다니며 느꼈던 생각들은 연애의 즐거움 못지 않았다. 강화도는 제주도나 지리산 등 유명한 도보여행 코스에 비하여 웅장함이나 디테일한 풍경은 주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 유적 하나 하나에 깃든 역사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보이는 강화의 매력은 제주와 지리산의 시각적 매력에 못지않은 것이었다. 강화도 역사답사의 즐거움은 역사 유적에 깃든 옛 사람의 손길을 우리들의 발걸음으로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때문에 제주와 지리산이 눈을 통해 만나는 풍경이면 강화는 귀를 통해 만나는 풍경이라는 새삼 새로운 자극이 답사활동의 힘이 되었다.

강화도의 학생들을 만나는 강화도의 교사.

요즘 학생들은 대학 진학 혹은 취업을 위해 강화도를 떠나기도 한다. 강화도만의 일은 아니지만 오늘 날 젊은 친구들은 도시에서 20대 이후의 삶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강화도의 아이들에게 강화는 나고 자란 곳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의미로만 남는다. 강화도를 고향으로 여기는 학생들에게 적어도 강화도에 대한 자부심은 단순히 애향심을 넘어 혹여나 강화도로 돌아 오고자 할 때 그들에게 고향으로의 귀촌, 귀농, 귀어의 자극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러므로 강화도 학생들에게 강화 역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강화도에 있는 학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강화도가 고향이 아닐지라도 강화학생들을 만나는 강화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강화 역사를 알고 있어야 할 책무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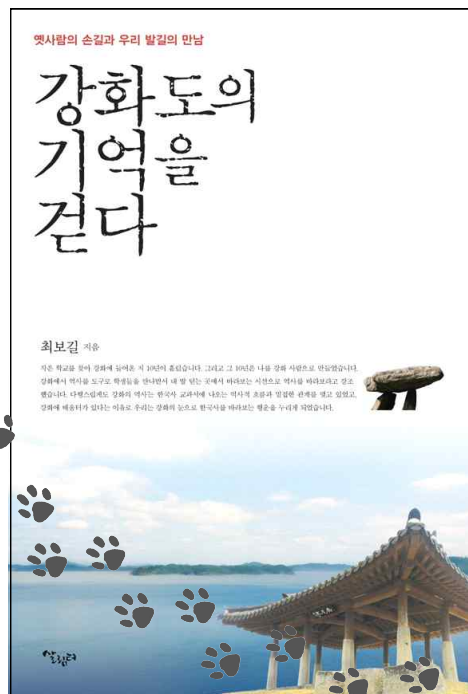
옛사람의 손길과 우리 발길의 만남,

강화도의 기억을 걷다.

몇 해 전부터 강화 역사를 주제로 선생님들과 답사모임을 운영해왔다. 귀와 함께하는 강화도의 매력에 빠진 내게는 즐거운 일이기도 했지만 강화도에서의 삶을 허락해준 강화도에게 진 빚을 갚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렇게 생긴 답사모임에서 그동안 축적해왔던 자료들을 챙기고 그것들에 역사교사로서의 시각을 담아 자료를 새롭게 구성하고 모아두기 시작했다. 어찌하다가 인연이 되어 인천과 강화의 지역신문에 연재를 하기도 했고, 강화도를 찾기 위해 자료를 찾는 전국 선생님들께 보내 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강화도의 역사를 한권에 묶은 [강화도의 기억을 걷다. 최보길, 살림터, 2014]이다.

강화도의 역사는 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강화도의 역사유적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의 역사를 살필 수 있었다. 강화사가 한국사를 품고 있는 것이다.

강화 역사를 연구한 많은 분들이 계시다. 강화의 학생들을 만나며 강화 학생들이 발 딛은 곳의 역사와 만나게 해준 선생님들이시다. [강화도의 기억을 걷다]가 또다시 이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저마다의 발걸음이 닿은 곳에서 바라보는 강화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길 바란다. 귀를 열고 발에 새기면 그 엄청난 매력을 가진 강화도에 강화의 학생들과 강화의 어른들이 함께 발걸음을 내어주었으면 좋겠다. 학교 도서관과 서재에서 강화도로의 교육 여행을 꿈꾸는 강렬한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사를 품은 강화사가 강화 학생들에게 가슴깊이 뜨거운 그리움을 자극해주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발행인 :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



자문위원 : 교육지원과장 이미영



장학사 : 김종헌, 이진배, 김옥자, 송윤숙, 김철환, 한향숙, 최정화



기획 총괄 : 장학사 김연진



편집위원 : 선원초등학교 교사 이은주
선원초등학교 교사 최은정
해명초등학교 교사 권애경
삼성초등학교 교사 신현태
길상초등학교 교사 이훈석



발행처 :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417-833)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7
Tel : 032-930-7754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Incheon GanghwaOffice Of Education